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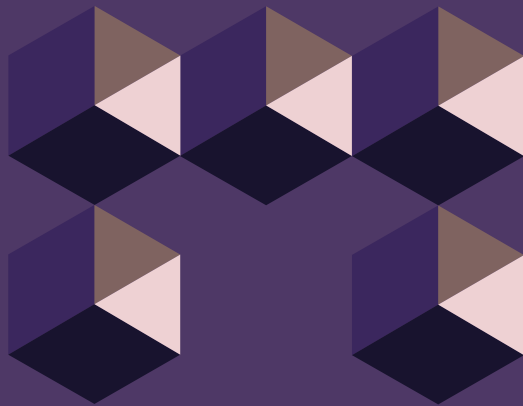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 3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

# 리라프로젝트, 실험하는 작은도서관

연구책임자 :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 3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

# 리라프로젝트, 실험하는 작은도서관

연구책임자 :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



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목 차

### 제1장 왜 지금, ‘도서관 실험실’인가

1. 국내외 도서관계의 변화	06
2. 한국 사회의 복합적 전환과 도서관의 과제	11
3. 작은도서관을 실험실로 상정하는 이유	13
4. 리라프로젝트 개요	16

### 제2장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1. 연구 목적	22
2. 연구 방법	22
3. 연구 윤리와 한계	24

### 제3장 도서관별 실험의 전개와 발견

1. 작은도서관 웃는책: 독서동아리, 의미와 관계를 언어화하기	29
가. 실험의 문제의식과 목적, 방법	
나. 실험의 과정	
다. 실험의 주요 발견점	
1) 작은도서관 웃는책 연구원들의 발견점	
2) 작은도서관 웃는책 리라프로젝트의 발견점	
(1) 사유의 대상으로서의 독서동아리	
(2) 연구 기법을 넘어 관계를 다시 짓는 듣기의 윤리	
(3) 페르소나의 여정지도, 가상의 이용자가 아니라 실존 데이터에서 추출한	
(4) 적정연구의 필요 그리고 가능성	

---

---

## 2. 예다움 작은도서관: 4050 여성의 공간 아지트 실험

43

가. 실험의 문제의식과 목적, 방법

나. 실험의 과정

다. 실험의 주요 발견점

1) 예다움 작은도서관 연구원들의 발견점

(1) 이용자 조사의 새로운 방식, 도서관 프로브 노트의 가능성

(2) 보편화되지 않는 발견들, 아지트 실험단이 보여준 4050 여성의 삶

2) 예다움 작은도서관 리라프로젝트의 발견점

(1) 리서치-실행-관찰(리서치)-수정(실행)의 반복 루프

(2) 아파트도서관, 가장 작은 단위의 로컬리티

## 3. 초롱이네도서관: 나를 위한 기록, 작지만 큰 개인 삶의 연구

54

가. 실험의 문제의식과 목적, 방법

나. 실험의 과정

다. 실험의 주요 발견점

1) 초롱이네도서관 연구원들의 발견점

(1) “우리”에서 “나”로 이동하는 기록

(2) 참여자 5인의 변화

(3) 박제로서의 기록이 아닌, 현재의 재구성으로서의 기록

2) 초롱이네도서관 리라프로젝트의 발견점

(1)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실험

(2) “욕망”이라는 단어가 불러온 저항과 이동

(3) 개인의 욕망 기록을 공적 공간에 놓을 때

## 4. 작은도서관 caru: 서로 돌보는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아웃리치

67

가. 실험의 문제의식과 목적, 방법

나. 실험의 과정

다. 실험의 주요 발견점

1) 작은도서관 caru 연구원들의 발견점

(1)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실험 이용자의 목소리

(2) 피프티피플, 서로 돌봄의 네트워크

---

- 
- 2) 작은도서관 caru 리라프로젝트의 발견점
    - (1) 도서관의 경계 실험
    - (2)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도서관
    - (3) 실천의 언어가 되는 책

## 제4장 리라프로젝트의 공통 발견 10가지

1. 이용자는 이미 바뀌어 있었는데, 도서관은 그대로였다.	84
2. 물기로 말 걸기, 듣기로 기획하기	84
3. 공간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욕망을 조직한다.	85
4. 깊은 변화에는 시간이 든다.	86
5. 활동가는 노동력이 아니라 지식 생산자다.	88
6. 기록은 부수 업무가 아니라 실험의 핵심 인프라다.	89
7. 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다.	90
8. 도서관 밖의 언어와 낯선 접속은 학습의 전환을 만든다.	92
9. ‘커뮤니티 도서관’이 활동가 없이 가능한가?	93
10.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새로운 리더십	94

## 제5장 결론

1. 실험이 가능하려면?	98
2. ‘복제’가 아닌 ‘번역’	100
3. ‘도서관들의 실험실’로서 작은도서관의 공공적 가치	101
4. 도서관 생태계 전환 맥락에서 본 리라프로젝트의 의의	104

참고문헌	109
------	-----

부록	111
----	-----

- 1. 리라프로젝트 공고문, “실험을 함께 할 작은도서관을 찾습니다”
  - 2. 리라프로젝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



## 제1장

# 왜 지금, ‘도서관 실험실’인가



# 1. 국내외 도서관계의 변화

## 가. 세계 도서관계의 의제: 대담한 협업

-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이하 IFLA)의 2025~2027년 회장, 레슬리 웨어(Leslie Weir)은 ‘대담해지자(Be Bold)’를 임기내 핵심 과제로 표방. 도서관이 기존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할 것을 요청. 직전인 2023~2025년 회장, 비키 맥도날드(Vicki McDonald)는 커뮤니티와 협력을 강조한 ‘함께일 때 더 강하다(Stronger Together)’라는 의제로 도서관계를 이끌었음. 현재, IFLA는 이 두 가치를 합쳐, “Stronger, Bolder, Together”를 기치로 근미래 도서관의 방향을 설정했음. 커뮤니티 협업이라는 기본 방향 위에, 실험과 대담함을 실행원리로 삼아,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자 함.
- 2025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89차 아스타나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이하 WLIC)에서 두 회장이 Astana Times와 가진 인터뷰에서도<sup>1</sup>, 개별 도서관이 혼자 잘하는 성과보다, 도서관 간, 지역사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집단적인 영향력을 키울 것을 요구.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서 도서관은 문해력(기초문해력부터 AI 등의 매체 문해력에서 비판적 문해력까지),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커뮤니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 앞으로 몇 년간 도서관이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Stronger, Bolder, Together”를 설명하는 웨비나에서<sup>2</sup> IFLA 회장단은 도서관은 ① 기후 위기, 불평등, 급변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기존의 서비스 유지에 머물지 말고,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② ‘대담함’은 각 지역과 도서관마다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말고 실험할 것을 강조. 도서관 분야 내부의 협업 방식뿐 아니라, 지역사회·협력 기관·정부 등과 함께 일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다시 점검하길 요청.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테스트베드형 서비스, 도전적인 공간 재구성을 시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 것 ③ 지역 수준을 넘어 국제적 수준으로 연결하고 협업할 것 ④ 감각적인 구호가 아니라 사회변화에 대한 이용자 데이터와 트렌드 리포트, 정책 연구에 근거하여 변화의 방향을

1 Global Collaboration Key to Future of Libraries, Say IFLA Leaders During Visit to Kazakhstan, The Astana Times, 2025년 8월 20일자

2 IFLA launchpad session, 2025년 7월 14일 <https://youtube/mgA5z1wQ-kQ> 2025년 7월 15일 [https://youtube/\\_xauatdL4g4](https://youtube/_xauatdL4g4) 제90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2026년 8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릴 예정임.

설정하고, 실험과 혁신 역시 근거 기반으로 설계할 것. ⑤ 정보 접근성, 표현의 자유, 다양성 등에 문턱이 높은 장애인, 이주민, 어린이, 고령자 등을 위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것. ⑥ ‘도서관다움’이라는 전통적인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과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험하는 기관이 될 것을 요구.

- IFLA는 WLIC와 같은 국제행사 또한 사례 공유를 넘어 새로운 시도와 공동 행동을 설계하는 장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힘.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대회(주제 또한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으로, 각국의 도서관이 자국 사례를 단순히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함께 실험할 수 있는 의제를 제안할 예정.
- 광범위한 문헌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개입하는 탄력적인 공적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을 강조한 IFLA는 IFLA 트렌드 리포트 2024<sup>3</sup>에서 도서관 미래상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보여줌. 즉, 변화가 일어난 후에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토론하고, 변화의 방향을 시민의 삶과 사회, 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실험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함을 강조.
- 도서관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핵심 트렌드는 ① 지식 실천의 변화 ② AI와 신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 ③ 신뢰의 재구성 ④ 기술 및 정보 활용 능력의 복잡화 ⑤ 디지털 기술의 불균등한 분포 ⑥ 정보 시스템의 자원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의 부담 ⑦ 공동체 연결에 대한 욕구 확대 임. 이러한 트렌드가 교차할 때 가능한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10가지의 핵심 시나리오와 7가지 추가 시나리오로 보여줌. 보고서는 개별 도서관이 위에서 제시한 메가트렌드와 지역적 맥락을 결합하여 시나리오적 사고로, 미래 상황을 상상해보고,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기를 요청.

## 나. 국내 도서관계의 과제

-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2024년 5월 29일 심의·확정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sup>4</sup> 초고령화·저출산·지역소멸, 독서율 및 이용률 하락,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복합적 변화를 도서관 정책의 전제로 설정. 특히 이용자 감소와 이용 형태 변화는 기존의 연령·서비스

3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ifla-trend-report-2024.pdf>

4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2024.5.29

중심 운영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를 명시함.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제시한 정책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 모두의 도서관’, ‘공동체의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 ‘국가 경쟁력 강화, K-지식자원 보고’, ‘미래를 위한 준비, 도서관 혁신’ 임.

## V. 주요 기대효과

구분		2023년	2028년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 모두의 도서관	도서관의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생활문화독서 동호회 운영 수(관당))	4,108개 (3.3개)	7,000개 (5개)
	생애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활성화 (참여 공공도서관 수)	885개관 (73.7%)	1,200개관 (85.7%)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강화 (연간 출판량 대비 대체자료 제작 비율)	21% (1.2만 건)	30% (1.8만 건)
	사회적 약자 도서관서비스 확대 (고령자, 다문화가족, 사회ברי 프로그램 지원)	-	100개관 (매년)
	특수환경 도서관서비스 확대 (지역 의료시설과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	-	17개 (시도단위)
공동체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 (관당 봉사대상인구)	1,270개 (4.2만 명)	1,400개 (3.7만 명)
	인구감소지역 유휴공간 활용 (체류형 독서문화·창작공유 공간개선 지원)	-	200개소
	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특화·세대공감 대표 프로그램 운영)	-	17개 (시도단위)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 (도서관 리빙랩 조성·운영)	-	17개 (시도단위)
	도서관 융합서비스 확대 (도서관·지역출판·서점 상생협력 운영)	-	17개 (시도단위)
국가 경쟁력 강화, K-지식자원 보고	국가장서 디지털 보존 및 활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200만 책	250만 책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확대 (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편성비율)	2.5%	3%
	공동체 기억의 수집·공유·확산 (디지털 아카이브 ‘코리아 메모리’ 구축)	24만 건	30만 건
	지역자료 수집력 강화 (광역대표도서관 납본·보존센터 설치)	-	17개 (시도단위)
	기업·연구자를 위한 K-콘텐츠 창작·연구지원 (텍스트데이터 및 디지털컬렉션 서비스)	텍스트데이터 1.4만 건 디지털컬렉션 218식	텍스트데이터 1.8만 건 디지털컬렉션 275식
미래를 위한 준비, 도서관 혁신	도서관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 적용 (인공지능, 클라우드,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기초연구	AI 활용 서비스 및 지능형 업무지원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 (도서관 가상 모형(Digital Twin) 서고 구현 등)	기초연구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운영
	공공도서관 사서 직무교육 강화 (관당 직무교육 건수 및 시간(평균))	12건 (73시간)	20건 (100시간)
	사회수요 맞춤형 미래사서 양성체계 구축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전문사서’ 시범 양성)	-	100명
	도서관위원회 ‘국제협력전문위원회’ 구성 (도서관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플랫폼)	구성안 마련	(매년) 워킹그룹 및 국제세미나 개최

표 1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기대효과

- 이 가치들이 선언적 가치 제시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근거 기반의 실험과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들과 방법론이 필요함. 2028년까지 달성할 주요 기대효과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행과제들 중 어떤 영역은 양적 확대와 질적 전환이 목표이고, 어떤 영역은 새롭게 창출되어야 할 과제임. 2023년 현재, 국내의 선행 사례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원이 미비한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고령자와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특수환경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유휴공간 활용’, ‘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도서관 리빙랩 조성·운영을 통한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 ‘지역의 도서 생태계의 협력을 통한 도서관 융합서비스 확대’, ‘지역자로 수집력 강화’, ‘사회수요 맞춤형 직무역량 개발’ 임.
- 2024년 4월 18일 발표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sup>5</sup>은 중장년 이후의 독서율 하락을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진단함.
  - 저출생·고령화·1인가구 증가로 전통적 독서 정책의 주요 타깃 붕괴
  - 성인, 특히 중장년 이후 세대의 독서 단절
  - 디지털 미디어 확산으로 인한 독서 경험의 파편화
  - 독서는 개인적·고립적 행위라는 인식의 고착
-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핵심목표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 및 책 친화 기반 조성’ 임. 표 2와 같이,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독서 습관 형성 지원’, ‘독서문화 환경 개선’,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라는 4가지 추진 전략이 있고, 각각 3가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가짐.
- 비독자의 독자 전환에서 강조되는 점은 비독자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이들에 맞는 독서진흥을 유도하는데 있음. 상황 기반 비독자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한)나 의지 기반 비독자(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함으로 인한), 환경 기반 비독자(난독증이나 집중력 부족으로 어릴 때부터 책 읽기의 어려움을 겪은)를 나누어, 맞춤형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일회성, 대규모의 독서캠페인 못지않게, 작은도서관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세분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함(12쪽)을 주장. 함께 읽는 독서공동체를 확산하여, 독서를 매개로 한 사회적 연결과 숙의를 촉진하자는 정책도 강조함.

5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4.18

비전	독서의 저변 확대
핵심목표	비독자의 독자 전환 및 책 친화 기반 조성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인구 유입을 위한 가치 공유, 환경 조성,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 다각화</li> <li>◆ 디지털화, 초개인화, 지방시대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서문화 진흥 지원 강화</li> <li>◆ 네트워크 확대, 성과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독서 생태계 고도화</li> </ul>
핵심지표	<p>① (성인)독서율 : ('23년) 43.0% → ('28년) 50.0%</p> <p>② (성인)독서 유용성 인식 : ('23년) 67.3% → ('28년) 75.0%</p>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b>추진전략 1.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b>
	(정책과제 1) 비독자 대상 유형별 독서 진흥
	(정책과제 2) 독서의 즐거움 발견 지원
	(정책과제 3) 독서의 효용성 제고
	<b>추진전략 2. 독서습관 형성 지원</b>
	(정책과제 4) 공간별 독서습관 형성 지원
	(정책과제 5) 생애주기별 독서습관 형성 지원
	(정책과제 6) 독서소외인 독서습관 형성 지원
	<b>추진전략 3. 독서문화 환경 개선</b>
	(정책과제 7) 독서접점 확대
	(정책과제 8) 독서콘텐츠 확충
	(정책과제 9) 지방시대, 지역사회 독서기반 강화
<b>추진전략 4.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b>	
(정책과제 10) 디지털 독서 진흥 체계 구축	
(정책과제 11) 독서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 12) 독서분야 정책체계 고도화	

표 2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비전 및 추진전략

## 2. 한국 사회의 복합적 전환과 도서관의 과제

-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을 서비스하는 도서관은 ①이용자의 급격한 변화(고령화, 저출생, 1인 가구화, 인종·민족·종교·신체·문화적 다양화 등), ②문해 환경의 변화(독서율의 하락, 아날로그 및 디지털 문해력 격차, 비접촉 커뮤니케이션 확산, AI의 등장 등), ③기후 환경의 변화(극단적 기후, 탄소 감축의 요구 등)을 경험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변화가 복합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는 돌봄의 장기화와 시장화, 신체적·사회적 고립, 정보의 격차, 비주류를 향한 혐오와 차별, 에코 체임버, 고통의 양극화 등으로 나타남. 빠른 변화가 상수인 시대, 도서관계 내외로 창의적인 사회적 실험에 대한 요구가 커짐.
- IFLA는 트렌드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이 사회적 고립, 불신, 돌봄의 파편화라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정보 접근 중심 모델' 만으로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즉, 도서관이 더 이상 중립적 공간에 머물 수 없으며, 관계와 신뢰를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함.
- 한국 사회의 변화와 IFLA Trend Report 2024에서 제시한 도서관 트렌드를 함께 놓고 볼 때, 한국의 도서관에 필요한 것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서관의 운영 모델 자체를 사회적 실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임. 특히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시민이 정보와 지식을 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읽고 검증하고 나누는 대화의 공간, 자신과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각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매체로 창조하는 공간, 취약계층 대상의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성공의 담론을 넘어 말하기 어려운 삶의 조건과 사회적 고통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공간, 사서 단독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 파트너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연결되는 공간, 독서율·문해력 하락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리터러시 환경을 조성하는 공간. 참여자 수와 같은 양적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삶의 변화와 역량 증진을 평가 지표로 삼는 공간 등임. 이러한 전환은 선언적 구호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역 데이터와 도서관을 둘러싼 트렌드의 분석, 그리고 시나리오적 사고에 기반한 작은 실험들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함.
- 2025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인의 도서관 이용율은 13.8%로 조사 이래 최저치

입, 2023년 14.3%, 2021년 16%, 2019년 23.9%에 비해 하락의 비율도 급격함.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율은 급감하여, 50대는 8.6%, 60대는 6.8% 밖에 되지 않음. 50대 이상의 약 90% 이상이 일상의 선택지에서 도서관을 배제하고 있음. 성인 총인구 중 이들의 비중은 약 50%(약 2233만명)로 가장 크고, 평균 기대수명도 82.7세임. 이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도서관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앞으로의 여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도서관의 기능과 가치를 느끼고 경험할 필요가 있음. 중장년의 종합독서율(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또한 다른 연령 대비 매우 심각하게 낮음. 20대가 75.3%인데 비해, 50대는 26.9%, 60대는 17.4%로 나타남.

- OECD PIAAC(국제성인역량조사) 2주기(2024)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45~54세 중년층 문해력 평균은 244점, 55~64세는 217점으로, OECD 최하위권임. 한국의 25~34세 청년층(273점)과의 차이도 OECD내에서 가장 큼. 그림 1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년 전 실시한 1주기 점수에 비해 연령이 높아질 수록 문해력 하락이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 중장년은 1주기에 비해 하락폭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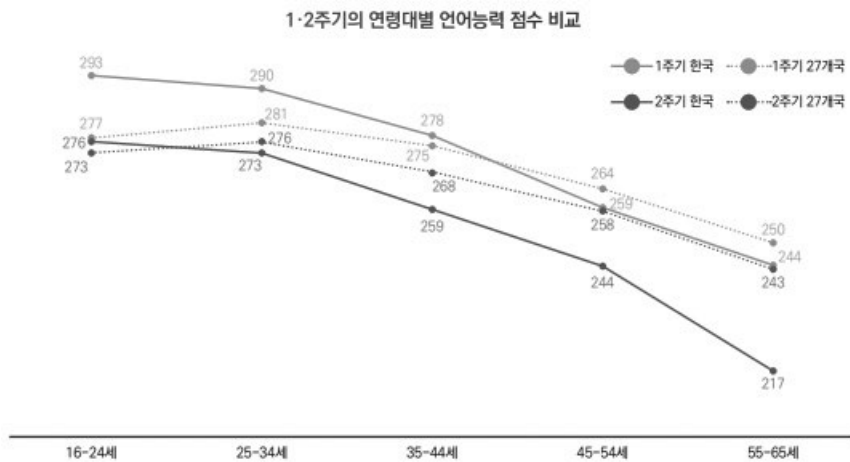


그림 1 PIAAC 1·2주기의 연령대별 언어능력 비교 (출처: 이수현 외, 「OECD PIAAC 2주기 2023년 성인스킬조사 주요 결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14쪽.)

### 3. 작은도서관을 실험실로 상정하는 이유

- 작은도서관은 의사결정의 민첩성과 유연성, 빠른 피드백, 비관료적 운영구조, 자발성으로, 도서관들의 실험실로 최적화되어 있음. 특히 성공적인 작은도서관은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역사, 아웃리치와 독자개발, 운영자와 이용자의 밀도 높은 관계로 만들어지는 미시 커뮤니티 형성, 한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형성된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맥락 이해력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조건은 새로운 콘텐츠나 이용자 모델을 실패 가능성을 감내하며 실험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형성함.
- IFLA Trend Report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또한 미래 도서관의 핵심 역량으로 로컬 단위에서의 반복적인 실험과 학습을 강조하며, 제도 전체를 한 번에 바꾸기보다 국지적 실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확산되는 경로를 제안함.
- 대부분은 작은도서관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어린이 혹은 그들을 포함한 가족 중심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왔음. 작은도서관 태동기인 2000년 10세 미만의 어린이 비율은 총인구의 14.43%였는데 비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은 전국을 통틀어 332개<sup>6</sup>, 초중고학교도서관 보급률은 74.5%, 학생 1인당 장서수는 5.1권에 불과했음. 이 시기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다양하게 실험하며, 그림책, 어린이책, 어린이책모임, 책 관련 활동의 부흥을 이끌어왔음.
- 2025년 현재, 10세 미만 어린이는 총인구의 5.78%이며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 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고 있음. 학교도서관 보급률은 99%에 달하고 1296개 공공도서관 대부분 어린이실을 갖추고 있음. 또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아이들이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 돌봄 기관에 종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일 낮 시간대에 학교 밖 도서관을 자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음. 방과 후에는 조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일정이 일상화되며, 아이들이 주말을 제외하고는 지역 도서관에 들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 개인의 독서 의지나 흥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가 이미 제도와 일정으로 촘촘히 점

<sup>6</sup> 인구 통계는 통계청에서, 공공도서관 어린이실과 학교도서관 통계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도서관통계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추출함.

유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그 결과, 많은 작은도서관에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운영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어려운 조건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고, 기존의 어린이 서비스에 더해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이용자 중에서, 특별히 중장년층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독서율과 도서관 이용률은 매우 낮음. 이들은 자녀 돌봄과 부모 간병, 노후준비의 중간에 끼어있으나, 유아동 정책, 청년 정책, 노년 정책 어디에서도 뚜렷하게 호명되지 않는 이들임. 도서관과 독서가 왜 이들의 삶과 분리되어 왔는가를 묻는 질문은 곧 초고령화에 들어설 도서관의 미래,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고려할 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음. 작은도서관에는 이 질문이 날카로울 수 있는 까닭과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함. 현장의 운영자와 활동가들 다수가 바로 이 연령층의 당사자로서, 도서관과 삶 사이의 어긋남을 추상적인 문제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감각하고 있었기 때문임.
- 1-2인의 운영진과 다수의 활동가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서 활동가는 필수적임. 자녀교육을 위해 모였던 기존의 활동가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도서관을 떠나고, 새로운 활동가는 충원되지 않아 도서관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짐. 이는 남아있는 운영진과 활동가의 에너지 소진으로 이어짐. 작은도서관의 활동가가 새로 유입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이유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 있음. 또한 활동가의 활기가 넘치는 도서관은 왜 그러한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함. 이를 통해 활동가가 원하는 욕망과 정체성, 역할, 활동의 방식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미래 공공도서관의 핵심인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도서관’은 공적인 인력, 즉 사서와 행정가만 중심이 되어 이루어낼 수 없음. 커뮤니티 중심의 도서관에서 운영자가 가져야할 리더십의 핵심 요소 또한 추출할 필요가 있음.
- 「미래에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의 역할 모델 연구」는 많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밀착형 활동, 관계 중심 프로그램, 새로운 이용자 실험을 이미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가 제도적 언어로 정리되지 못한 채 개별 사례로 소진되고 있음을 지적함.
- 지원사업 중심의 작은도서관 정책은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실험의 축적을 가로막아왔음. 짧은 사업 주기 속에서 현장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음 지원을 준비하느라, 시도의 과정과 실패의 이유를 충분하고 집요하게 기록·성찰·개선할 구조가 부재함. 그 결과, 실패는 학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성공 또한 관장 개인의 경험으로만 남음. 서둘러 시도된

수많은 실험들 끝에 남는 것은 “이미 다 해봤다”는 태도이기 쉬움. 이는 실제로 많은 시도가 반복된 피로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대로 기록되고 분석되지 않은 경험의 누적이 만들어낸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학습 불능의 태도이며, 이는 기록되지 않은 경험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임.

- 시도가 지식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사라질 때, 현장은 점점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짐. 지원사업의 양적 성과가 도서관 평가와 연루되어 있기에, 시도와 중단, 재조정과 실패는 감춰지고 윤색됨. 이는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도 다르지 않음. 따라서 실험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기록임.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질문이 만들어졌고, 어떤 장면에서 멈췄으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남기는 일은, 개별 도서관의 경험을 도서관계 전체의 학습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

## 4. 리라프로젝트 개요

### 가. 리라프로젝트란 무엇인가

- 리라프로젝트(Lila Project)는 Library Laboratory의 약자로, ‘도서관 실험실 프로젝트’를 의미함. 정확한 사업명은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임. 리라프로젝트는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들의 실험실’로 설정하여,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 기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모델로 구조화하여 도서관 생태계 전반에 확산하는 프로젝트임.
- 리라프로젝트의 기획 배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자발성이 높은 활동가 커뮤니티와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실험성은 작은도서관의 본질적 강점임.
  - 각 도서관 콘텐츠는 지역 사람(이용자·비이용자, 활동가, 운영자)에 대한 실제적인 탐구를 전제로 할 때 효과적임.
  -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작은도서관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를 실험하기 위해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함.
  - 실패와 지연의 시간을 허용하며 지원할 때, 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시도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변화에 도전하려는 동기를 형성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시도가 개별 경험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과정을 기록하여 학습자원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 고유의 커뮤니티 기반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 그 필요성을 검증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의 실험이 개별 도서관의 시도를 넘어 더 확장된 공공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도서관 생태계 전반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리라프로젝트는 기존의 단순 예산 지원 방식과 달리, 도서관의 문제의식 도출·리서치·콘텐츠 개발·교육 콘텐츠화·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실험’으로 설계한 실행형 프로젝트임. 참여 도서관은 최소 3인 이상의 운영자·활동가가 연구원이 되어 지역 기반 리서치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를 개발함.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워크숍, 컨설팅, 아카이빙, 확산 연구를 병행함. 자세한 설명은 부록의 리라프로젝트 공고문, “실험을 함께 할 작은도서관을 찾습니다”((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공고 제2024-04-01호) 참고.

## 나. 조직 구조

- 리라프로젝트는 재단법인 씨앗<sup>7</sup>의 민간기금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참여 작은도서관들, 전문가 그룹이 결합된 구조로 운영됨.

주 체		역 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기획 및 총괄 운영
재단법인 씨앗		재원 지원 및 협의
참여 작은도서관		실행연구 주체 (연구, 실험, 기록, 교육자료 생산)
전문가 그룹	컨설턴트	각 작은도서관별 담임제 컨설팅
	영상 기록자	영상 아카이빙 기획 및 영상 기록, 홍보 자료 제작
	연구자	리라프로젝트 연구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이하 협회)는 리라프로젝트의 전체 기획과 총괄을 담당하였음. 협회는 프로젝트 매니저 1인과 실무 매니저 1인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여, 사업 설계 및 운영 전반을 수행하였음. 두 인력 모두 국립도서관과 공·사립작은도서관에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음, 이들은 협회의 이사장과 긴밀히 협의하며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주요 의제를 조율함. 구체적으로는 참여 도서관 선정 심사, 리서치 학교 진행, 운영 주체들과의 정기회의 및 협의, 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기획·운영, 외부 홍보 및 발표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 과정을 총괄하였음.
- 리라프로젝트의 재원은 재단법인 씨앗이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기금’ 시즌 3에 포함된 사업비로 조성되었음. 2024~2025년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나, 2026년 2월 현재, 2027년까지 2년 더 확장되어, 총 4년 규모의 중기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음. 각 도서관별 상황에 따라 연 900만원~1,200만원을 지원함.
- 참여 작은도서관은 리라프로젝트의 실행 주체로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음. 2024년부터 지난 2년간 참여한 작은도서관은 4개관이며, 2025년부터 3개관이 추가로 선정되어, 2026년 현재 총 7개의 작은도서관이 리라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2024년에 시작한 도서관을

<sup>7</sup> 리라프로젝트 착수 당시 ‘(재)도서관문화재단 씨앗’은 이후 명칭을 ‘재단법인 씨앗’으로 변경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공식 명칭인 ‘재단법인 씨앗’으로 통일하여 표기함.

‘리라 1기’ 로, 2025년부터 추가 선정된 도서관을 ‘리라 2기’ 로 구분함. 각 도서관의 소재와 운영 주체, 실험 주제는 다음의 표와 같음.

참여 도서관	소재	공·사립	주제	기수
작은도서관 웃는책	서울시	공립	독서동아리 커뮤니티	1기
에다움 작은도서관	고양시	사립(아파트)	새로운 이용자 개발	
초롱이네도서관	청주시	사립	기록	
작은도서관 caru	춘천시	사립	서로 돌봄	
석수골작은도서관	안산시	사립	다양성(다문화)	2기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인천시	사립	마을 커뮤니티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제천시	공립	지역어(사투리)	

- 외부 전문가 그룹은 컨설턴트, 아카이빙 기획 및 영상 기록자, 연구자로 구성되었음.
- 컨설턴트는 각 작은도서관별로 ‘담임제’ 방식의 밀착 컨설팅을 운영하였음. 2024년에는 문화기획자와 독서교육연구자가 참여하였고, 2025년에는 브랜딩 전문가이자 공간디자이너가 추가되어, 총 3인으로 확대되었음. 컨설턴트는 참여 도서관의 문제의식 도출, 리서치 설계, 콘텐츠 실험 및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월 1회의 현장 방문 또는 상시 소통을 진행하고, 월 1회의 정기 컨설턴트 회의에 참여하여 자문과 협의를 병행함.
- 아카이빙 기획과 영상 기록은 1인의 다큐멘터리 PD가 맡아,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아카이빙하였음. 참여 도서관들이 각자의 실험을 기록할 수 있도록 촬영·편집 워크숍을 운영하여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움. 또한 전체 워크숍과 주요 공유 과정을 촬영하고, 각 도서관이 제작한 영상 자료를 편집·보완하여 확산 가능한 아카이빙 자료로 정리하였음.
- 리라프로젝트에 참여한 1인의 연구자는 리라프로젝트 전체를 분석·정리하는 총괄 연구를 담당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그 연구의 결과물임.

## 다. 진행 과정

-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리라프로젝트 1기의 진행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다만

1~4단계의 진행은 참여 도서관별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일률적 일정이 아닌 가변적 속도로 운영되었음. 각 도서관별 진행 과정은 3장에 자세히 서술함.

	핵심 내용	주요 활동
준비 단계 (2024년 2~4월)	프로젝트 설계 및 참여 기반 마련	사업설계 외부 전문가 자문 리서치학교 리라프로젝트 설명회 참여 도서관 심사 및 선정
1단계 문제의식 도출 (2024년 4월~)	도서관의 현재 상태 진단 및 실험 질문 설정	도서관별 내부 토론과 방향 설정 전체 워크숍 및 협약 월별 컨설턴트 회의 시작 사업 홍보 시작
2단계 리서치 (~2024년 12월)	각 도서관의 이용자·비용자·활동가에 대한 탐구	도서관별 리서치와 자료 분석 월별 컨설팅 시작 현장 모니터링 시작 전체 영상 아카이빙 워크숍 중간 결과 공유회
3단계 콘텐츠 개발·실행 (2025년 1월~)	리서치 기반 콘텐츠 설계 및 운영	도서관별 시범 운영, 수정 및 보완 과정 기록 및 영상 아카이빙
4단계 교육콘텐츠 개발 (~2026년 1월)	실험 결과의 학습 자료화	도서관별 교육자료 제작 전체 결과 공유회
5단계 공유·확산 (2026년 3월~)	콘텐츠의 공공적 확산	영상콘텐츠 제작, 연구보고서 발표 (2026년의 중점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논의중)





## 제2장

#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 1. 연구 목적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전환 속에서, 커뮤니티 중심 도서관의 의미와 실천방식을 실험을 통해 재정의한다.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도서관이 삶의 전환기에 놓인 개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규명한다.
- 2) 리라프로젝트에 참여한 네 작은도서관의 사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도서관 콘텐츠 실험이 이용자 경험, 관계 구조, 공간 활용 방식, 기록과 돌봄의 실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통합적으로 해석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활동가·운영자 각 층위에서 나타난 인식 전환과 학습 과정을 드러낸다.
- 3) 리라프로젝트를 단일 프로그램의 실행이 아닌, 지원 구조·공모 방식·컨설팅 체계·연구 설계·아카이빙 형식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실험 모델로 규정하고, 그 설계와 실행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도서관계의 실험실로 가능할 수 있는 조직적·관계적 조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리라프로젝트를 단일 프로그램의 성과 보고가 아니라, 구조적·관계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임. 연구는 ‘다중 사례 질적 연구(multiple case study)’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컨설턴트로 참여한 연구자의 위치를 전제로 한 ‘실행연구적’ 요소를 포함함. 연구자는 완전한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설계와 해석 과정에 컨설턴트로 함께 한 참여 관찰자였음. 이에 따라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해석 개입 가능성을 자각적으로 검토하였음.

##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정부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관련 정책보고서, 작은도서관 관련 선행 연구보고서, 국내외 도서관계 동향 자료를 분석하였음. 특히 IFLA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디지털 전환, 사회적 고립 등 동시대적 조건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

였음. 이를 통해 리라프로젝트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국내외 정책 및 이론적 논의와 어떤 접점을 갖는지를 분석하고, 사례 해석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음.

## 2) 질적 연구

질적 자료는 리라프로젝트 1기 전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및 기록을 중심으로 수집되었음.

- 각 도서관이 제출한 지원서와 사업계획서
- 각 도서관이 수행한 리서치 자료 (인터뷰, 프로브 노트, 여정지도, 설문, 포커스그룹인터뷰)
- 각 도서관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 각 도서관의 결과보고서
- 각 도서관의 사진 및 영상 아카이빙 자료
- 리라프로젝트 참여자의 회고 자료 (2024년)
- 리라프로젝트 모든 참여자(관장, 활동가, PM) 대상의 오픈형 설문(2025년 12월)
- 각 도서관이 출간한 도서와 소책자
- 각 도서관이 생산한 교육자료
- 결과 공유회의 전시물(2026년 1월)
- 리라프로젝트 컨설팅 회의 자료
- 리라프로젝트 프로젝트 매니저와의 인터뷰 (2026년)

연구자의 현장 메모와 사회 역사 분석 자료에 포함하여, 공식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맥락과 감각을 보완하였음.

자료 분석은 귀납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우선 각 도서관 사례를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사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공통 주제를 도출하였음. 주요 분석 범주는 다음과 같음. 문제 정의 방식, 실험의 설계와 수정 과정, 경험과 그 해석, 이용자·활동가·운영자의 변화, 관계 구조의 재편, 실험이 가능했던 조건임. 이러한 범주는 사전 설정된 이론 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음.

## 3) 현장 방문 및 참여 관찰

연구자는 리라 1기에 참여한 작은도서관인, 작은도서관 웃는책, 예다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caru를 직접 방문하여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식,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비형식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또한 결과공유회에서 초롱이네도서관의 전시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기록의 공공화

실험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였음.

#### 4) 자료의 신뢰도 확보와 해석의 타당성

본 연구는 문헌 자료, 인터뷰 기록, 설문 응답, 현장 관찰, 시각 자료를 교차 검토하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동일한 사건이나 변화가 서로 다른 자료 유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단일 자료에 의존한 해석을 지양하였음. 일부 해석은 프로젝트 참여자와의 재확인 과정을 거쳐 보완하였음.

본 연구는 리라프로젝트를 완료된 성과 모델로 제시하기보다, 실험이 어떻게 형성되고 수정되며 학습으로 전환되는지를 추적하는 과정 연구(process-oriented qualitative study)로서 의미를 가짐.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하나의 결론이라기보다, 실험의 구조와 조건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해석하는 중간보고의 성격을 가짐.

### 3. 연구 윤리와 한계

#### 1) 연구 윤리

본 연구는 관계 기반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참여자의 익명성과 맥락 보호를 연구 윤리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음. 인터뷰 기록, 회고 자료, 오픈형 설문, 프로브 노트 등에는 개인의 감정과 삶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중장년 참여자들의 기록은 사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화하였음.

리라프로젝트는 참여적 성격을 갖는 실행연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와 현장 주체 사이의 경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음. 연구자는 일부 과정에 컨설턴트로 참여하였으며, 이는 해석 과정에서 완전한 외부자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자의 위치성을 명시하고,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입 가능성을 자각적으로 검토하였음. 일부 분석은 참여자와의 재확인 과정을 거쳐 해석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프로젝트의 내부 자료와 참여자 서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비판적 거리 두기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김.

리라프로젝트의 변화는 주로 태도, 관계, 감각의 전환과 같은 질적 차원에서 관찰되었음. 이러한 개인의 변화가 장기적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혹은 일시적 동력에 머무르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실험 문화가 지속될 것인지, 참여자 개인의 변화가 조직의 제도적 변화로 확장될 것인지는 추가적 추적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실험을 일정 시점에서 해석한 중간 기록에 해당함. 따라서 본 연구의 서술은 완결된 평가라기보다, 특정 맥락과 조건 속에서 가능했던 변화의 양상을 제시하는 것에 가까움. 리라프로젝트는 분명 기존의 작은도서관의 사업들과 다른 결을 형성하였으며, 도서관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선행 제안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지님. 다만 이러한 시도가 도서관계 전반에 실질적인 파장을 형성할지, 혹은 작은도서관 내부의 담론과 실천에 국한되어 순환될지는 향후의 확산 과정과 제도적 수용 여부에 달려 있음. 리라프로젝트가 제안한 방법론과 구조가 다른 맥락 속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재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지는 이후의 축적된 사례와 후속 연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제3장

# 실험의 장(場): 네 개 작은도서관의 실험



■ 리라프로젝트는 네 개의 작은도서관을 동일한 실험 틀에 끼워 맞추지 않음. 각 도서관은 서로 다른 지역, 이용자, 운영 역사, 활동가 구성, 공간 조건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현재 개별 도서관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에 대한 감각이 달랐음.

■ 각 도서관의 실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도서관명	지역	운영	연구원	프로젝트명
작은도서관 웃는책	서울시	공립	관장 1인 사서 1인 활동가 2인	독서동아리 실험실, 도서관 독서동아리의 탄생에서 성장까지
예다움 작은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사립 아파트	관장 1인 활동가 2인 (1년차) → 3인 (2년차)	4050, 아지트로 향하다
초롱이네 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사립	관장 1인 활동가 4인 (1년차) → 3인 (2년차)	미래를 여는 작은도서관의 기록활동
작은도서관 caru	강원도 춘천시	사립	관장 1인 활동가 2인 (1년차) → 3인 (2년차)	비독자를 위한 아웃리치, 돌보는 도서관 caru

# 1. 작은도서관 웃는책: 독서동아리, 의미와 관계를 언어화하기

## 개요

- 작은도서관 웃는책(이하, 웃는책)은 2009년 5월 개관한 서울시 강동구 소재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관장 1인, 사서 2인이 운영자로 근무하고 있음.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동구청 소속 공립 작은도서관으로서 ‘웃는책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 운영함. 공원 안이라는 입지 조건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특성을 형성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동선과 맞닿아 있는 장소적 기반을 가짐.
- 2024년 12월 현재 웃는책에서는 성인 독서동아리 8개, 어린이 독서동아리 1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참여회원 수는 총 102명이며, 중복 참여 인원을 제외하면 48명이 독서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음. 한 사람이 여러 동아리에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며, 독서동아리가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중첩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
- 독서동아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총 모임 횟수 1,738회, 함께 읽은 책 4,825권, 단체 카카오톡방 참여자 수 138명 등 그동안의 누적 활동 규모 또한 주목할 만함. 현재 운영 중인 독서동아리는 마늘과 쑥, 강동 책 읽어주는 북소리, 연필심, 그림책 스케치, 온라인 고전세미나, 온라인 동화낭독, 온라인 고전강독, 맛있는책모임(어린이)로, 타 작은도서관과 달리, 성인 참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 가. 실험의 문제의식과 목적, 방법

- 웃는책의 문제의식은, 오랜 시간 활발하게 지속되어 온 독서동아리 활동을 단순한 ‘운영 성과’로 간주하는 데서 벗어나, 사람들이 왜 독서동아리에 참여하고, 왜 이 도서관에 머무르게 되는지 그 이유와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함. 즉, 이 실험은 새로운 독서동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시도임.
- 웃는책이 던진 핵심 질문은 “독서동아리는 개인과 도서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기간의 성과 지표나 참여 전·후 비교만으로는 충분히 포착될 수 없음. 독서동아리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마다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임. 이에 웃는책은 변화의 ‘결과’만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가 만들어지는 ‘전환의 과정’과 그 ‘여정’을 포착하는 데 실험의 초점을 둠.

“웃는책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독서동아리들이 있지만, 그 활동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만 남길 뿐, 이용자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이 공간에 남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웃는책 리라프로젝트 지원서)

- 웃는책의 실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독서동아리는 참여자 개인과 도서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질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의 작동 원리를 언어화하고 구조화한다.
- 웃는책은 ‘인터뷰’와 ‘독서동아리 여정지도’라는 질적 연구 도구를 실험의 핵심 방법으로 채택함. 인터뷰는 참여자 개인의 언어로 경험을 드러내는 장치였고, 여정지도는 그 경험을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 속에서 구조화하는 도구임. 웃는책은 자체 개발한 ‘프로브노트’와 개인별 ‘독서동아리 여정지도’를 40명의 독서동아리원으로부터 받아, ‘페스소나별 독서동아리 여정지도’라는 새로운 분석 도구를 직접 개발함. 이는 독서동아리 경험을 시각화하는 동시에, 개인 혹은 도서관이 독서동아리의 운영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는 자기 분석 도구로 기능했음.
-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는 ‘독서동아리 여정지도’는 기존 도서관 현장에서 흔히 활용되는 매뉴얼 중심의 사고와 분명한 긴장을 이룸. 매뉴얼은 대체로 모든 사람을 유사한 입력과 출력의 구조 안에서 변화 가능한 존재로 전제하며, 정해진 단계와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함. 그러나 웃는책의 실험은 이러한 매뉴얼이 포착하지 못하는 개인의 망설임, 지체, 회귀, 우회, 그리고 느린 변화의 서

사에 주목함. 웃는책은 독서동아리가 작동하는 실제 이유가 단순한 프로그램 구성이나 운영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여정이 존중되는 관계적 구조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함.

## 나. 실험의 과정

웃는책은 리라프로젝트 2년 동안 매주 1회 꾸준히 오프라인 회의를 이어가며, 가장 많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방대한 기록물로 남겼음. 실험의 전 과정을 성실하게 축적했고, 인터뷰 전사물, 여정지도와 프로브 노트, 페르소나 작업과 코멘터리북 제작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각 단계를 빠짐없이 기록물로 소유하고 있음.

### 1) 2024년 상반기: 인터뷰 연구방법 학습과 인터뷰 질문 생성

독서동아리가 개인의 독서와 삶, 그리고 도서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중심으로 인터뷰 질문을 뽑고, 다양한 독서 경험과 삶의 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함. 또한 연구원들은 질적 연구자로부터 인터뷰의 기술과 방법, 전사의 방식에 대한 워크숍을 받으며 연구자의 태도와 기초 역량을 학습함.

### 2) 2024년 하반기: 독서동아리 5인 인터뷰와 인터뷰집 「책·사람·공동체」 발간

웃는책 연구원들은 독서동아리 참여자 5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연구원들은 이를 녹음하고 이후 전사 작업을 거쳐, 다시 읽고 함께 해석함. 핵심적인 개념을 추출하고 재정렬하고, 연구원들의 코멘트를 붙여 인터뷰집, 「책·사람·공동체」를 발간함.

### 3) 2025년 상반기: 독서동아리 확산의 도구 고민

인터뷰집 발간, 도서관 행사, 개인사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웃는책의 독서동아리에서 재발견된 자료들을 어떤 도구를 통해 확산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차례 내부 회의와 컨설팅을 진행함. 영상 기록자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아카이빙 회의와 워크숍도 거침.

### 4) 2025년 중반기: 여정지도 워크숍과 프로브 노트 종합

6월 27일 독서동아리 ‘온라인 고전 세미나’를 시작으로 첫 여정지도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어 7월 초 프로브 노트 회신이 도착하면서 연구는 추상적 기획을 넘어 실제 참여자들의 손글씨와 감정이 담긴 기록으로 구체화됨. 7월 8일 그림책스케치, 7월 9일 연필심, 7월 14일 마늘과숙 등 각 동아리별 여정지도 워크숍이 연이어 열리며, 웃는책 독서동아리의 내부 풍경과 서로 다른 참여 경험이 하나씩 드러남. 동시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수집된 여정지도와 프로브 노트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며 감정의 흐름

과 반복되는 패턴을 추출함.

#### 5) 2025년 하반기 (10-12월): 일곱 개의 페르소나 책과 한 권의 코멘터리 북 제작

상반기와 중반기에 축적된 여정지도와 프로브 노트,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독서동아리에 참여하는 메인 유형과 어려움 유형을 아우르는 일곱 개의 페르소나를 도출함. 각 페르소나의 특징과 이들을 위한 전환의 순간, 제안과 편지를 담은 미니북 7권과 코멘터리 북을 발간함.

### 다. 실험의 발견점

#### 1) 작은도서관 웃는책 연구원들의 발견점

- 웃는책은 1차년도 인터뷰를 모아 「책·사람·공동체」를 펴냄. 인터뷰 자료는 독서동아리를 단순한 독서 프로그램이나 취미 모임으로 이해하는 기존 관점을 넘어, 사람과 사람, 개인과 도서관, 삶과 읽기의 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질적 데이터임. 웃는책 연구원들은 이 자료를 통해 독서동아리가 개인의 삶과 도서관 운영 양쪽에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장치임을 확인함. 다음은 「책·사람·공동체」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된 주요 발견점으로, 인용의 출처는 이 자료 집임.
- 독서동아리는 ‘책을 읽는 모임’이 아니라 ‘말해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장임. 인터뷰 참여자들은 독서동아리를 책의 내용이나 독서 성취보다,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설명함.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가져와도 괜찮은 곳”, “침묵해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 “아픈 이야기도 꺼낼 수 있는”와 같은 표현은 독서동아리가 평가와 성취의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안전감이 보장된 관계의 장임을 보여줌. 이는 웃는책 독서동아리의 핵심 기능이 토론의 질이나 독서량이 아니라, 말과 침묵이 모두 허용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음을 시사함.
- 독서동아리 참여의 지속성은 개인의 의지나 독서 역량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 이는 전날까지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고, 반복 결석 시 제명이라는 명확한 규칙을 통해 회원의 열성과 몰입을 관리하는 트레바리와 같은 사적 독서모임의 운영 방식과 뚜렷한 대비를 이룸. 오히려 인터뷰어들은 “빠져도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 있었다”는 경험을 지속의 이유로 언급. 이는 독서동아리가 참여를 요구하거나 붙잡는 방식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유연성을 보일 때 유지됨을 보여줌.

“지금 <마늘과 썩> 동아리 카톡방을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활동은 안 하는데 그분들이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해요.(중략) 상황이 안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책을 읽고 가끔 가다가 뭔가 공유하시거든요. (카톡방 인원이 총 33명으로) 모임엔 안 나오시는데 카톡방에서 나가진 않아 (웃음)” (회원 인터뷰, 96쪽)

- 자료집에는 도서관을 가리켜 “도서관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문장은 웃는책 독서동아리의 작동 원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줌. ‘항상 열려 있다’는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삶의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정서적 확신임. 개인이 잠시 떠나도 도서관이 지속하고 있는 커뮤니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은 스스로 다시 참여하고 싶어지는 동기를 만들어냄. 웃는책의 독서동아리는 삶의 예외와 불완전함을 수용하면서도 언제나 다시 접속할 수 있는 공적 기반으로 기능함.

“(처음에) 우리가 이용자 2명과 (그림책 모임을) 함께 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중략) 생각해 보니 그때 2년을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시작은 없었을 것 같고”(관장 인터뷰, 54쪽)

“독서동아리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 (중략) 어떤 경우에도 여전히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독서동아리는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것이다.(중략) 한 두 명이라도 그것이 정말 좋으면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본문, 79쪽)

“‘그만 뒤’가 아니라 ‘방학’이라는 말에서 유연성, 여유, 편안함이 느껴진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변화하며 이어질 수 있었던 유연성이 동아리를 지속하게 한 힘이 되었다.(본문, 97쪽)

- 웃는책 독서동아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자기 시간’을 회복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 바쁜 일상 속에서 밀려났던 ‘나를 위한 시간’을 다시 확보하는 계기로 작동. 특히 돌봄과 노동이 중첩된 삶을 사는 40-60 여성 인터뷰어들은 독서동아리를 “유일하게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 “일상에서 분리된 섬 같은 시간”으로 표현함. 독서동아리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떼어놓는데, 이는 동아리가 여가 활동을 넘어, 삶의 리듬을 재조정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자신의 이름이 희미해진 사람, 누군가의 엄마 혹은 누군가의 할머니로 칭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 사람,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조연이라 여기던 사람들이 작은도서관 웃는 책이라는 공간을 만난 후, ‘다른 나’, ‘새로운 나’, ‘꿈꾸는 나’로 변신한 이야기”(본문, 25쪽)

“아이들은 사실 엄마는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엄마도 (그림책동아리에서)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이고 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독서동아리원 인터뷰, 29쪽)

- 인터뷰어들은 웃는책 독서동아리에서 특정한 전문가나 권위자가 앞에서 있지 않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교적 수평적인 위치에서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로, 참여자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 “경험을 존중하는 반응”을 꼽음. 그것이 누구나 이해가 편한 “쉬운 책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이나 고전처럼 어려운 책을 읽더라도”, 다들 힘들어하는 “글쓰기”를 하더라도, 독서동아리가 지식 교환의 구조가 아니라 경험 교환의 구조로 설계되었을 때, 관계의 위계가 완화된다는 점을 시사함.

“자신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는 분들과 책을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고, ‘독서동아리가 이런 거구나’를 그때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책을 읽고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쟁쟁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알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고”(독서동아리원 인터뷰, 62쪽)

“연필심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솔직함에 있다. 자신의 가장 힘든 부분을 글로 표현하고 함께 공명하는 경험.”(본문, 63쪽)

- 웃는책은 책을 잘 읽는 사람을 멀리서 이상화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읽는 사람, 읽고 대화하는 사람, 읽고 실천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목격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장으로 기능함. 인터뷰어들은 책과 대화의 내용을 삶에서도 실천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함. 작은도서관이기에 가능한 근접한 역할모델의 존재가 참여자들의 읽기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건이 됨.

“사람들과 책 얘기를 나누고, 인생의 지표로 삼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한두 개 던지는 게 ‘고통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독서동아리원 인터뷰, 61쪽)

“웃는책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사람들만의 독특한 위치가 있다. 옆집 친구도 아니고 강단 앞에 선 선생님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 내 주변 어딘가에 살고 계셨지만 웃는책이 매개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접점도 없었을 생활인.”(연구원 설문)

“함께 책을 읽고, 세대를 넘나들며 소통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본받을 수 있고 닮고 싶은 어른을 만나는 기쁨은 그래서 더없이 소중하다. 좋은 어른들을 보면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진다.”(본문 83쪽)

- 인터뷰에서 독서동아리의 변화는 참여 이전과 이후를 단순히 대비하는 전후 비교 방식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움. 인터뷰들은 자신의 변화를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달라져 있었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와 같은 언어로 표현. 이는 독서동아리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가 즉각적이거나 선형적인 결과가 아니라, 지체와 후퇴, 반복과 도약을 포함한 과정적 경험임을 보여줌. 변화는 특정 시점에 완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는 여정에 가까움.

“우리가 여전히 배움의 길 위에 있다는 인식에 닿게 되는 과정이 바로 독서동아리의 과정이라는 걸”(본문, 30쪽)

“나는 진행 중이다. 나는 누적되는 게 진행 중이다.”(독서동아리원 인터뷰, 35쪽)

- 이러한 변화의 성격은 독서동아리의 효과를 단기간의 성취나 결과 지표로 환원하려는 기존 평가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냄.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핵심 조건-기다림, 유연한 참여, 진솔함, 정서적 안전감-은 정해진 단계와 규칙을 전제로 하는 매뉴얼화된 운영 방식으로는 충분히 구현되기 어려움. 오히려 이러한 조건들은 참여자의 상태와 삶의 변동성을 전제로 할 때에만 작동하며, 변화의 ‘완성’보다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 이 지점에서 웃는책 연구원들의 인식 또한 전환됨. 연구원들은 변화의 결과를 포착하여 운영 매뉴얼로 만들려는 시도보다, 변화가 만들어지는 경로와 감정의 흐름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 ‘독서동아리 여정지도’라는 분석 도구의 개발로 이어짐. 여정지도는 변화의 전과 후를 단정적으로 구분하는 대신, 독서동아리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망설임, 적응, 이탈과 회귀, 지속의 조건들을 시각화함으로써, 독서동아리 경험을 과정 중심의 지식으로 전환시킴.
- 2차년도에 웃는책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독서동아리 여정지도’와 ‘프로브 노트’를 웃는책 독서동아리원에게 배포하여, 총 81개의 데이터를 수집함. 기존의 독서동아리 질적연구가 10인

전후로 조사되는데 비해, 사례수가 많고 밀도가 높은 자료임. 여정지도는 독서동아리의 전체 여정을 “알게됨-결심-첫만남과 모임초기-적응과 지속적 참여-유지 이탈 고민”이라는 5단계로 나눔. 독서동아리원은 각 단계에서의 경험과 감정을 여정지도에 직접 기록하고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 프로브 노트는 독서동아리에 대한 총 5가지 질문을 담고, 꾸러미로 만들어 회신용 우표를 동봉해 우편으로 보냄.

- 웃는책 연구원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페르소나별 독서동아리 여정 지도를 만듦. 페르소나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유형 3가지 (호기심 탐험가, 지혜의 항해자, 길을 닦는 건설자들), 어려움을 겪는 유형 4가지(시간·체력 장벽형, 관계 적응 어려움형, 심리적 자신감 저하형, 디지털 매체 몰입형)을 구성함. 그리고 각 페르소나별로 작은 소책자, Personal Book을 제작함. 책자에는 페르소나의 특성, 독서동아리 여정, 운영자를 위한 팁, 일상을 담은 일기장, 상징 아이템, To Do List, 익명 수다방, 일상을 스케치한 4컷 만화가 담겨있음. 어려움을 겪는 유형을 위한 소책자에는 이들을 위한 제안과 다정한 편지를 담음.
- 독서동아리 참여자는 하나의 유형에 고정되지 않고 삶의 국면에 따라 이동함. 이는 기존 독서동아리 연구가 참여자를 고정된 타입, 즉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역량있는 사람, 중간에 빠지는 사람은 동기와 의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분류해 온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름. 페르소나는 분류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임시 언어임.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유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호기심 여행자’로 설레고, 또 어떤 날은 ‘시간 장벽형’으로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 도착합니다. 때로는 ‘자신감 저하형’으로 머뭇거리다가도 ‘지혜의 항해자’로 용기를 내기도 하지요. 우리 안에는 여러 모습이 공존하고, 그 모습들은 삶의 계절에 따라 변하고 흘러갑니다”(「2025 리라프로젝트 웃는책 독서동아리 이야기, Commentary Book」, 56쪽)

- 독서동아리 페르소나는 ‘이런 사람이 와야한다’ 혹은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상태의 사람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흔들리기 쉽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를 이해하거나 말하기 위한 도구임. 가장 오래 참여했고, 가장 많이 기여한 적극적인 구성원조차, 삶의 국면과 변화 앞에서는 언제나 ‘어려움 유형’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함. 이 인식은 독서동아리 탈퇴를 개인의 결함으로 환원하지 않게 만들고, 어떤 조건과 도움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보게 만듦.

## 2) 작은도서관 웃는책 리라프로젝트의 발견점

### (1) 사유의 대상으로서의 독서동아리: 성찰의 겹과 그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사유

- 웃는책의 실험은 독서동아리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멈춰 서서 사유하는 현상으로 재위치시킴. 프로그램의 효율이나 성과를 점검하는 접근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는 실천을 낯설게 바라보고 의미와 조건을 다시 묻는 태도의 전환임.
- 특히 주목할 점은, 낯설게 보기가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발생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로 형성되었다는 점임. 첫 번째 성찰의 층위는 독서동아리 구성원들로, 이들은 인터뷰와 여정지도, 프로그 노트를 통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독서동아리를 외부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바라보게 됨.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참여 동기, 첫 만남, 머뭇거림, 거리두기, 혹은 지속의 이유를 언어화하게 됨. 이는 개인에게 독서동아리를 ‘참여하는 활동’에서 ‘자기성찰의 대상’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음.
- 두 번째 성찰의 층위는 연구원들로, 이들은 동아리원들의 경험을 듣고 기록하며, 독서동아리와 작은도서관 웃는책 자체를 다시 사유하게 됨. 독서동아리가 왜 이 공간에서 가능했는지, 어떤 운영 태도와 관계 맺기 방식이 이러한 경험을 허용했는지를 분석하면서, 연구원들은 자신을 관장, 사서, 리더가 아니라 ‘독서동아리원들의 실천을 해석하는 자’로 인식하게 됨.
- 세 번째 성찰의 층위는 컨설턴트와 프로젝트 매니저들로, 이들은 웃는책의 활동가와 연구 과정을 관찰하면서, 특정 독서동아리나 단일 도서관의 성과를 넘어 작은도서관이라는 제도와 실천을 사유하는 질문을 제공함. 동아리원은 자신과 동아리를, 연구원은 동아리원들과 작은도서관 웃는책을, 컨설턴트는 작은도서관의 활동가와 작은도서관의 실천을 성찰하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 받음.
- 동아리원-연구원-컨설턴트로 이어지는 성찰의 겹들은 수직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반영적 관계를 형성함. 동아리원의 언어는 연구원의 해석을 자극하고, 연구원의 문제의식은 컨설팅의 방향을 이동시키며, 컨설턴트의 질문은 다시 연구와 실천의 방향을 조정함. 이러한 순환적 성찰 구조는 독서동아리 연구를 단순한 사례 분석이 아니라, 공적인 사유가 생성되고 확장되는 장(場)으로 만듦.

“내가 속한 도서관 안에서 끝나지 않고, 컨설턴트, PM님들, 협회, 씨앗, 다른 작은도서관과의 만남 등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이 이루어져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층위의 만남과 크로싱이 조망하는 눈, 새로운 시선과 배움, 예상치 못한 에너지를 전해 주었다.”(연구원 설문)

## (2) 연구 기법을 넘어 관계를 다시 짓는 듣기의 윤리

- 웃는책 실험에서 인터뷰, 독서동아리 여정지도, 프로브 노트는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 기법으로 설계되지 않음. 웃는책 연구에서 도구들은 ‘당신의 경험을 귀중하게 여기겠다는 태도’를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었음. 듣기가 중립적 관찰이 아니라 감정적·윤리적 개입을 동반하는 행위임을 보여줌. 이는 설문조사가 전제하는 익명성·표준화·비대면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임.

“인터뷰를 하고 나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고 연구원들끼리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데 그것이 농담만은 아니었다.”(「책·사람·공동체」, 111쪽)

- 웃는책의 연구원들은 자신을 묻는 사람, 답을 끌어내는 조사자라기보다 듣는 사람으로 재정렬함. 듣기는 인터뷰 현장에서 끝나지 않았고, 이후의 방대한 전사 작업으로, 그리고 핵심 개념을 추출하는 기나긴 작업으로 이어짐. 이는 단순한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듣기의 과정이었음. 말해진 것을 빠짐없이 옮기고, 반복적으로 읽으며, 어디를 개념으로 묶고 어디를 문장 그대로 남길지를 두고 오래 고민하는 과정은 시간과 노동과 체력을 요구했음. 연구원들은 이 지연을 ‘비효율’이 아니라, 잘 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임. 연구원의 사회에는 이 과정에 대한 인식 전환이 분명히 드러남.

“인터뷰·전사·글쓰기의 과정은 단순히 연구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연구원 개인 소회)

“첫 인터뷰를 마치고, 녹취록 작성을 위해 녹음 파일을 풀어 다시 듣던 밤의 경이. (중략) 리라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한 사람의 말을 반복해 듣고,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었을까?”(연구원 설문)

- 웃는책의 연구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함. 연구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리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선택된 장치임. 이는 「책·사람·공동체」 자료집의 구성 방식에서도

분명히 드러남. 자료집에는 인터뷰 본문과 구분되는 파란색 글씨의 텍스트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연구원들이 인터뷰에 대해 느낀 생각과 마음,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의 분위기, 주고받은 감정의 결을 담아냄. 이 텍스트들은 분석을 보충하기 위한 주석이 아니라, 연구가 어떤 관계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층위임. 이를 통해 인터뷰는 일방적인 질문과 응답의 구조를 벗어나, 서로의 말에 반응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적 사건으로 재구성됨. 연구가 사람을 ‘데이터로 사용’한 뒤 떠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한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연구가 끝나고 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연구로 시작된 관계가 연구 이후에 더 깊은 차원’으로 지속됨.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독서 여정을 듣고, 진심 어린 이야기가 담긴 프로브 노트를 읽고, 그걸 모아 엮어내는 과정을 겪으며,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 것 같다. 내게 리라는 늘 스쳐 가던 일상을 더 잘 보고, 더 잘 듣게 만드는 실험이 되었다.”(연구원 설문)

- 인터뷰, 여정지도, 프로브 노트를 모은 인터뷰집과 소책자의 발간으로, 회원들의 독서동아리 참여는 ‘도서관의 공적 인정을 받는 행위’가 됨. 독서동아리 회원은 실적을 채우기 위한 참여자 숫자 혹은 단순한 개인의 취미를 넘어서, 도서관이 시간을 들여 듣고, 기록하고, 다시 쓰는 의미있는 대상이 됨. 개인의 이야기는 소수의 성공 사례나 만족도 조사, 후기 등으로 휘발되지 않고, 조사→기록→개념추출→연구결과물로 처리되면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으로 취급됨. 웃는책의 실험은 도서관에 새로운 공공성을 부여함. 도서관은 와서 이용하는 곳을 넘어서, 나의 삶이 의미있게 다뤄지는 공적 공간이 됨.

### (3) 페르소나의 여정지도, 가상의 이용자가 아니라 실존 데이터에서 추출된

- 마케팅과 UX분야에서 여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오게 할까”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음. 따라서 ‘왜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어디서 이탈하는가?’, ‘어떤 장벽을 제거하면 더 많이 유입될까?’, ‘잠재 고객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와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설계됨. 이 과정에서 여정지도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동을 가정하고,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미래의 접점을 설계하는데 활용됨. 반면, 웃는 책의 여정지도는 이와 정반대의 질문에서 출발함.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상상하기 전에, 이미 와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는 전략을 택함. 따라서 웃는 책의 여정지도는 독서동아리원들의 심층인터뷰, 여정지도, 프로브 노트 등 전부 실존 데이터에서 근거해 추출된 것임. 이 여정지도에는 수도권외의 40-60대 여성이 실제로 표현한 언어와 생생한 감정이 반영되어 있음. 웃는책은 동아리에 오지 않은 청년이

나 중장년 남성을 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데, 이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경험을 설계자의 상상으로 채워 왜곡하지 않기 위한 선택임. 지금 실제로 작동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조건에서 이 실천이 가능했는지 언어화한 뒤,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남성과 청년과 같은 다른 대상자를 포함하는 편을 택함.

- 웃는책의 독서동아리 여정지도는 실존 데이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참여자의 경험을 단순적인 성공·실패의 서사로 단순화하지 않음. 실제 참여자의 경험은 거의 언제나 모순적인 감정이 동시에 존재했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 vs 그래도 좋았다는 감각, 자신 없음 vs 해보겠다는 선택, 부담스러움 vs 책임감, 의미 있음 vs 소진, 거리 두고 싶음 vs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음이 동시에 존재함. 여정지도는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감정과 자기의심의 층위를 그대로 드러냄.
- 독서동아리는 삶의 일부일 뿐이며, 삶은 언제나 독서동아리보다 크고 복잡하다는 인식은 독서동아리만 보면 보이지 않는 요인들임. 40-60대 여성에게 육아, 간병, 돌봄, 재취업과 취업 준비, 질병과 체력저하 등 정기적인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의지 부족 아닌 삶의 조건에서 발생하기도 함. 빠질 때마다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관계적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여전히 동아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점은 실존 데이터가 아니면 남길 수 없는 복잡성임. 이탈은 관계의 종료로 묘사되지 않음. 한동안 안 나왔지만 소식을 보고 있었고 다시 연락이 오면 반가웠고, 언젠가는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은 ‘이탈자’가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둔 사람’임. 실존 데이터를 보지 않았다면, 그냥 통계에서 사라진 사람이 될 수 있음.
- 웃는책은 독서동아리 여정지도를 기존 UX 도구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현장 발명품으로 수정하여 이용함. 여정지도는 연구 초기에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분석이 진행될수록 ‘독서동아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시각적으로 응축한 결과물이 됨. 즉, 여정지도는 데이터를 모으는 연구의 도구이자, 연구를 통해 도달한 이해를 외부와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연구의 결과물로 기능함.
- 따라서, 웃는책이 만들어낸 독서동아리 여정지도 도구는 독서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빈 칸을 채워가면서 자신의 경험과 위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성찰 도구로 기능함. 동시에 페르소나별의 독서동아리 여정지도와 소책자는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독서동아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제공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4) 적정연구의 필요 그리고 가능성

- 웃는책 리라프로젝트에서 활동가들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로 위치했음. 이들은 학술세계의 질적 연구방법을 참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녹음과 전사를 수행하며, 자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분명 학술연구자의 방법론을 차용함. 그러나 이들은 자료를 학술세계의 질적 연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에서 질적 연구자는 해석의 근거를 이론적 틀, 선행 연구, 개념적 논의에서 끌어오는데 반해, 웃는책의 연구원들은 해석의 근거를 함께 읽은 책, 토론, 각자의 삶의 경험과 감각에서 가져옴.
- 나는 이 연구의 태도를 ‘적정연구(appropriate research)’, 그리고 그 수행 주체를 ‘적정연구자’라고 부르고 싶음. 적정연구자는 학술연구자가 되기를 목표로 하지 않는 대신, 생활인으로서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실천을 과도하게 추상화하지 않으면서도 사유의 대상으로 만들고, 쓰임새에 맞게 표현하는 연구자임. 이들에게 연구란 ‘학술 논문 생산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전파하기 위한 도구임. 따라서 이 연구는 학술적 엄밀성을 그대로 모방하지도, 그렇다고 깊은 탐구를 포기하지도 않음. 오히려 자신의 위치에서 가능한 엄밀함의 수준을 연구의 쓰임새에 맞게 스스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적정’함. 이러한 위치성은 연구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히 드러남. 웃는책의 활동가 연구원들은 인터뷰, 여정지도, 프로브 노트와 같은 도구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현장의 필요에 따라 변형하고 재구성하며 그 의미를 발견함.
- 이들은 연구의 결과를 누가, 어떻게 읽게 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그 결과 연구의 전달 방식 역시 학술 논문 혹은 보고서의 형식을 따르지 않음. 1년차 인터뷰 자료는 웃는책 실험의 핵심 자산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읽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음. 인터뷰 전문을 끝까지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현실, 그리고 전체 맥락을 읽지 않으면 참여자의 경험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대한 연구진의 고민은 가시성을 위해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잡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였음.

“연구의 결과물에 참여자의 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담고, 웃는책 독서모임 특유의 정서적 관계적 가치를 더 생생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연구팀에게도 힐링과 회복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연구원의 메시지)

- 웃는책의 활동가 연구원들은 방대한 전사와 기록 앞에서 “취합만 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 “읽고 정리하느라 토가 나올 것 같은” 상태를 경험함. 이런 압도감 앞에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유형화와 분류, 편집, 전파의 방식을 오래도록 고민함. 이들은 결과물을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줄이는 대신, 정서적 밀도를 유지하는 형식을 선택함.
- 웃는책은 연구의 결과를 여정지도 외에도 일기 형식의 기록, 상징적인 아이템, 편지, 네 컷 만화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함. 또한 같은 고민의 연장선에서 코멘터리 북을 만들. 코멘터리 북은 연구의 부록이 아니라, 웃는책 실험이 도달한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성과물임. 이는 자료를 요약한 보고서도, 감상을 나열한 기록도 아님. 오히려 연구 과정에서 생겨난 질문과 해석을 다시 한번 사유의 대상으로 묶어낸 결과임. 이 선택은 적정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공적으로 공유 가능한 지식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줌.
- 웃는책의 활동가 연구원들은 학술연구자의 대체물이 아님. 이들은 생활인의 위치에서 가능한 연구의 또 다른 형식을 제시함. 이 형식은 덜 엄밀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독자를 전제하기 때문에 다른 것임. 웃는책 실험은 작은도서관의 활동가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실천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방식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구자임을 보여준 사례임.

## 2. 예다움 작은도서관: 4050 여성의 공간 아지트 실험

### 개요

- 예다움 작은도서관(이하 예다움)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아파트 작은도서관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 주체인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의 성격을 지니지만 단지 밖의 시민들에게도 열려있음. 2008년 개관 이후 지역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생활 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특히 어린이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왔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어린이 이용자의 성장과 함께 도서관 이용이 급감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음.
- 예다움은 도서관의 이용자 유입을 다시 늘리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공간, 큐레이션, 이용 방식을 재구성하려함. 지원 당시, 예다움은 1인의 관장과 2인의 활동가를 리라프로젝트의 연구진으로 구성함. 2025년 2년차에 1인의 활동가가 연구원으로 추가됨.

## 가. 실험의 문제의식과 목적, 방법

### 1) 실험의 문제의식과 목적

■ 예다움 실험의 문제의식은 이용자의 급감과 활동가의 감소, 활력의 위축에서 출발함. 예다움이 위치한 일산동구의 인구 중 10세 이하 인구 비율은 약 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확대로 인해 작은도서관이 담당하던 어린이 서비스의 필요성 또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음. 반면, 40~50대 인구가 전체 지역 인구의 약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의 도서관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였음.

■ 초기 예다움을 활발히 이용했던 어린이들은 이미 초등학교학년과 청소년, 성인으로 성장했고, 30-40대에 활동했던 여성 이용자들은 40-50대가 되면서, 예다움은 자녀 양육기를 지나온 이용자에게 더이상 머물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예다움은 다음의 질문을 던짐.

- 양육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4050 세대에게 도서관은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가?
- 이들이 새로운 이용자 혹은 다시 돌아온 이용자, 기존의 예다움의 활력을 이끌었던 주체적인 이용자 혹은 활동가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 실험의 목적

예다움은 실험의 목적은 어린이 서비스 중심이었던 도서관의 공간, 큐레이션, 콘텐츠를 바꾸어, 4050 세대가 작은도서관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험하여 그것을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있음.

#### ■ 실험의 방법

예다움은 다음의 과정으로 실험을 진행함.

- 4050 세대 지역 여성의 삶의 상태와 욕망을 리서치(프로브노트)를 통해 알아봄
-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내에 3개의 작은 실험 공간을 조성함
- 이용자 스스로가 개인 프로젝트와 그룹 프로젝트를 기획·실험하도록 함
- 전 과정을 관찰·기록하여 도서관 변화의 근거 자료로 축적함
- 새로운 이용자 개발을 원하는 도서관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함.

## 나. 실험의 과정

### (1) 2024년: 질문을 만드는 단계 - 활동가 선(先) 프로브 실험

2024년 상반기, 예다움은 이용자를 바로 모집하거나 공간을 조성하는 대신, 활동가 스스로를 실험의 첫 대상으로 설정. 활동가들은 감정 그래프, 하루 동선 기록, 취향 카드, 미래 상상 질문 등으로 구성된 초기 프로브(probe)를 직접 작성·실험. 선(先) 프로브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인쇄물이 아닌 ‘수제 프로브’ 형태로 재구성되었음.

### (2) 2024년 여름: 아지트 실험단 모집과 개인 프로브 수행

2024년 중반, 예다움은 아파트 주민들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아지트 실험단’ 10인을 모집하였음. 4050 여성을 특수하지 않고 모집하였으나, 20-60대까지의 여성들이 자원했고, 대다수는 4050 여성이었음. 이들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니라, 도서관 공간 실험의 공동 탐색자로 정의되었음. 이들은 각자 2주동안 개인 프로브를 수행함. 이후 개인 프로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집단 공유 세션이 진행됨.

### (3) 2024년 하반기: 프로브 데이터 분석과 공간 아이디어 도출

프로브에서 수집된 기록은 활동가와 컨설턴트에 의해 질적 데이터로 분석되었음. 아지트 실험단은 공간 탐방을 각자·함께 다니면서, 원하는 공간이 가진 요소들을 수집하고 공유함.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씽킹 관점의 공간 워크숍이 진행되었음. 이 워크숍은 문제 정의-아이디어 도출-시각화의 흐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도서관 내 세 가지 공간, 창가에 밖을 보며 읽고 쓰는 공간, 아늑하게 쉬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짐.

### (4) 2024년 말: 팝업 공간 실험과 실제 가구 제작

읽자·쓰자·아자 공간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024년 말에는 아지트 실험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가구를 제작함. 기존 공간을 점유하는 책장을 치우고 낡은 책을 없애고 청소를 하고 전기선을 연결하여, 팝업공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함. 이후 예다움은 아지트 공간을 공식적으로 오픈하고, 공간 활용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함. 특히 주목할 만한 시도는 예약제로 도서관을 빌리는 실험이었음. 이는 도서관을 프로그램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시간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실험이었음.

### (5) 2025년: 컨설턴트 변경과 공간 실험의 심화

2025년에는 공간 실험을 한 단계 더 심화하기 위해 컨설턴트가 변경되었고, 아지트 실험단의 1인이 활동가로 결합함. 2025년에는 기존의 읽자·쓰자·아자 공간에 더해, 만자(만드는 자리)가 추가로 오픈되었음. 만자는 읽고 쓰는 활동에서 나아가, 손을 움직이며 사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음.

며, 4050 여성의 감각 회복 욕구를 반영한 결과였음.

#### (6) 2025년 말: 도서관용 프로브노트와 설명서 제작

타도서관을 위한 「오로지, 나」 프로브노트와 도서관용 설명서, 스티커, 필기도구를 포함한 키트를 제작함.

## 다. 실험의 발견점

### 1) 예다움 작은도서관 연구원들의 발견점

#### (1) 이용자 조사의 새로운 방식, 도서관 프로브 노트의 가능성

- 예다움의 실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이용자 조사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임. 예다움은 기존의 설문 조사나 요구조사가 아닌 프로브 노트로 이용자를 조사함.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이미 알고 싶은 범주를 설정하고, 설정된 질문에 이용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질문은 대체로 닫혀있거나 제한된 범위의 서술형으로 구성됨. 요구조사 또한 이용자가 이미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을 때, 즉 요구가 이미 정리된 집단에게는 작동할 수 있음. 설문조사나 요구조사 모두, 이용자가 자신의 요구와 인식, 필요를 언어화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나, 요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말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포착하기 어려움. 특히 아직 예다움을 이용해보지 않은 새로운 이용자는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의견을 갖기 어려움.
- 예다움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는 대신, ‘어떤 삶의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함께 들여다보는 방법으로서 프로브 노트를 도입함. 이는 이용자가 ‘도서관 사용자’가 되기 이전에 ‘자기의 일상, 욕구, 감정, 관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 등장하도록 만드는 것임.
- 프로브 노트는 외부 전문가가 설계하지 않고 활동가들이 스스로 만들고, 첫 번째 연구 샘플이 되었음. 이들은 이용자·미래 이용자가 어떤 일상을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질문을 뽑고 분류한 뒤, 감정 그래프, 하루 동선 기록, 취향 카드, 미래 상상 질문 등으로 구성된 초기 프로브를 직접 작성함. 스스로가 첫 연구 대상이 됨으로서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지, 어떤 질문이 부담을 주는지, 어떤 기록 방식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지를 체험적으로 검증하였음.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그래프·스티커·빈칸·그림과 같은 비언어적 장치가 제공될 때, 참여자는 자신의 상태를 더 오래 더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음을 발견함.

- 프로브 노트 가운데 특히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도록 고안된 ‘나만을 위한 이만 원의 행복’임. 이 실험은 참여자에게 실제로 2만 원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그 돈을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쓰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후 느낀 점을 기록하도록 설계되었음. 활동가들 역시 이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설렘을 느꼈으며, 아지트 실험단의 반응 또한 매우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음. 흥미로운 점은, 노트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보다 실제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훨씬 강력한 이야기와 소속감을 불러왔다는 점임. 참여자들은 서로의 선택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며 공유하고 싶어 했음. 이는 ‘프로브가 기록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공통의 작은 실행을 통해 서사를 촉발하는 장치로 기능할 때, 이용자의 내면과 욕망이 훨씬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줌. 이처럼 활동가들의 선실험은 프로브의 내용과 표현을 조절하는 기준점을 제공했고, 행동을 촉발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검증했으며, 실험에 감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함.
- 아지트 실험단이 작성한 프로브 노트는 곧장 활용되어,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쓰이는 운영 도구로 자리 잡음. 이는 프로브가 일회성 조사나 사후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모임의 환경과 분위기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함. 예컨대 실험단이 프로브 노트에 남긴 관심사와 취향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다음 모임의 배경음악 플레이리스트가 구성되었고, 감동적이라고 언급된 책은 모임의 길목에 전시되었으며, 선호가 드러난 간식이 준비되었음.
- 이러한 활용은 겉으로 보기에 사소한 조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단순한 맞춤 서비스 제공을 넘어섬. 프로브 노트가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당신의 말과 기록은 실제로 반영된다’, ‘이 공간은 미리 정해진 운영자의 취향이 아니라, 당신들의 상태에 맞춰 함께 만들어진다’는 신호임. 이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기록이 연구 자료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는 경험을 제공함. 또한 프로브 노트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가 아니라, 운영자가 이용자의 감각과 리듬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하도록 만드는 장치’로 기능함. 그 결과 운영자가 이용자를 기존의 공간에 맞추는 대신, 이용자의 기록을 보며 도서관의 공간을 계속해서 조율하게 됨. 프로브는 단지 무엇을 알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축적하고 소속감을 형성하는 매개로 작동함.
- 아지트 실험단의 프로브 노트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음. 예다음은 아지트 실험단의 기록과 해석을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도서관용 프로브 노트’와 ‘사용설명서’를 새롭게 제작하였음. 이는 실험을 예다음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서관의 일상적인 도구로 확장하려는 시도임. 사용설명서는 도서관이라는 공공 맥락에 맞게 재창조되었음.

## (2) 보편화되지 않는 발견들, 아지트 실험단이 보여준 4050 여성의 삶

■ 프로브노트를 통한 발견들은 보편적인 4050 여성의 특성을 대표하지 않음. 이는 일산동구 한 아파트 작은도서관이라는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아지트 실험단의 기록과 관찰을 통해 드러난 삶의 상태에 대한 국지적 발견임. 프로브노트와 이의 공유과정에서 반복 등장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음.

■ ‘힘들다’ 보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프로브노트 전반에서 ‘문제’, ‘힘듦’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드물고, 대신 방향 상실과 판단 유예의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아직 늙지 않았지만 더이상 젊지도 않은, 늘 무언가를 ‘지금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낌.

나의 미래, 애 키우고 나는 뭘 해야 할까?

가정주부로 10년을 살아온 나는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중이다.

■ 세대 사이에 끼인 중년 여성의 삶의 부담

아지트 실험단의 프로브 노트에는 어린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 성인 자녀의 진로와 자립, 양가 부모의 건강,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노후까지, 여러 세대의 삶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년 여성의 복합적인 고민이 반복적으로 드러남.

■ 언젠가 배우고 싶은 것은 성공이나 성취보다 감각적·회복적 욕망에 가까움.

“그림처럼 손으로 하는 것들”

“작은 악가... 우쿨렐레나 오카리나.”

■ 멋지게 나이들고 싶음

프로브 노트에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운동과 배움을 일상의 중요한 루틴으로 유지하고 있음.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 관리를 넘어, 정서적으로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도 깨어 있는 상태로 나이들고 싶다는 바람,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는 삶의 전망과 연결되어 있음.

■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더 어려움. 계획-실행-느낌 노트에서, 실행 자체보다 계획 단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고백함. 이들에게 계획의 어려움은 의지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대한 불

확실성임.

“오로지 나를 위해 써야한다니, 처음엔 ‘wow 넘넘 좋아’ ...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내가 하고 싶은게 뭔지 찾는데에 시간을 정말 많이 사용했다.”

“나만을 위한 소비를 한 적이 언제였지? 내 물건을 사러 갔다가 가족 것만 잔뜩 사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 아지트 실험단의 기록에서 ‘혼자’라는 단어는 매우 자주 등장함. 그러나 이 ‘혼자 있음’은 고립이나 단절을 의미하지 않음.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대한 욕구에 가까움. 어떤 참여자들은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에 지쳐 있었으며, 동시에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았음. 이는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의 강도와 밀도를 조절하고 싶은 욕구로 이해할 수 있음.

“혼자 있는 거 좋아, 같이 있는 게 싫은 건 아냐.”

“나만의 조그마한 갖고 싶다.”

- 프로브노트를 공유하며, “생각보다 쓰기 어려웠다”, “아이와 가족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더라”, “말로는 계속 생각해왔는데, 쓰니까 다르게 보였다”와 같은 메타 발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함. 이는 단순한 참여 소감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연되어 있던 자기 인식이 언어로 처음 드러나는 순간을 가리킴. 참여자들은 프로브노트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감정·시간·선택의 단위로 다시 분절하고 재서술하는 경험을 함.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말해지지 않았던 나의 상태를 말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형성됨.

- 아지트 실험단 모임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참여자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도 설정하지 않음. 그럼에도 참여자와 활동가, 관장 모두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돌보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감각’을 분명히 남김. 이는 예다움이 ‘문제 해결 공간이 아니라, 문제가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상태를 안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아지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예다움 아지트 실험은 ‘아무 목적 없이 머물 수 있는 장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허용되는 공간 역시 공공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줌.

#### 4) 예다움 작은도서관 리라프로젝트의 발견점

##### (1) 리서치-실행-관찰(리서치)-수정(실행)의 반복 루프

- 예다움의 리라프로젝트 실험은 기획-실행-평가로 이어지는 선형적 프로그램 구조를 따르지 않음. 대신 리서치-실행-관찰(리서치)-수정(실행)이 반복되는 순환적 루프로 설계되고 운영됨. 이는 사전에 완성된 설계도를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드러난 이용자의 반응과 조건을 다시 리서치의 재료로 삼아 다음 실행을 조정하는 방식임.
- 예다움은 처음부터 도서관 공간 전체를 아지트로 재구성하지 않음. 대신 아지트 실험단과의 논의와 제안을 바탕으로, 세 개의 작은 공간(읽자, 쓰자, 아자)를 먼저 만들음. 이는 완성도를 목표로 한 설계가 아니라, 사용해보며 반응을 살피기 위한 가설적 공간임. 동시에 도서관을 ‘개인의 시간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실험하기 위해 예약제를 도입함. 그러나 이 시도는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았음. 아파트 입주자협의회가 관리자 없는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지 않은 점도 한 원인이 됨. 이 지점에서 예다움은 예약제를 고수하거나 제도를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조건 자체를 실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음 선택을 고민하는 쪽을 택함.
- 공간 사용에 대한 관찰 역시 곧바로 다음 수정으로 이어졌음. 아자 공간은 원래 목표했던 성인에게도, 또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됨. 그러나 읽자와 쓰자 공간은 실험단이 원했던 창가에 위치했으나 동시에 도서관 입구와 맞닿아 있었고, 이용자에게 ‘공간의 이름이 읽고 써야만 할 것 같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 관찰되었음. 이에 예다움은 공간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공간의 위치와 이름, 성격 자체를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음. 또한 실험단과 이용자들 사이에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새로운 팝업 공간으로서 ‘만자(만드는 자리)’를 추가로 구성함.

“전에는 프로그램이 잘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리라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의견이나 질문을 줄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 실험이 없었다면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왜 신청자가 없는지 걱정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콘텐츠나 강사를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관찰과 작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 도서관에 딱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설문)

- 반복 루프는 공간 조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을 발견하고 역할이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했음. 연구진은 아지트 실험단의 프로브 노트를 분석하면서, 한 참여자가 남긴 뛰어난 구성력과 시각적 표현을 발견하고, 이후의 대화를 통해 해당 참여자가 시각디자인 분야의 전문 경험을 가졌음을 확인함. 이는 도서관 이용자라는 위치에 가려져 있던 전문성을 리서치가 가시화한 사례임. 이 발견을 계기로 해당 참여자는 리라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합류했고, 그리기 모임과 전시 공간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은 사전에 기획된 인력 섭외가 아니라, 리서치를 통해 드러난 표현 방식과 경험을 다음 실험으로 연결한 결과였음.
- 전문가에 의해 완성된 공간은 대체로 이름, 용도, 사용 방식이 동시에 확정되며, 이후의 변화는 운영상의 예외나 보완으로 취급됨. 반면 예다움의 아지트 공간은 ‘우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명명할 수 있었고, 옮길 수 있으며, 바꿀 수 있다’는 자율성을 가짐. 리라프로젝트의 활동가들과 이용자들은 공간을 평가하거나 소비하는 위치가 아니라, 이 자리가 왜 불편했는지, 이 이름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관찰하고 고민하며 공간을 다루는 주체가 됨.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단지 참여적 설계의 미덕을 넘어섬. 예다움의 실험은 ‘도서관 공간을 언제든 다시 생각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짐.
- 예다움의 실험은 한 번에 잘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음. 오히려 시간을 두고 계속 바꾸어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실험이었음. 이 과정에서 실패와 제약, 이용 감소와 같은 관찰 데이터는 다음 리서치를 촉발하는 신호로 해석됨.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리라프로젝트는 예다움에서 ‘공간’ 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이 ‘스스로를 고정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음. 리서치-실행-관찰-수정의 반복 루프는 특정 콘텐츠나 공간보다, 도서관이 변화하는 방식을 내재화하게 만든 방법론적 성과임.
- 예다움의 공간 실험을 단순히 ‘전과 후’로만 비교할 경우, 그 변화는 크지 않음. 전문가에 의해 전면적으로 리디자인된 공간이 아니었고 매우 제한된 예산으로 수행되었기에, 기능적·미적으로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한계가 있음. 성과를 결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예다움 실험의 핵심을 놓침. 예다움의 변화는 공간의 외형이 아니라, 리서치로 묻고, 실행하고, 관찰하고, 다시 수정하는 가운데, 공간에 대한 주체성과 애정이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동시에 형성되는 과정임.

“리라프로젝트를 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제 마음이에요. 리라프로젝트를 한 뒤로 도서관은 저에게 더 편한 공간, 애정이 가는 공간이 되었어요. 주인의식이 조금 더 생겼다고 하는 게 적합한 표현 같아요...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건, 제 손으로 도서관 공간을 꾸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리라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서관과 이용자를 관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  
 아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간에도, 이용자에게도, 연구원에게도 자잘한  
 점이 쌓였거든요.” (연구원 설문)

## (2) 아파트도서관, 가장 작은 단위의 로컬리티

- 예다움 리라프로젝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실험이 현재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도서관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 있음. 아파트도서관은 설립 이후 운영 주체의 부재 혹은 소진, 이용자 감소, 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일부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책을 보관하는 공간에 머물며 커뮤니티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도 함. 예다움의 사례는 보편적인 유형인 아파트도서관이 어떻게 사적인 삶과 공공성을 동시에 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 대구 모 예산이나 전문 리모델링에 의존하지 않고도, 운영 방식과 관계 맺기의 전환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아파트도서관으로의 확산성이 높은 사례임.
- 아파트의 건립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에는 오래된 책이 계속 쌓이고 책장이 넘쳐, 오히려 새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됨. 동시에 책은 예전처럼 희귀한 자원이 아니며, 정보와 텍스트는 이미 일상 곳곳에 넘쳐남. 그럼에도 도서관 공간은 여전히 ‘책을 채우는 것’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정작 읽는 이들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임. 특히 어린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예다움과 같은 작은도서관의 경우, 오래된 어린이책을 계속 보존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질문하게 됨. 이 지점에서 중요한 물음은 ‘어린이 책을 비운 자리에 무엇을 새로 넣을 것인가’임. 예다움의 실험은 바로 이 질문을 운영자의 판단이 아니라, 리서치와 시도를 통해 이용자와 함께 풀어가려 했다는 점임.
- 예다움에서 로컬 커뮤니티는 행정구역이 아닌, 아파트라는 매우 작은 단위, 즉 사람들이 매일 오가며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거리, 굳이 시간을 내지 않아도 접근 가능한 생활 반경 안에서 형성되었음. 아지트 실험단은 같은 단지에 살거나 인근에 거주하며 이미 일상의 동선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음. 이 조건은 참여를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생활의 연장선에서 가능한 선택으로 만들었고, 실험이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아주 작은 로컬리티’의 특성은 실험의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초근접성 덕분에 활동가들은 평일 저녁, 식사 후 모여 짧게, 자주 의논할 수 있었음. 이는 리서치-실행-관찰-수정의 반

복 루프가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음. 아지트 실험단 모집 방식에서도 이 로컬리티는 분명하게 드러났음. 예다음은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도서관에 오가는 이들에게 알리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붙이는 오프라인의 방식을 택했음. 엘리베이터는 예다움을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치는 공간이었고, 그 공고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같은 생활 반경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방식이었음.

-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아파트도서관은 작아서 한계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작아서 리서치와 실험이 가능해지는 공간임을 분명히 보여줌. 손글씨로 이름을 적어준 프로브 노트, 수제 파우치, 저녁 이후의 모임, 엘리베이터 게시판, 취향을 맞춘 플레이리스트와 간식, 지역의 공방에서 주문한 책상과 책장 등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사소함과 유연성 덕분에 과도한 기획이나 행정 절차에 잠식되지 않음. 멀리서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되고, 거창한 지역 정체성을 선언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존재하는 생활 반경 안에서 관계와 실험이 시작될 수 있음. 예다음의 로컬리티는 많은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이미 갖고 있으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조건을 다시 보게 만들.

### 3. 초롱이네도서관: 나를 위한 기록, 작지만 큰 개인 삶의 연구

#### 개요

- 초롱이네도서관(이하, 초롱이네)은 1999년 충청북도 청주시에 개관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풀뿌리 독서문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출발했음.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넘어, 아이를 함께 키우고, 이웃을 만나고,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 기반의 문화공간으로 기능해왔음. 최근에는 문화도시 청주의 동네기록관 사업에 참여하여 4년간 주민의 일상기록과 마을문화기록을 수행했음.
- 리라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대부분 도서관 활동 10년~25년의 경력을 지닌 활동가들로, 1인의 관장과 4인의 활동가(2025년에는 3인)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은 시민단체, 동아리, 작은도서관 실무자, 문화활동가, 독서활동가로 참여해온 주체들로,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관계를 바탕으로 초롱이네의 실험을 함께 만들어 왔음.
- 축적된 경험과 관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초롱이네 역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음. 어린이와 가족 이용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한때 공간을 가득 채우던 활기와 긴장은 다소 느슨해졌음. 오랫동안 헌신해온 관장과 활동가들 또한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초롱이네의 다음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멈춰 서게 되었음. 과거의 성취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자각, 그러나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기에는 에너지와 확신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태가 공존하고 있었음. 리라프로젝트 참여는 바로 이러한 전환기의 고민 속에서, 도서관의 외형적 확장이 아니라 내부의 동력과 주체성을 다시 묻는 계기로 선택되었음.

## 가. 실험의 문제의식과 목적, 방법

- 초기지원서에서 초롱이네가 제시한 문제의식은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음. 초롱이네는 작은도서관을 “마을의 문화와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시민기록의 주체”(실행계획서)로 설정하며, “기록의 의미·방법·향유·공유 전반을 탐구 대상”으로 제안함. 이는 초롱이네가 동네기록관 활동과 다양한 기록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경험에 기반한 문제의식이었음.

“처음 기록활동을 해보자고 모여서 우리 마을에는 왜 변변한 문화유산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잘해 온 일들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자는 논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번듯하고 내세울만한 것을 기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기록’이라면 전 생애에 접근성이 있다고 (중략) 작은도서관 기록활동의 범주와 의미에 대해 정의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초롱이네 도서관 현장 심사 답변,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 54쪽)

- ‘기록’을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부수적 결과물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도구로 재정의하려는 초롱이네의 문제의식은, 컨설팅과 워크숍, 내부 논의를 거치며 조정을 거침. 기록의 대상이 ‘도서관의 활동 역사’나 ‘마을 사람·사건’에서, ‘도서관 안에 오래 머물러 온 개인들’로 이동함. 활동가들은 “기록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다”, “기록이 너무 무겁다”, “공공의 언어가 나를 압도한다”고 고백함. 이는 기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둘러싼 기존의 틀이 자신의 삶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한 순간이었음.

- 초롱이네의 실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개인의 삶을 자세히 바라보고 기록하는 일상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은 가능한가?

둘째, 개인의 사적 기록이 공적 공간인 도서관에서 쓰이고 읽힐 때, 어떤 새로운 관계와 의미가 만들어지는가?

- 실험의 방법

초롱이네는 정형화된 조사나 결과 중심의 아카이빙 대신, 연구원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단어와 주제, 매체로 자기 삶을 기록하는 방식을 택함.

### (1) 욕망 사전

초롱이네 1년차 실험에서 시도한 ‘욕망 사전’은 특정 이론이나 사전적 정의를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한글 자음(ㄱㄴㄷ)마다 하나씩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단어로 사전을 만들어보는 작업임. 아카이빙 기획자이자 영상 기록자인 다큐멘터리 PD가 고안하고 진행한 워크숍으로, 단어를 통해 개인의 삶과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기록 방식임.

- 각 연구원은 자신에게 지금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를 고름.
- 반드시 ‘좋은 욕망’일 필요가 없으며, 감정·사물·행위·상태·기억 등 어떤 것이어도 가능함.
- 선택한 단어를 중심으로 짧은 글, 메모, 이미지, 감각의 기록을 남김.
- 각자 만든 욕망 사전을 서로 나누며 대화함.

## (2) 개인 욕망 에세이

욕망 사전이 단어 중심의 탐색 과정이었다면, 개인 욕망 에세이는 그 단어를 출발점으로 자기 서사를 한 편의 글이나 영상으로 엮어보는 작업임. 개인 욕망 에세이는,

- 분량과 형식에 제한이 없음.
- 도서관 이야기보다 개인의 삶이 중심이 됨.
- 완성도보다 지금의 감정과 시점을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함.

활동가들은 욕망 사전에서 고른 단어 중 일부를 선택해, 각자 3편 내외의 개인 욕망 에세이를 완성함. 참여자 5인은 총 15편의 개인 욕망 에세이를 작성함. 주된 매체는 비디오 에세이 (영상과 음성 내레이션)이었으며, 사진과 드로잉, 사물 기록이 영상 안에 결합되었음.

## (3) 전시

2025년 11월 12일부터 “덩어리 갈라쇼, 나를 닮은 기록” 기획 전시를 진행함. 전시의 내용은 활동가 4인의 개인 욕망 에세이 일부 (글, 영상, 이미지, 사물 기록)였으며, 작품 간 위계를 두지 않고 개별 서사가 병렬적으로 배치됨. 설명 패널이나 해설을 최소화하여 ‘이해시키는 전시’가 아니라 ‘존재하게 하는 전시’에 가까운 형태였음. 즉, 관람자는 하나의 메시지를 읽기보다 각기 다른 삶의 조각들 사이를 이동하는 경험을 하도록 설계되었음.

# 나. 실험의 과정

## (1) 2024년 상반기: 기록의 의미에 대한 탐색

2024년 5~7월은 리라프로젝트 컨설팅과 아키비스트 워크숍 등으로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음. 기록은 성공·공공·역사 정리라는 무거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고, 활동가들의 동력이 집단적으로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음. 상반기의 핵심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멈춰 있

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음.

## (2) 2024년 하반기: 실험의 방향 전환

내부 논의, 아키비스트와의 워크숍 등을 통해 기록을 성과물이 아닌, 삶과 관계 맺는 행위로 재정의 하고, 개인의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서사 기록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함. 개인의 욕망 사전을 글, 그림, 에세이, 영상으로 작성하기 시작함. 10월부터 영상 기록자와의 비디오 에세이 워크숍, 타인의 기록 전시 관람을 거치며, 비디오 에세이를 완성함. 이 비디오 에세이는 12월 리라프로젝트 1년차 결과 공유회에서 공개됨.

## (3) 2025년 상반기: 나를 닮은 1페이지 기획

1년차의 욕망 사전과 비디오 에세이를 토대로, 각자가 자신의 문제의식과 관심사를 보다 구체적인 기획으로 전환함. 활동가들은 자신이 현재 가장 붙잡고 있는 주제를 1페이지 분량의 기획안으로 정리 하고 기록하고 공유함.

## (4) 2025년 하반기: 개인 기획 전시 준비와 덩어리 갈라쇼

하반기는 상반기의 개별 기획을 실제 전시로 구현하는 과정이었음. 전시를 위해 도서관 공간 자체를 재배치하고, 서가와 책을 털어내고, 전시 동선을 설계하는 과정을 함께 했음. 각자의 프로젝트는 글·영상·오브제·공간 연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체화되었음. 11월 12일 “덩어리 갈라쇼”라는 제목의 기획 전시를 엮.

# 다. 실험의 발견점

## 1) 초롱이네도서관 연구원들의 발견점

### (1) “우리”에서 “나”로 이동하는 기록

- 초롱이네 실험의 가장 중요한 발견점 중 하나는, 기록의 주어가 ‘우리’에서 ‘나’로 이동했다는 점임. 단순히 개인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어서가 아니라, 기록을 둘러싼 책임과 판단, 표현의 권한이 집단에서 개인에게로 재배치되었음을 뜻함. 기존의 도서관 혹은 작은도서관 기록은 대체로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가”, “우리 도서관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음. 이러한 기록은 공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외부에 설명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오랜 시간 활동해 온 활동가 개인에게는 점차 부담으로 작용했음.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어느 수

준까지 드러내야 하는지, 이 이야기가 ‘초롱이네의 이야기로 적합한지’를 집단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도서관의 역사, 성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기록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공동의 작업처럼 보이는 기록이 실제로는 관장의 선택과 관점에 크게 의존하기 쉬움. 활동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관장의 관점에 맞추거나 그 판단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위치에 놓이기 쉬움. 그 결과 기록은 정제된 이야기, 실패나 흔들림이 제거된 이야기로 수렴하게 되고, 개인의 감정이나 삶의 변화,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 도서관과 직접 관련 없는 이야기는 기록의 주변부로 밀려나기 쉬움.
- 워크숍과 여러 논의 끝에 대표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자, 관장에게 집중되던 결정의 무게가 분산되었고, 활동가들은 관장의 관점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에서 출발한 기록을 시도할 수 있게 됨.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자신에게 가능한 방식(사진, 그림, 영상, 글, 사물 등)으로 풀어낸 결과 기존 도서관의 공식적인 기록 의제와는 매우 달리, 소비 습관, 음식과 기억, 필사와 위로, 오래된 공간의 감각처럼 매우 개인적인 서사가 등장하게 됨.
- 중요한 점은, 기록의 출발점이 ‘나’로 이동하였음에도 그것이 개인에게 고립된 과제로 방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임. 참여자들은 “다른 회원이 한 것을 보며” “피드백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시도를 참조하며 수정하고 확장하는 집단적 상호작용 속에서 결과물을 완성해 나감. 즉, 개인의 서사에서 출발하되, 그 과정은 공동의 학습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철저히 ‘따로 또 같이’의 방식으로 수행된 작업이었음. 또한 영상 촬영과 편집, 전시 구성 등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영역에서는 컨설턴트와 프로젝트팀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음.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는 방식의 도움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한 이야기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에 가까웠음. 즉,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개인의 몫이었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동의 학습과 지원이 이루어졌음.
- 이러한 구조는 집단에서는 어려웠으나 개인에게는 가능했던 것들을 드러냄. ‘우리’의 이름으로는 말하기 어려웠던 불안, 피로, 무기력, 미뤄두었던 욕망과 같은 감정들은 ‘나’의 이름으로는 말해질 수 있었음. 집단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기에 속도는 빨라졌고, 통일성과 완성도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계속 해보려는 추진력과 지속성이 확보되었음. ‘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느슨한 공동체로 재구성됨.

- 컨설턴트의 편지는 이 변화의 집단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상징으로 서술함. “프로젝트라는 덩어리로 흔들거리는 것이 아닌 개별의 움틀거림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다…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관장은 “초롱이네는 하나”라는 상상에서, ‘다섯 개의 작은 도서관이 더 있는’ 다중 구조로 느껴진다고 고백함. 기록 주어의 변화는 1차년도와 실험 과정을 담은 자료집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은」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만든 각자의 명함, 2년차 전시 “덩어리 갈라쇼”로 갈무리됨. 초롱이네의 실험은, 도서관에서 가능한 기록이 반드시 “하나의 결로” 통일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선택과 표현을 존중할 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줌.

## (2) 참여자 5인의 변화

### ■ 연구원 A (이하 A): 무기력의 시간에서 회복의 감각으로

A의 비디오 에세이 주제는 모두 도서관 바깥의 삶의 리듬을 전면에 두고 있음. 무심천 산책, 자신을 지탱해준 관계와 환경에 대한 재발견, 관찰과 관심의 확장, 음악 듣기를 시작하는 등 무기력이 회복되면서 뭔가 하고 싶은 힘이 생겼음을 고백. 이 변화는 실험이 A에게 감각의 회복을 통한 삶의 재가동을 제공했음을 분명히 함.

A의 리라 2년차 전시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50대 이후의 삶에서 경험하는 돌봄 부담과 정서적 압박이 어떻게 개인의 소비 습관으로 전이되는지를 자신의 일상기록을 통해 성찰했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감과 긴장은, 의식되지 않은 채 소비로 분출되었고, 그는 이 연결 구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기록을 시작함. 전시는 소비를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관계, 삶의 조건이 반영된 결과로 바라보며, 소비를 줄이고 비우는 실천을 통해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따라감.

A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카드 사용을 줄이기, 소비단식 실천하기,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느끼는 감각에 주목하기, 정리를 위해 또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멈추기 등 일상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실천을 기록으로 남김.

### ■ 연구원 B: ‘공공의 기록 언어’에서, 감정과 이미지로 나의 자리를 찾기

B의 변화는 기록의 방식 변화이면서 동시에, 기록을 둘러싼 언어의 탈경직화로 나타남. “리라의 질문은 무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면서 동시에 설레임도 있었다”면서, B는 욕망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자리가 보이는 듯하다고 함. 여기서 ‘자리’는 삶의 상태(불안·소심함·무채색의 시기)를 해석하고 위치시키는 능력이며, 기록이 그 능력을 복원해 주었다는 의미로 보임.

### ■ 연구원 C: 노출의 두려움에서 일상의 언어로 욕망을 회수하기

C의 변화는 참여자 중에서도 특히 ‘드러냄’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 욕망 사전을 쓰는 과정에서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드러날까봐 조심스러운, 즉 기록이 곧 자기 노출로 연결되는 불안을 드러냄. C는 이 불안을 ‘거대한 고백’으로 돌파하지 않는 대신, ‘그림’, ‘총각김치’, ‘햇살’ 같은 일상의 소재를 선택해 기록을 시작함. ‘그림-나도 너를 그려 줄게’에서는 좌절, 자기 억제, 미안함이 차분히 서술됨. 이 서사는 회수되지 못한 욕망을 다시 현재로 끌어오는 작업임. C의 변화는 개인 내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집단이 제공한 안전감 속에서 가능해졌음. ‘드러냄’이 위협이 아니라, 다정한 피드백의 경험으로 전환됨.

2년차 C의 전시는 ‘꼬순씨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뭐 먹지”라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화두로 삼음. 이 질문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지만, 대개는 고민 없이 지나가거나 금세 잊히는 사소한 선택으로 취급됨. C의 기획은 바로 이 사소함 속에 숨어 있는 삶의 감각에 주목하여, 음식이 단순한 섭취 대상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 공간의 분위기, 냄새와 소리, 대화의 결과까지 포괄하는 삶의 장면이라는 점에 주목함. C는 사진 찍기, 그림일기 쓰기, 여섯 줄 기록,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채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음식과 함께한 하루의 감각을 기록함.

#### ■ 연구원 D: 실무자의 막연함에서 ‘숨 고르기’와 운영 상상의 재구성으로

D는 실험 초기에 “막연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헤매고 있었다”고 회고. 실무자로서의 책임과 프로젝트 참여자로서의 경험이 동시에 작동해, 방향성 부재가 곧 부담으로 느껴졌음. 그러나 욕망 글쓰기가 도입되면서 단어 하나 사물 하나에서 나를 찾아보고, 나를 쓰기 시작했다고 씀.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기록을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재배열’했다는 점임.

D의 소감에서 가장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음. “우리가 아닌 나를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자 모두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는 D가 집단의 ‘함께’라는 규율을 풀어내는 순간이자, 집단 전체 변화의 촉발점으로 기능함. D는 “늘 멍쳐서 함께 해 왔고… 단단했던 끈을 풀어내어 무게를 벗어던지고 나라는 존재로 자유롭게 서자” 표정과 몸이 달라졌다고 서술. 이 경험은 도서관의 역할에 상상으로 확장됨. “도서관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울타리 역할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문장은 도서관을 조직(단일한 덩어리)으로 규정하기보다, 개인이 넘나들 수 있는 경계·안전망으로 재정의함. D에게 1년차는 ‘성과’가 아니라 “숨고르기 시간”이며, 동시에 도서관의 운영 철학을 재구성하는 시간이었음.

‘필사의 변이’라는 제목의 2년차 전시에서, D는 삶의 어느 순간 자신을 울렸던 문장들 (책의 문장, 노랫말, 영화 대사, 대화의 한 구절)에 주목하며, 그 문장을 다시 찾아 필사하는 행위를 기록의 출발점으로 삼음. D의 필사는 단순한 베끼기가 아니라, 과거에 마음을 울렸던 문장을 다시 쓰고 지금의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고 사진과 그림을 결합해 새로운 산물로 만드는 작업임.

### ■ 연구원 E: ‘개별의 흔들림’을 허용하는 리더십으로

E는 실험에 참여한 이유를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할 시기”, “진퇴양난”으로 설명. 1년차 실험은 단순한 프로그램 실험이 아니라, 운영자 개인의 삶과 도서관의 지속 가능성이 동시에 걸린 선택이었음. E는 자신의 삶이 도서관과 분리가 잘 안된다, 공간은 분리되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도서관이 자신의 ‘기둥’처럼 작동해온 방식과 직면함.

E에게 ‘욕망 사전’은 단지 활동가들의 글쓰기 과제가 아니라, 도서관의 다음 전환을 여는 언어가 됨. 외부 워크숍들을 해시태그로 정리하며 “결국! 욕망이라는 언어가 개인의 잠재된 의식을 흔들고 자아를 드러내”게 했다고 평가. E는 영상 작업을 하며 “사소하지만 반짝이는 내 것들”을 찾았고, 그 개인의 시간들이 “자신, 동료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만든다고 언급. 이는 운영자가 활동가들을 ‘함께’로 묶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의 시간과 욕망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줌.

E의 전시 제목은 ‘찍관장과 기억 공간 판타지’로, ‘찍관장’은 자신을 지칭함. ‘찍’은 나무로 지어진 초롱이네 도서관에서 세월과 압력을 견디며 들려오는 갈라짐의 소리이자, 스스로 균열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은유임. 전시는 25년 이상 운영되어 온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하나의 기록 매체로 다루며, 레고 작품으로 구현함. 이 기획은 도서관의 성과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음. 대신, 오래된 공간에 축적된 시간의 흔적과 감각 (사라진 신발, 계단 창가의 빗물 자국,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아이들이 드나들던 동선)을 온몸의 기억으로 건져 올려 현재의 서사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춤. E는 ‘머무름’, ‘익숙함’, ‘그리움’, ‘반짝임’과 같은 감각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간을 다시 보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과정을 기록. 도서관은 관리되고 정리되어야 할 시설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감정과 시간이 스며든 존재로 드러남.

### (3) 박제로서의 기록이 아닌, 현재의 재구성으로의 기록

- 초롱이네의 실험은 기록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킴. 기록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실천으로 작동함. 기록은 성과를 증명하거나 과거를 보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의 행위로 재정의 됨.
- 활동가들이 수행한 기록은 ‘저장하려는 시도’였지만, 그것은 일상을 데이터처럼 축적하거나 나중을 위해 쌓아두는 아카이브 구축과는 거리가 있음. 저장은 ‘과거를 고정하거나 박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에 가까움. 음식과 함께한 하루의 장면을 기록하고, 소비의 방식을 점검하며, 마음을 울렸던 문장을 다시 쓰고, 도서관에서 시간의 흔적을 발견하는 과정은 모두 단조롭게 흘러갈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과 감각, 즐거움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시도임. 따라서 이 기록은 추억을 미화하거나 과거를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 밀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과 부담, 그에 따르는 감정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 ‘슬기로운 소비생활’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간소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실천으로 확장됨. ‘채우는 삶의 풍요’가 아니라 ‘비우는 삶의 여유’가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을 체감하는 과정 자체가 기록의 핵심임.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일은 곧 삶의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되었고, 이는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짐.
- ‘꼬순씨의 레시피’ 역시 과거 회상과는 다른 결을 가진 기록으로, 특정한 추억의 음식을 복원하거나 유년의 기억을 소환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음. 오히려 “오늘은 뭐 먹지?”라는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 주목함으로써, 일상 속에 숨겨진 삶의 감각을 끌어올림. 사진, 그림일기, 짧은 글, 요리 소리 등으로 기록되는 이 과정은 현재의 일상을 새롭게 감각하고 저장하려는 시도임. 전시에서도 참기름 단지, 요리 소리가 녹음된 음원과 같이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함.
- ‘필사의 변이’는 기록의 시간성을 새롭게 구성함. 마음을 울렸던 문장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겹쳐짐. 이 겹침은 회상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와 감각을 다시 발견하는 계기로 작동하며, 이미지와 영상이 덧대어지면서 정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서사로 확장됨. 필사는 복제가 아니라 재창조의 과정이며, 지금의 나를 위한 ‘위로의 산물’을 만들어내는 실천임.
- ‘메모리얼 공간 판타지’는 운영자 개인의 성찰이자, 동시에 리더십의 진화를 보여주는 기획임. 오랜 공간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공간이 스스로 말하도록 허용하는 태도는 초롱이네의 정체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킴. 이 기획은 낡음이 결핍이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오래된 작은도서관들이 자신의 기억과 감각을 통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 옥망 사전, 글쓰기, 사진, 영상 에세이, 덩어리 갈라쇼 전시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개인을 안전하게 드러내고, 도서관이 개인의 삶을 지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했음. 컨설턴트는 컨설팅 보고서에서 네 가지 전시가 모두 “사적인 경험에서 출발했지만, 작은도서관 활동가와 이용자의 다수를 이루는 40~50대 여성의 삶과 깊이 공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그에 의하면,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기획은 개인의 절약 선언을 넘어 활동가·주민·도서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서관 비우기 프로젝트’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음식과 레시피를 기록하는 시도는 각자의 레시피

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잔치 모임과 소규모 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음. 필사와 공간 기록 역시 개인의 치유를 넘어 집단적 실천과 공유로 발전할 수 있음. 이는 개인을 기록하는 기획이 곧 현재와 미래 도서관의 기획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함.

#### 4) 초롱이네도서관 리라프로젝트의 발견점

##### (1)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실험

- 초롱이네의 리라프로젝트 실험은 시작 시점에 명확한 결과물을 상정하지 않은 실험이었음. 기록이 어떤 형식으로 귀결될지, 그것이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될지, 전시 혹은 영상이나 개인 작업으로 남을지, 혹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흩어질지조차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음. 사전에 결과물의 형식(프로그램명, 회차, 산출물, 전시 여부, 보고서 구성)이 계획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음. 초롱이네의 실험은 기록이 어디로 흘러갈지 열어 둔 채, 오히려 기록을 하는 사람의 변화와 감각의 이동을 실험의 중심에 둬. 이는 일반적인 공공 지원사업이나 문화사업에서 요구되는 ‘목표→과정→결과’의 선형 구조와는 분명히 다른 방식임.
- 열린 결론을 가진 실험은 변화의 방향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험 참여자 스스로가 실험의 의미를 생성하도록’ 허용하는 구조임. 기록이 도서관의 역사 정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개인의 글쓰기로 정리될 것이라는 가정도, 모두 실험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체되고 재조정되었음. 그 결과 초롱이네의 기록은 개인 욕망 에세이, 비디오 에세이, 공간 전시, 생활 실천 프로젝트 등 복수의 형태로 분화되었음.
- 열린 결론 실험이 중요했던 이유는 10년~25년 이상 활동해 온 장기 활동가들이 다수인 작은도서관인 초롱이네의 맥락과 깊이 맞닿아 있음. 이들에게 이미 정해진 목표와 성과 지표를 제시하는 실험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보다, 기존 역할을 반복하거나 소진을 가속화할 위험이 컸음. 반면 결과가 열려 있는 실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능하게 했음. 열린 결론은 불확실성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활동가 각자가 자신의 주제, 속도와 방식으로 실험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음. 이러한 다양성은 사전에 설계된 실험으로는 도출되기 어려운 결과였음.
- 열린 결론의 실험은 어려움도 분명했음.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때로 불안과 피로를 낳았고, 실험의 의미를 내부에 정리하거나 외부에 설명하는 데에 추가적인 해석 작업이 필요했음. 특히

제도적 지원 체계 안에서는 이러한 실험이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경우에 따라 아예 가시화될 수 없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초롱이네는 1년차 중반까지도 리라프로젝트로 무엇을 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했음. 2025년에 새로 모집한 리라프로젝트 2기 도서관에서도 1년차 리서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험의 방향을 끝내 정립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결론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불확실성을 견디고 의미화할 수 있는 조건이 함께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험은 방향 상실이나 동력 상실로 귀결될 위험 또한 내포함.

- 이는 열린 결론을 가진 실험이 단순히 자유롭고 유연한 방식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기 성찰, 동료 간 신뢰, 모두가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실험의 무게를 개인 혹은 관장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구조, 연구원의 합의가 최종심급인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실험을 해석하고 응원하는 외부적·내부적 언어 자원이 함께 요구되는 방식임을 시사함. 열린 결론은 가능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험을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음. 따라서 열린 결론의 실험은 ‘아무 방향이나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이 늦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견디는 구조와 태도를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실험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열린 결론 실험이 조직적 합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개인 활동가의 내적 확신이나 활동가들의 합의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즉 이 실험이 지금까지 도서관이 해온 일과 충돌하지 않는지, 기존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지, 상위 정책 결정권자 혹은 선배들의 가치와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고려가 끊임없이 개입될 수 있음. 그 결과, 실험의 방향 설정이 조직 내부의 역사·위계·정체성을 동시에 통과해야 하는 지연 혹은 포기 상태로 머무를 수 있음.

## (2) “욕망”이라는 단어가 불러온 저항과 이동

- 초롱이네의 리라프로젝트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주제어가 아니라, 강한 저항과 동시에 의미 있는 이동을 촉발한 촉매였음. ‘욕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활동가들이 느낀 저항은, 초롱이네와 같은 초기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사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 이곳들은 책을 매개로 한 공간 운영을 넘어, 지역에서의 교육 실천과 돌봄, 공동체 조직을 포괄하는 풀뿌리 사회운동으로서 기능했음. 초롱이네의 활동가들은 10년 이상, 길게는 25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러한 운동성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켜온 주체들임.
- 이러한 맥락에서 욕망은 공공 영역, 특히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에서 다뤄지기에는 지나치게 사적이고, 이기적이며,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인식되어 왔음. 실제로 활동가들은 초기 회의와 워크숍 과정에서 욕망을 말하는 일이 역할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혼란스러워함. 이는 욕망

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도서관 활동 안에서 사적인 욕망을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까움.

- 그러나 초롱이네 활동가들이 처음부터 개인적 욕망이 없었던 것은 아님. 오히려 초기에 마을 활동에 참여했던 동기 자체가 분명한 내적 욕망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음. 양육자로서 내 아이가 좋은 책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가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이웃들과 함께 자라기를 바라는 기대, 교육과 양육의 동지를 만나고 싶다는 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잘 클 수 있도록 내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모두 강력한 내적 욕망이었음.
- 다만 이 욕망은 개인의 성취나 경쟁적 우위를 향한 사적 욕망과는 성격이 달랐음. 이는 '내 아이가 남들보다 앞서길 바라는 욕망'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관계적·공동체적 욕망'에 가까웠음. 욕망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동의 가치 속에 흡수되어 개인의 언어로는 말해지지 않았던 감각임. 리라프로젝트는 양육이 끝난 이후 남겨진 욕망을 호출함.
- 욕망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언어에서 벗어나, '삶의 국면 변화에 따라 갱신되어야 할 개인의 동기와 에너지의 언어'로 이동함. 초롱이네 실험이 보여준 것은, 욕망이 공공성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적 실천이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개인의 내적 조건이라는 점임. 욕망을 다시 말하기 시작했을 때, 활동은 역할 수행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도서관은 의무의 공간이 아니라 다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

### (3) 개인의 욕망 기록을 공적 공간에 놓을 때

- 초롱이네의 실험을 통해 확인된 중요한 발견은, 작은도서관이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서사를 다루기에 적합한 밀도와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임.
- 초롱이네가 실험한 기록은 지역의 유명 인사, 혹은 눈에 띄는 기여자를 선정하고 완결된 서사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기록과 구별됨. 공적인 가치나 방향을 설득하기 위해 개인의 서사를 동원하는 목적 지향성 (예,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서관의 공적 역할 찾기)을 보이지도 않음. 또한 개인의 서사가 대표성을 갖도록 (예, 개인 활동가의 기록이 전체 활동가를 대표하는) 의도하지도 않음. 훈련받은 아카이비스트가 대신 서술하는 전통적인 기록과 거리를 둬.

- 초롱이네의 전시에는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언어로 쓴 날 것의 기록’ 등이 놓임. 정리된 자서전과 달리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록, 다시 말해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미완성의 기록들이 병치됨. 기록들은 특정한 삶을 설명하지 않고, 해석을 강요하지 않으며, 완성된 의미를 요구하지 않음. 다만 아직 쓰는 중인 수첩의 기록은 어떤 삶이 존재함을 조용히 증명함. 관람자는 무엇을 배워야 하거나 의미를 찾지 않고도, 누군가의 욕망, 습관, 기억, 공간 감각 앞에 잠시 머무르며 ‘이런 삶이 있구나’라는 인식의 여백과 마주함. 초롱이네의 실험은 개인의 서사를 공공화한 것이 아니라, 공적 공간 안에 개인의 서사가 날것으로 머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임. 여기서 미완성과 불안정성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이 살아있음, 지금도 계속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임.
- 연구자의 시선에서 볼 때, 이러한 실험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작은도서관, 특히 초롱이네가 가진 규모와 관계성에 있음. 공고한 미시 커뮤니티이기에 서로의 얼굴을 알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익숙하기에 과장할 필요가 없으며, 너무 공적이지 않기에 실패와 미완을 숨기지 않아도 됨. 이 밀도는 기록을 안전하게 만들고, 신뢰는 기록을 솔직하게 만들.
- 개인의 욕망 기록을 공적 공간에 놓아보는 초롱이네의 실험은 기록의 공개와 보호, 참여와 거리 두기 사이에서 새로운 질문들을 발생시킴. 특히 중요한 질문은 ‘어디까지가 안전한 노출인가’임. 욕망 기록은 본질적으로 사적인 감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삶의 전환기, 소진, 불안, 회복과 같은 주제를 다룰 때 노출의 위험을 동반함. 초롱이네의 실험은 쓰다 멈출 수 있고,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나중에 본인에게 회수한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참여자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었음. 그러나 전시가 반복되거나 외부의 관심이 커질수록, 개인의 취약성이 콘텐츠로 소비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
- 이 지점은 IFLA Trend Report가 지적하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음. 보고서는 도서관이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공개하는 데 있어, 개인과 공동체를 위협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윤리적 경계 설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개인의 욕망 기록을 공적 공간에 놓을 때는 어디까지, 어떤 조건으로 공개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일이 필요함. 기록을 오프라인에서만 열람 가능하게 하거나, 사진·영상 촬영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공개 여부를 기록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등 기록의 맥락과 주체성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함.

## 4. 작은도서관 caru: 서로 돌보는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아웃리치

### 개요

- 작은도서관 caru(이하 까루)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운영 주체는 춘천여성회임. 2004년 10월 사립작은도서관인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들이 18년이 지난 후 40~60대가 되어 2023년 성인 서비스 중심의 작은도서관인, 까루를 만들.
- ‘까루caru’는 고대어로 보살핌,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을 지님. 까루는 마을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인프라로 도서관을 상정. ①성인 이용자 중심 ②상호돌봄과 민주주의 시민 양성 ③책을 읽고 글쓰는 공동체 만들기를 핵심 가치로 삼음. 책 대출과 열람이라는 도서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모임, 대화, 기획, 실험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춘천지역의 사회운동단체와 협동조합, 기관 20-30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실험을 확대해왔음. 2024-25년 ‘리라프로젝트’ 외에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길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인문강원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음.
- 도서관이 위치한 후평동 일대는 자영업자와 1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음. 사업 시작 당시, 리라프로젝트 초기 연구진은 관장 1인과 활동가 2인으로 구성되었고, 2년차에 1인의 활동가가 추가됨.

## 가. 실험의 문제의식과 목적, 방법

■ 까루가 초기에 설정한 문제의식은 프로젝트 제목인 ‘비독자를 위한 아웃리치(Outreach)<sup>8</sup>, 돌보는 도서관 caru’에 집약되어 있으며, 이는 세 가지 목표가 중첩된 구조로 나타남. 첫째, 책을 읽지 않았던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는 것, 둘째, 도서관을 이용해본 적 없는 이들을 도서관 이용자로 연결하는 것, 셋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넘어 돌봄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공간으로 도서관의 성격을 전환하는 것임. 세 목표의 교집합은, 독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까루를 매개로 책과 관계를 맺고, 동시에 상호호혜적 돌봄의 네트워크 안으로 진입하도록 만드는 데 있음. 다시 말해 까루의 실험은 단순한 독서 장려나 이용자 유입이 아니라, 읽기·이용·돌봄이 분리되지 않는 관계의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임. 까루는 그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네트워킹과 연결의 시도들을, 기존 이용자를 넘어 새로운 이용자와 새로운 네트워크의 개발로 과감하게 확장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까루의 실행계획서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된 목표는 보다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됨. 첫째는 “작은도서관 이용자는 왜 도서관을 찾는가?” 이고, 둘째는 “확장된 도서관 서비스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임. 이는 비독자를 독자로, 비이용자를 이용자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적 목표를 곧바로 실행하는 대신, 까루가 사람들에게 선택되는 이유와 도서관 서비스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재사유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까루의 실험은 세 가지 전환—독자의 전환, 이용자의 전환, 돌봄의 전환—을 장기적인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 도서관이 어떤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실험이었음.

■ 2025년 2년차에 들어서며 까루의 목표는 “출판하는 도서관”으로 더 확장됨. 1년차 실험을 통해 비독자·비이용자를 도서관의 관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2년차에는 이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추가함. 2년차의 성공적인 방향 전환 이후 외부의 강한 요구와 질문이 작용했음. 많은 작은도서관과 도서관 현장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까루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으면서 대여섯 가지가 넘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그것도 즐겁게 지속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결과 사례 공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움. 오히려 성과 중심의 사례 발표는 다른 도서관들에게 “저건 까루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리감이나 좌절감을 남길 위험이 있음. 2년차에는 까루는 사람을 모으고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8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아웃리치(Outreach)를 “도서관 서비스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행사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의함. 신체적, 문화적, 언어적, 심리적 장벽으로 도서관 접근에 어려움을 갖는 이들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시도를 병렬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현장의 욕구에 응답하고자 함.

#### ■ 까루의 실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비독자와 도서관 비이용자를 도서관의 관계망 안으로 초대하는 새로운 아웃리치 방식을 탐색한다.

둘째, 도서관 주도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방식에서, 이용자들 주도로 돌봄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실험한다.

셋째, 이러한 전환이 가능했던 과정을 기록·분석하고 출판물로 공유한다.

#### ■ 실험의 방법

##### 리서치를 통한 피프티피플 모집

까루는 ‘피프티피플’이라는 이름의 도서관 실험단을 먼저 모집함. 초기 기획 단계에서 까루는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5개 이상의 실험을 병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고, 각 실험에 최소 8~10명 규모의 참여 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전체 참여 규모를 50명 내외로 설정함. 모집은 SNS, 지인 네트워크, 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전 설명회와 설문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격을 충분히 공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음. 그 결과 초기 모집 후 1주일 만에 51명이 참여했고, 이후 추가로 2~3명이 더 합류했음. 참여자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폐쇄형 커뮤니티에 가입했으며, 각기 다른 실험에 중복 또는 선택적으로 참여했음. 피프티피플은 단일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도서관 실험 전반을 함께 경험하는 실험단 구조로 운영되었음.

##### 심야도서관과 북스카우트

심야도서관은 낮의 일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되었음. 까루의 기본 운영시간은 월-금 10:00부터 18:00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도서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심야도서관은 상시 운영이 아닌 회차형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녁 8시이후 자정 무렵까지 도서관을 개방해 참여자들이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 2024년 심야도서관의 성공 이후, 2025년 심야도서관을 운영할 자원봉사자 11명의 모임, ‘북스카우트’가 결성됨. 2025년부터 심야도서관은 이후 이들에 의해 운영됨.

#####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은 도서관을 오직 1명 혹은 1 그룹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선물하는 기 획임. 참여자는 구글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고 일정을 조율함. 확정 문자를 받으면 비대면으로 도서관

번호키를 공유받아, 도서관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혼자 문을 열고 공간을 이용하도록 함. 까루는 이 시간을 위해 별도의 진행이나 개입을 하지 않았으며, 참여자에게는 한 사람을 위한 ‘편지와 다과’가 제공되었음.

### 까루 구독서비스

까루 구독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독서모임과 다양한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임. 총 16명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모임은 소설가 1인이 이끔이로 참여해 작품 해설과 독서토론을 진행했음. 온라인 모임은 독서 플랫폼 ‘그믐’을 활용해 댓글 참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플랫폼 가입 과정과 댓글·채팅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참여자의 약 80%가 실제 온라인 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했음. 작가 구독 편지 발송, 다큐멘터리 연계 감상 등 초기 기획은 일부 실현되지 못했음. 2024년만 운영함. 그러나 독서모임 아이디어는 2025년 네트워크 도서관 사업으로 변형되어 이어짐.

### 자영업자 책꾸러미(책도시락)

자영업자 책꾸러미는 도서관 방문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실험으로, 까루 인근에서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상인들을 대상으로 책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참여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2024년만 운영했음. 이후 인근 카페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계기로 참여자들은 까루의 다른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도서관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2025년 네트워크 도서관 사업으로 변형되어 이어짐.

### 황혼독자서비스

황혼독자서비스는 60-80대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소규모로 모여 노래교실, 책 읽고 나누기, 디지털 수업을 진행함. 2025년에는 힐링원예교실을 비롯하여 그림책 읽기, 단편 읽기, 아침고요 수목원 나들이, 뜨개질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눔. 힐링원예교실은 리라 프로젝트 활동가가 복지원에서 과정을 이수하며 만난 팀원들과 함께 기획되었고, 그 외 활동은 참여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도됨.

### 출판하는 도서관

출판하는 도서관은 출판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영국으로 문학기행을 준비·실행한 과정으로 운영되었음. 참여자는 ‘울프의 책상’ 41회 문학수업에 참여했던 인원 중 6명과 보조 인솔자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되었음. 문학기행 준비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공동 감자 농사와 공동으로 집필한 에세이, 『울프의 감자』를 클라우드 펀딩함. 펀딩으로 총 181명이 참여해 579만 5천 원이 모금되었음. 모금액 중 일부는 농사 경비와 출판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400만 원은 문학기행 기금으로 충당되었음.

음. 해당 기금의 일부는 작은도서관 까루에 기부되어, 문학기행 외의 공익적 활동에도 사용되었음. 또한 까루가 2년동안 수행한 리라프로젝트 실험과정을 담아 『까루, 진정한 독자를 만나다』를 출간함.

### 네트워크 도서관

2025년 편의점·카페·작은도서관을 한 마을 한 책 읽기의 대출 거점으로 연결하고, 호반마을살롱이라는 책모임을 진행한 뒤, 마을 책축제로 마무리함. 2024년 자영업자 책꾸러미 관련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마을의 자영업자들은 개별 대출 방식보다 마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모임과 책축제 형태의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2025년에는 자영업자 책꾸러미 사업을 종료하고, 9-10월에 『피프티 피플』과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를 골라 ‘한 마을 한 책 읽기’를 진행함. 구글 신청을 통해 총 39명이 참여했고, 9월 20~25일 사이 총 6회의 독서모임 ‘호반마을살롱’이 열림. 북스카우트 경험자가 모임의 리더를 맡아, 회차당 평균 6-8명이 참여함.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책축제 오호라, 들깨라!>를 열어 약 50명이 참여한 들깨 백일장을 개최함.

## 나. 실험의 과정

시기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실험·활동
2024.8-9	워크숍	인트로 디자인 워크숍 진행: 실험 주제·구조·우선순위 정리(3회)	리라프로젝트연구원 외부강사 워크숍
2024.11	워크숍	리라와 곁절이 (피프티피플 모임)	피프티피플
2024.11	실험	심야도서관 운영(2024년 3회)	심야도서관
2024.11-12	실험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 운영(2024년 13회)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
2024.11	실험	까루 구독서비스 오프라인 독서모임	까루 구독서비스
2024.12	실험	자영업자 책도시락 운영	자영업자 책도시락
2024	실험	황혼독자서비스 운영(2024년 20회)	황혼독자서비스
2024.12-2025.1	리서치	황혼독자서비스 FG(2회), 자영업자 책도시락 FG,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 FG, 심야도서관 FG	출판하는 도서관
2025.3-8	실험	울프의 감자 프로젝트, 감자 농사, 편딩, 『울프의 감자』 출판 및 문학기행	출판하는 도서관
2025.5-12	실험	북스카우트 워크숍, 특강, 심야도서관(2025년 14회), 문학캠프, 여행 및 송년모임	북스카우트가 진행한 심야 도서관
2025.5-12	실험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 운영 (2025년 6회)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
2025.5-11	실험	황혼독자나들이, 시니어힐링원예교실(8회)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 정원 (10회) 뜨개질 도서관 (2회), 황혼독자 졸업사진 촬영	황혼독자서비스
2025.9-10	실험	한 마을 한 책 읽기 운영	네트워크 도서관
2025.9.20-25	실험	호반마을살롱 6회 운영	네트워크 도서관
2025.10	실험	마을 책축제, 들깨 백일장 개최	네트워크 도서관
2026.1	실험	2년차 실험 정리 및 『까루, 진정한 독자를 만나다』 출판	출판하는 도서관

## 다. 실험의 발견점

### 1) 작은도서관 caru 연구원들의 발견점

#### (1)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실험 참여자의 목소리

- 까루는 1년차 실험을 마무리하며, 도서관에서 자주 활용되는 만족도 조사 대신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이하 FGI)를 통해 실험의 평가와 학습점을 발견하려 함. 까루의 실험은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부분 10명 이내의 소수가 참여하는 실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참여자의 만족 여부는 설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참여 지속 여부, 재방문, 자발적인 제안, 표정과 태도의 변화, 체류 시간, 관계의 유지 등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음. 까루는 FGI를 통해 참여자들이 어떤 순간에 편안해졌는지, 언제 부담을 느꼈는지, 어떤 계기로 관계가 이어졌거나 멈추었는지, 판단의 근거와 선택의 이유를 자세히 듣고자 함.
- FGI는 실험 이후에 실시하는 사후 평가를 넘어서, 다음 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과 기획의 과정으로 기능했음. 참여자들은 ①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는 기회를 가짐. 만족도조사가 응답을 미리 설정된 항목 안에 배치한다면, FGI는 참여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불러줘서 좋았다”, “굳이 읽지 않아도 괜찮았다”와 같은 자신의 표현으로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 FGI의 결과는 ② 실험의 방향을 유지할지, 조정할지, 혹은 다른 형태로 전환할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됨. (심야도서관 FGI에서 북스카우트 기획이, 자영업자 FGI는 네트워크 도서관으로의 전환의 씨앗이 됨). 또한 ③ 실험을 기록하고 출판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음.
- 까루가 확인한 첫 번째 발견은, 사람들은 까루에서 독서 여부와 상관없이 도서관과의 연결감을 느낀다는 점임. FGI에서 참여자들은 책을 읽지 않았거나 끝까지 읽지 못했음에도, 까루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이는 독서 여부와 도서관 관계 형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줌.

“자영업자들이 친구가 없어요...활동 시간대가 너무 다르니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까루를 통해서) 같이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롭거든요.”(자영업자 책꾸러미 참여자 발화, 57쪽)

“도서관으로 와서 문을 딱 열고, 처음에는 ‘그래 책에 집중하고 열심히 읽어야지’ 하면서 책을

집어 들었어요. 그러다가 평소 이 시간에 일할 때는 정말 안간힘을 쓰며 몸을 쓰며 일했잖아요. 책을 읽겠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자, 그냥 쉬고 싶다. 아무 것도 안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략) “OO, 너만 먹어!” 글씨가 써진 간식도 먹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데, 이게 진짜 몇 년 만인가 (중략) 내가 그날 그래서 울었잖아.” (한사람을 위한 도서관 참여자 발화, 48-9쪽)

“제일 원하고 즐거워하는 게, 보니까 율동이야. 라인 댄스 할 때 다들 되게 좋아하셨어. 사실 방 (까루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도 몸 움직이니깐 다 좋아하시더라고” (황혼독자 서비스 참여자 발화, 61쪽)

- 두 번째 발견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만큼이나 도서관이 먼저 건네는 태도와 접근 방식이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참여자들은 책, 간식, 쪽지를 안부의 표시로 인식했다고 말했으며, 평소와 달리 변화를 준 공간 (가구 배치, 조명)에 환대를 느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경청하는 FGI에 초대하는 행위 또한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임.

“이렇게 신년에 차도 마시고, 뭐 하고 싶은지 물어 봐주고, 너무 고마워. 우리는 뭐든지 하면 오케이야.”(황혼독자 서비스 참여자 발화, 65쪽)

“처음 들어왔을 때 평소 봐왔던 도서관 배치가 아니어서, 일단 기분이 좋더라구요. 이 날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그런 자리 같은 느낌이에요. 캠핑 의자랑 달라진 조명과 음료까지 환대받는 느낌이었어요. (심야도서관 참여자 발화, 43쪽)

- 세 번째로 까루가 발견한 점은, 사람들이 도서관과 맺고 싶어 하는 관계의 밀도와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임. FGI에서는 혼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원했던 참여자, 소규모로 모여 책이나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참여자, 마을 단위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던 참여자들이 동시에 등장했음. 까루는 이 다양성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수렴시키기보다, 여러 실험을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함.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니 진짜 오롯이 나만 이렇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심야도서관 참여자 발화, 43쪽)

“집에서 이제 엄마도 쉴 거야, 라고 말해도 자꾸 아이들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혼자 있는 공간에 있으니 그거 자체 힐링이 되었어요.”(한사람을 위한 도서관 참여자 발화, 51쪽)

“서로 안면이 있지 않더라도, 잠시 잠깐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죠. 그날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내가 (유튜브처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많지만, 일단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 아닐까요.” (한사람을 위한 도서관 참여자 발화, 50쪽)

“저도 오래도록 알던 과거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초대를 해서 이런 곳에 오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사람을 위한 도서관 참여자 발화, 50쪽)

“자영업자들끼리 모임하는 경우도 없고 알기도 좀 쑥스럽고 어색하고. 근데 뭔가 이런 모임의 장을 만들면 좀 더 자연스럽게 같이 책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여가시간도 잘 쓰게 되지 않을까”(자영업자 책꾸러미 참여자 발화, 56쪽)

- 마지막으로, 까루는 독서를 개인의 의지나 습관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가능해지는 행위로 재구성함. 비독자가 혼자 읽기를 시작하기 어렵지만, 함께 읽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읽기가 자연스럽게 촉발될 수 있음을 보여줌. 까루에서 독서는 타인의 집중과 태도가 자극이 되어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장면 속에서 발생했음.

“오랜만에 새삼 이런 분위기를 느껴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어요.”(심야도서관 참여자 발화, 43쪽)

(저는) 심야도서관 때도 사실 딴 짓을 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다들 집중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또 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심야도서관 참여자 발화, 44쪽)

까루에서 이렇게 판을 깔아주니까 오잖아요. 저도 와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네. 나도 좀 읽어야겠다. (심야도서관 참여자 발화, 46쪽)

## (2) 피프티피플, 서로 돌봄의 네트워크

- 까루는 실험의 동력이자 성과가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아닌 사람 그 자체와 그들의 이야기임을 강

조합. 50명 이상의 활동가들인 피프티피플, 8-10명의 북스카우트는 기금으로 촉발되었으나, “기금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 강한 연결과 적극성을 지닌 관장과 소수의 연구원이 매개하고, 약한 연결을 가진 다수의 활동가들이 느슨하게 결합하는 구조가 작은도서관을 더욱 지속적이고 활발히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됨을 증명함. 이 네트워크는 역할이나 의무로 조직되지 않고, “원하면 돕고, 도우면 된다”는 관계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위에서 작동함.

- 피프티피플 모집은 까루를 경험했던 이들 혹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던 이들, 이들이 소개한 이들이 구글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설문지의 첫머리에서부터 까루를 “책”을 넘어서 사람과 동네,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소개하며, 참여자를 ‘조사 대상’이 아니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주인공’으로 호명함. 설문은 “어제와 다른 오늘, 가슴 뛰는 내일을 위한 이 아름다운 과정을 함께 나뉘볼 주인공 50인(피프티피플)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응답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관계의 방향과 톤을 제시함.
- 첫 질문인 “아래의 보기 중 당신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는 도서관 이용 여부나 독서 경험을 묻지 않음. 대신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가질 때”, “나와 같은 생각이나 상상을 하는 동무를 만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새로운 것을 누군가와 함께 시도해볼 때”와 같은 선택지를 제시하며, 응답자가 자신의 욕망·관계·감각을 먼저 떠올리도록 만듦. 도서관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에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인가”를 묻고 있음. 마지막에 제시된 “까루 프로그램의 매력” 항목 역시 “참여자 아닌 까루의 주인이 될 수 있음”,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나의 즐거움과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이라는 문장으로, 설문 응답자에게 주체의 자리를 명확히 제안함.
- 까루는 성인·중장년 도서관 비이용자를 다시 도서관의 언어로 불러오는 방식이 홍보나 캠페인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 즉 직접 나가거나, 초대하고, 묻고, 듣고, 먹이고, 필요할 때 사람을 연결하거나 욕구에 응답하는 일의 반복이었다고 정리함. 피프티피플의 첫 모임인 걸절이 파티, 북스카우트를 만들자는 제안, 뱃지를 제작하자는 아이디어, 나들이와 여행을 함께 가자는 결정, 그리고 함께 읽은 버지니아 울프의 장소를 직접 찾아 영국 문학기행을 떠나고 지원하는 과정은 모두 “누군가가 먼저 말하면, 다른 누군가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까루는 이를 두고, 도서관이 무언가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가진 욕구와 에너지가 서로를 통해 증폭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고 기록함.

“북스카우트 회원이 전근지를 선택할 때 까루를 염두에 두셨대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면서 까

루에서 더 지내고 싶다면서요. 사실, 까루가 이분에게 신세를 더 지는데, 이분은 반대로 까루에게 늘 고맙다고 하거든요. 평생 꿈꿨던 소설을 쓰고, 사회과학 책 읽고, 토론하고 기록하고 운동모임도 건강밥상모임도 하고, 노년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이 까루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까루에 모여들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인다는 걸 알기에, 비슷한 마음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구요.”(관장 설문)

- 피프티피플 실험에서 밴드에 공유된 후기와 이야기는 단순한 소감 기록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함. 이야기가 밴드에 올라오면, 다른 참여자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거나, 자신의 유사한 경험을 덧붙이거나, 다음에는 참여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는 방식으로 이어져 피프티피플 내부의 관계 밀도를 높임. 후기(=이야기) 공유를 통해 참여자들은 개별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경험을 알고 있는 관계로 이동함.
- 피프티피플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시민 조직으로 작동했음. 이 조직은 멤버십과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참여를 성과나 의무로 환원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는”, “1이 아니면 0.5로도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유지되었음. 참여자들은 어떤 순간에는 서비스의 수혜자로, 또 다른 순간에는 자신의 경험과 시간, 재능을 나누는 제공자로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꾸며 관계를 맺음. 이 과정에서 역할은 고정되지 않았고, 기여의 크기나 방식 역시 비교되지 않았음. 피프티피플을 통해 까루는 서로의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감각이 축적되는 관계의 구조를 형성했음.

#### 4) 작은도서관 caru 리라프로젝트의 발견점

##### (1) 도서관의 경계 실험

- 까루의 실험은 도서관을 규정해온 여러 경계선, 즉 시간, 공간, 인력을 전방위적으로 시험한 과정이었음. 까루는 먼저 ‘시간의 경계’를 실험했음. 평일 주간 운영에 한정되어 있던 도서관의 시간을 넘어, 심야도서관을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회차형으로 운영함. 이 과정에서 야간 이용에 대한 수요와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었으나, 상근 인력과 자원활동 인력 구조상 상시 심야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 또한 분명해졌음. 그러나 심야도서관 이용자와 피프티피플 일부가 자발적으로 북스카우트를 구성하면서, 운영자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심야 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이 전환되었음. 더불어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에서는 새벽 6시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도 나타남. 핵심은 시간 자체보다, 참여자의 필요와 리듬에 따라 도서관의 시간이 유

연하게 확장될 수 있음.

- 까루의 실험은 도서관 공간을 고정된 건물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활동의 성격과 관계의 필요에 따라 ‘공간의 경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까루는 카페나 편의점을 책모임과 대화의 장소로 활용하며 도서관 활동을 일상의 공간으로 옮겼고, 감자밭과 들깨밭에서는 공동 농사와 모임을 통해 도서관 활동이 마을의 생산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실험했음. 이는 도서관 밖에서의 활동을 도서관의 외부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지 않고, 도서관 활동의 연장선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또한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에서는 동일한 도서관 공간을 혼자 또는 한 그룹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공 공간의 이용 방식을 다르게 설계함. 나아가 까루는 함께 읽는 텍스트의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영국 문학기행을 통해, 도서관 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장함. 이처럼 까루는 도서관을 하나의 물리적 장소로 고정하지 않고, 관계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도서관의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실험을 시도함.
- 까루의 실험은 도서관 운영에서 ‘인력의 경계’를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었음. 앞 장에서 서술했듯 까루는 관장과 소수의 상근·활동가 인력을 매개로, 피프티피플, 북스카우트, 마을의 자영업자 등 다수의 느슨한 활동가들이 각기 다른 밀도와 역할로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실험했음. 이러한 인력 구성은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라기보다, 도서관을 함께 꾸리는 주체의 범위를 넓혀보는 의미가 있음.

“... 주변에서는 ‘도서관이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의 마땅함과 자기다움에 질문을 던지는 곳이었습니다. 기존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했던 도서관의 영역을 작은도서관이 개척하고 변화를 이끌어냈다면, 그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더 돌연변이 같은 우리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20년간 무수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리라를 잘 만났습니다.” (『까루, 진정한 독자를 만나다』, 3쪽)

## (2)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도서관

- 까루 실험 전반을 관통한 작동 방식 중에 하나는 신속함과 유연성임. 까루는 참여자들의 욕구를 수렴해 장기 계획으로 넘기기보다, 필요가 포착되는 즉시 반응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택함. 누군가의 제안이 나오면 ‘의견을 모아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절차를 거치기보다, “다음 달부터 해보자”, “당장 한 번 해보자”는 결정이 반복되었음. 우연한 제안을 놓치지 않는 유연성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욕구가 생겼을 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연결하고, 역할을 과감히 맡기며,

그 판단을 신뢰하는 운영 태도에서 비롯됨.

“리라프로젝트에서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제한이 없으니까 책 읽는 행위를 넘어서서 삶의 전 영역을 넘나드는 활동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중략) 북스카우트에서 금요일 밤 팀을 짜서 도서관 문을 여는데, 상황에 따라 여름에는 옥수수도 찌오고 밭에서 난 애호박이나 토마토를 가져와 나누기도 했어요. 추석에는 추석 음식도 나눠 먹고요. 가만히 책을 읽다가 달이 밝은 밤이면 둘 셋이 모여 살짝 밤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공공도서관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과 친밀감이 가능했어요.”(연구원 설문)

- 까루는 시도가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삼고, 실패하더라도 중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시 풀어가는 선택을 이어감. “걱정만 말고 일단 해보자” “하다가 망하면 접지 뭐”라는 태도는 무모함이라기보다, 실행 속에서 학습을 축적하겠다는 실행 중심의 과감성에 가까움. 자영업자 책도시락과 구독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않자, 까루는 FGI를 열어 참여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도서관(한 마을 한 책 읽기와 책축제)을 새롭게 기획함. 또한 심야도서관 참여자들이 어린 시절 형편이 넉넉지 않아 경험하지 못했던 걸스카우트를 떠올리며 ‘북스카우트’를 제안했을 때, 까루는 배지와 스카프 제작, 숙박 여행 기획까지 지체없이 실행에 옮기는 방식을 택함.
-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재빠른 반응과 조정의 방식은 피프티피플과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제안과 욕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는 체감 가능한 경험을 제공했고, 모두를 기획자로 만들어 참여의 지속과 재미, 자발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작용함. 관계 속에서 이야기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은 까루가 가진 핵심 자원임.
- 이러한 신속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까루의 실험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장기간 고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음. 참여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이름과 형식, 내용이 빠르게 바뀌며 진화했고, 때로는 새로 등장한 콘텐츠가 이전의 실험을 흡수하거나 변주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음. 빠른 변화의 속도는 내부에서는 이제껏 일을 진행해온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나, 외부의 시선에서는 까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였음.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한 모델을 기대하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유동성이 불명확함이나 작은 조직의 특수성 혹은 확장 불가능성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음.
- 그러나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점이 곧바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오히려 까루의 실

힘은 고정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대신,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핵심 자원으로 삼았기 때문임. 물론, 이와 같은 실험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병행되지 않았다면, 외부에서는 물론 까루 내부에서도 각 실험이 전체적인 기획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전환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임. 까루가 2년차에 실험의 의도, 설문, 운영 과정, 변화의 지점, 참여자의 반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출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음. 까루의 기록과 출판은 신속성과 유연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했음. 이 기록은 빠르게 변화한 실험들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유연성과 즉각성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가시화하는 장치로 기능함.

### (3) 실천의 언어가 되는 책

- 연구자가 흥미롭게 본 메타적 발견은 까루 실험 전반을 관통한 ‘실천의 언어가 된 책’의 힘임. 까루는 표면적으로는 책 바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왔지만, 변화의 계기와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지속적으로 책에서 빌려온 언어와 사유가 작동하고 있음. 까루의 실험에서 책은 ‘빌리거나, 읽거나, 토론하고, 각자 알아서 실천하는 텍스트’로만 기능하지 않음. 까루는 책을 구현한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세계를 함께 만들어보라고 제안하는 방식을 택함. 이는 독서 이후의 실천을 개인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책의 언어와 감각이 먼저 공간과 관계 속에 구현되는 구조를 만드는 시도’임. 이러한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먼저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이 만들어낸 분위기와 질문, 관계의 방식 속으로 진입하게 되고, 이후에야 책을 만나는 경험을 함. 다시 말해, 책은 자기장치처럼 작동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개가 됨.
- 이런 실험이 가능했던 이유는, 까루 안에 이미 ‘먼저 읽은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임. 이들은 책을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역할을 맡기보다, 책에서 만난 언어와 세계관을 공간과 실천의 형태로 번역하려는 태도를 취함. “서로 돌봄”이라는 개념 역시 여성주의 철학서에서 가져온 언어를 토대로 하는데, 돌봄을 개인적 미덕이나 서비스가 아닌 관계의 작동방식이자 공동의 실천으로 재정의하는데 사용되었음. 서로 돌봄의 철학은 이용자를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희생의 윤리(헌신적인 활동가)가 아니라, 타인을 돌보면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 혹은 관계 속에서 기댈 줄 아는 사람으로 활동가를 위치 짓게 만들음.
- 까루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마다 ‘이름 붙이기’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명칭을 넘어, 참여자들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지를 규정하는 과정이었음. 정세랑의 소설, 『피프티 피플』에서 가져온 ‘피프티피플’이라는 이름은 참여자들을 ‘이용자’나 ‘대상’이 아닌, 서로 다른 삶을 가진 주체들의 집합으로 위치 지었고, 이후 이 책을 ‘한 마을 한 책

읽기'에서 읽으며 문학적 언어를 마을 단위의 실천으로 연결했음. 이 과정에서 까루는 언어가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실천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함.

- 까루의 프로그램 명명 방식 역시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줌. '시니어 서비스' 대신 '황혼독자', '야간 개방' 대신 '심야도서관', '1인 이용' 대신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 '아웃리치' 대신 '바깥도서관', '책 전달' 대신 '책도시락'과 같은 명명은, 기존 제도 언어가 갖는 대상화와 관리의 뉘앙스를 벗어나 참여자의 감각과 욕망에 가까운 언어로 실천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였음. 동시에, 이러한 명명은 '피프티피플'처럼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책의 언어가 실천의 언어로 전환되는 순간을 만들어냄. 예컨대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에서 이주란의 소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을, '심야도서관'에서 그림책 『심야 이동도서관』을, '바깥도서관'에서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과 같은 책 제목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음. 이는 까루의 실천이 책을 '읽고 나서의 결과'로 다루기보다, '책이 열어놓은 세계관과 지향을 명명과 실천의 차원에서 먼저 구현'해왔음을 보여줌.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책을 읽고 싶다. 좋은 책을 만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느 것이 더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씩씩이 텍스트를 넘나들며 함께 사유하고 돌보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까루, 진정한 독자를 만나다』, 3쪽)

-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까루의 사례는 도서관 실험에서 책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대체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줌. 책은 프로그램의 중심에서 물러난 대신,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와 세계관, 정체성, 질문의 출처로 작동했음. 까루의 실험은 이를 통해, 도서관에서 책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읽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명명하고, 그 이름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에 있음'을 드러냄.





## 제4장

# 리라프로젝트의 핵심 발견 10가지



## 1. 이용자는 이미 ‘바뀌어 있었는데’, 도서관은 그대로였다.

- 리라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새로운 이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서관 안팎에 ‘존재하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임. 이용자의 삶의 조건과 욕망은 이미 크게 변해 있었지만, 기존의 작은 도서관이 던지는 질문은 “누가 오지 않는가”, “왜 참여하지 않는가”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질문에 머물러 있었음. 리라프로젝트에 참여한 네 도서관의 공통된 질문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였음. 이용자의 부재를 문제 삼는 대신, 이용자의 삶을 이해하려는 질문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도서관과 이용자의 관계는 전혀 다른 궤도 위에 놓이게 됨.
- 이용자·활동가는 누군가가 설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삶의 시간과 욕구를 기준으로 도서관과 관계 맺고자 하는 경향을 보임. 그 삶의 시간과 욕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애 주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재구성되고 있었음. 특히 리라프로젝트에 참여한 작은도서관의 주된 이용자·활동가·관장인 40~60대는 과거처럼 ‘안정된 중년’의 위치에 있지 않음. 자녀의 독립은 과거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부모의 돌봄은 더 길어져,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와 돌보는 책임이 겹치는 이중·삼중의 돌봄 부담을 안고 살아감. 돌봄은 중년 이후 삶 전반을 관통하는 장기적 조건이 됨. 이로 인해 중년은 ‘돌봄을 마친 세대’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세대’가 됨. 이처럼 이용자의 삶의 조건이 달라졌을 때, 도서관과 이용자의 관계도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음.
- 이용자·활동가의 삶의 욕구와 리듬을 이해할 때에만, 도서관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운영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음. 사람들이 언제 움직일 수 있는지,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무엇을 열망하고, 어떤 이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싶은지 알지 못한 채 시간표와 프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도서관은 필연적으로 이용자의 삶과 접촉할 지점을 갖지 못하게 됨. 리라프로젝트는 이용자의 부재를 문제 삼는 대신, 활동가·이용자의 삶을 먼저 읽는 질문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그 순간 도서관의 운영 시간, 공간의 쓰임, 콘텐츠의 내용과 밀도는 이에 맞춰 다시 배열될 수 있었음.

## 2. 물기로 말 걸기, 들기로 기획하기

- 리라프로젝트에서 기획은 아이디어로 시작되지 않았음. 네 개 도서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시도된

것은, 먼저 묻고, 충분히 듣는 리서치 과정이었음. 이 질문들은 설문조사(까루)의 형식을 취하기도 했고, 대화와 관찰(예다움), 기록 (예다움, 초롱이네, 웃는책, 까루), 인터뷰(웃는책, 까루)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음. 중요한 것은 리서치가 실험의 질문을 재정의하는 ‘사전 절차’였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관계를 만드는 첫 단계’였다는 점임.

- 웃는책의 독서동아리 여정지도, 예다움의 프로브 노트, 초롱이네의 욕망사전, 까루의 피프티피플 사전조사와 FGI은 모두 각기 다른 형식을 취했지만, 공통적으로는 ‘말 걸기의 방식’이었음. 리서치 도구들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일회성 의견이 아니라, 기획의 기준으로 다루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장치였음. 즉, 리라프로젝트에서 ‘듣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감이나 우연한 경청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듣기’, 다시 말해 분석과 기획을 전제로 한 듣기였음. 질문의 형식과 기록의 도구, 만남의 맥락은 모두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단순한 의견이나 요구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와 감정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3. 공간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욕망을 조직하고 유도한다.

- 리라프로젝트에서 ‘공간’은 책장과 가구로 구성된 물리적 장소에 한정되지 않음. 그것은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사람들에게 어떤 상태의 자신으로 존재해도 되는지, 어떤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도 안전한지를 암묵적으로 규정하는 심리적·관계적 조건의 총합에 가까움. 네 개의 작은도서관 사례는 공간이 결코 독립적이지 않으며, 도서관이 어떤 공간을 선택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범위와 관계 맺기의 방식, 나아가 드러나는 욕망의 결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줌.
-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도서관이란 책을 읽거나 빌리거나 공부해야 하는 장소로 인식함. 이러한 선행 인식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들어서기 전부터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무엇인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됨. 또한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도서관에 들어서더라도, 이곳에서 그냥 머물러도 되는지, 혼자 있어도 괜찮은지, 말하지 않아도 혹은 말해도 되는지 같은 신호를 감각함.
- 리라프로젝트의 실험들은 공간을 배경이 아닌 능동적인 행위자로 다룸. 예다움의 공간 변화 실험은 어린이 책을 빼고, ‘성인들도 머물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까루의 심야도서관,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결합을 통해 기존 도서관 이용 규범을 흔들었음. 초롱이네 역시 서가를 들어내고 개인의 욕망 기록을 전시하고 공유하는 실험을 통해, 도서관이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연구원들이 스스로 공간의 쓰임새를 상상하면서 세부를 직접 디자인하도록 응원했고, 막연함과 불안감이 주는 부담을 덜도록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공간이 변신했을 때, 이분들의 긍정 에너지가 한껏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간에 에너지를 일으키고 그걸 일구는 건 활동가 자신의 힘에서 비롯되지만, 반대로 새로운 공간이 다시 동력이 되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컨설턴트 설문)

- 도서관의 공간은 이미 존재하던 욕망을 꺼내고 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장치로도 작동함. 누군가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낸 기록과 전시를 마주할 때, 그것은 단순한 관람 경험이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경험이 됨. 초롱이네에서 타인의 욕망 기록을 본 사람들, 까루의 심야도서관에서 늦은 밤 책을 읽는 이들을 목격한 사람들, 웃는책에서 간식을 나누며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다움에서 새로운 공간을 즐기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이용자들은 공통적으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졌다’고 말함. 공간이 이미 누군가의 욕망을 안전하게 담아낸 흔적을 보여줄 때, 그 장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저렇게 있어도 된다”는 허가로 작동함.

#### 4. 깊은 변화에는 시간이 든다.

- 리라프로젝트는 빠른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선택했으며, 그 선택은 실패와 망설임, 조정의 시간을 포함할 때에만 활동가와 도서관 내부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리라프로젝트는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방식’과 ‘변화를 지속시키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냄. 외부 전문가가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디자인과 리서치를 대신 수행하는 방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 그러나 이런 방식은 대체로 예산 소요가 크고, 변화의 동력이 활동가 내부에 축적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님. 실제로 여러 연구원들은 스스로 해야만 하는 리라프로젝트의 실험이 없었다면 “하나의 주제를 심도있게” 풀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며, 외부에서 주어진 해법(성공적인 프로그램, 활동지, 반응 좋은 외부 강사, 도서 목록 등)을 실행하는 데 머물렀을 것이라 언급함.
- 반면, 리라프로젝트가 선택한 방식은 느리지만 내부의 ‘사람들을 바꾸는’ 접근이었음. 네 개 도

서관 모두에서 활동가들은 리서치, 기획, 회의, 기록(글, 사진, 영상), 전시자료, 교육자료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스스로 역할과 관점을 재구성해 갔음. 이 과정은 즉각적인 합의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는 거리가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때”의 혼란, 기록과 표현을 둘러싼 부담, 개별성과 공동의 기준 사이에서의 망설임을 동반했음. 그럼에도 이러한 시간은 불필요한 지연이 아니라, 활동가가 ‘실행자’에서 ‘사고하는 주체’로 전환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음. 연구원들은 “처음에는 ‘도서관 실험’이라는 말조차 생소했지만”,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는 기획과 기록의 감각을 반복적인 수정과 시도를 통해 익혀갔으며, 그 시간이 자신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서술함.

“리라프로젝트는 전략이나 방법 같은 외적 요인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다져진 조직의 내적 요인을 바꾸어가는 실험에 가까웠어요. 태도와 마음, 소통과 같은 내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컨설턴트 설문)

- 특히 주목할 점은, 리라프로젝트가 실패·중단·조정 시간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임. “뭐든 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험 중이에요.”라는 메시지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활동가들에게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동했다고 고백함. 이 말은 결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압박을 유예하고, 변화가 곧바로 성과로 환원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였음. 그 결과 활동가들은 기록의 방향을 바꾸거나, 때로는 자신의 표현 방식을 고집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 도서관의 일상적 운영 방식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음. 설문과 회고 자료는 변화가 ‘한 번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반복된 시도와 조정 속에서만 가능해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음.
- 동일한 조건과 지원 아래에서도 네 개 도서관에서 일어나 변화는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지 않았음. 까루는 초기부터 빠르고 넓게 확장되었고, 웃는책은 인터뷰집과 교육자료를 꾸준히 생산해갔음. 반면 초롱이네는 방향을 잡는 초기에 멈춤과 재고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예다움은 열기와 유예가 교차하는 진폭을 보임. 이러한 차이는 역량의 우열이나 의지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각 도서관이 축적해온 역사, 내부 의사소통의 방식, 관장의 리더십과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 활동가 개인의 상황과 여력 등 여러 맥락에서 비롯되었음. 각각의 조직이 다른 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억해야, 불균등한 변화를 실패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일반적인 도서관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10개월 내외의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할 때, 리라프로젝트의 지난 2년 지원은 상대적으로 긴 호흡의 구조였음. 1년차에는 리서치와 선실험, 2년차

에는 실행과 자료 생산, 3년차에는 확산과 교육이라는 장기 구조를 가지고 운영됨.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3년의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공식만으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걱정하는 컨설턴트의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기관에 장기간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형평성과 충돌할 수 있음을 우려함. 특정 도서관의 깊은 변화를 지원하는 전략과 여러 도서관에 기회를 분산하는 전략 사이에서 정책적 선택이 요구됨.

## 5. 활동가는 노동력이 아니라 지식 생산자다.

- 리라프로젝트는 활동가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보조 인력이나 행정적 노동력으로 전제하지 않았음. 대신, 이들을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만들고, 운영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며, 해석하는 실행연구자(Action Researcher)로 설정함. 설문과 회고에서 활동가들은 “무언가를 더 잘 운영하게 되었다”기보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도서관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함. 이는 활동가의 역할이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에서, 현장의 경험을 지식으로 전환하는 사람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줌. 이때 생산된 지식은 일반화된 이론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각 도서관이 겪은 시간과 공간, 관계 속에서만 포착될 수 있는 로컬의 지식임.
- 로컬의 지식은 감정과 행위 의도, 망설임과 선택, 관계의 밀도 같은 요소들을 포함함. 이러한 지식은 외부 전문가가 짧은 기간에 추출하기 어렵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며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활동가의 고유한 역할을 드러냄. ‘적정연구자’ 개념은 이러한 활동가의 위치를 잘 설명함. 적정연구란 전문 연구자가 수행하는 고도화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활동 반경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질문을 세우고, 관찰과 기록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연구를 의미함. 리라프로젝트에서 도서관은 지식을 소비하거나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로컬의 삶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지식으로 전환하는 실험실이자, 누구나 자신의 주제와 방식으로 연구자가 될 수 있음을 허용하는 장소가 됨.<sup>9</sup>
- 적정연구의 범위는 다양함. 초롱이네 사례처럼 “나도 몰랐던 나를 끌어내는” 스스로에 대한 탐구일 수도, 웃는책처럼 도서관 내 사람들에 대한 탐구일 수도, 까루처럼 도서관 밖 사람들에 대한

9 적정연구에 대한 논의는 제3장-1-다-2)-(4) 적정연구의 필요 그리고 가능성 참고.

탐구일 수도, 예다움처럼 도서관 안팎 아파트 사람들일 수도 있음. 이러한 탐구와 남겨진 기록들은 도서관이 콘텐츠의 유통자에서 생산자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줌.

## 6. 기록은 부수 업무가 아니라 실험의 핵심 장치다.

- 초롱이네, 웃는책, 예다움, 까루는 모두 오랜 시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해 온 작은도서관임. 각 도서관은 수많은 시도와 조정, 관계의 축적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왔지만, 그 경험과 변화의 과정은 체계적으로 기록되거나 공유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독립서점의 역사가 10년 안팎이지만 출판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방송 등 다양한 성공과 실패, 노하우와 좌절의 기록을 남겨 온 반면, 작은도서관은 30년의 역사에서 속에서 남겨진 기록이 매우 적음. 그 결과 작은도서관이 체화한 지식은 도서관 내부에서도 개인의 기억이나 암묵지로만 남아 있고, 외부의 다른 도서관들에게는 참고하거나 이어받기 어려운 지식이 되었음. 이는 작은도서관들이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보고서를 썼음에도, 그 앞이 도서관계 전체의 학습 자산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냄.
- 작은도서관 현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실험은 할만큼 다 해봤다”는 태도가 형성되기도 함. 충분한 성찰과 기록을 거치지 못한 채 시도만 한 선행 경험은 학습의 자산으로 전환되기 어려움. 특히 시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남겨, 암묵지를 가진 활동가가 사라지면, 이는 다음 실험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더이상 해보기 어려운 것으로 봉인되기 쉬움. 그 결과, 많은 시도들이 끝까지 밀어붙여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몇 번 해보았던 일’로만 기억되며 사라지기 쉬움.
- 리라프로젝트는 이 지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기록을 결과 보고를 위한 부수 업무가 아니라 실험의 핵심 인프라로 설정함. 새로운 시도는 실패와 중단, 조정의 시간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이 기록되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보이는 것은 단편적인 결과뿐임. 그러면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정제된 성공 사례로만 남아 또 다른 부담을 만들어내기 쉬움. 그러나 리라프로젝트의 실험 성과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산출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있기에 무엇을 했는지 못지 않게, 왜 망설였는지, 어디에서 방향을 틀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감정은 어땠는지를 드러내는 기록이 필수적이었음. 리라프로젝트는 경험을 전달하는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서 ‘이야기의 형식’(회고, 에세이, 열린 설문, 인터뷰)를 선택함. 이야기는 메뉴얼과 달리,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개별성과 맥락,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함께 전할 수 있음. 또한 행정의 언어로 쓰이는 보고서와 달리, 이야기는 각자가 겪은 변화를 주어진 틀 없이 스스로의 언어로 서술하게 됨. 자기 언어로 쓰여진 이야기는 주관적 감정과 욕망, 망설임, 불안함까지도 배제하지 않음으로서 변화의 내적 과정을 드러냄.

- 기록은 외부를 위한 공유 수단인 동시에,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했음. 활동가들은 행정보고서의 항목과 달리, 자신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성찰의 기회를 가진, 글을 쓰고 사진과 영상을 남기는 과정에서 표현 기술 역시 점차 축적되었음. 물론, 활동가들은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공통적으로 표현함. “정리가 밀릴 때 압박감이 크다”, “생각이 많아져서 피곤해지기도 했다”, “정리가 잘 안된다”라고 표현했지만, 동시에 “나의 성장과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우리가 해낸 게 보여서 너무 뿌듯하다” “홀어져 있던 생각이 보인다”고 응답함. 이는 기록이 무의미하다는 태도라기보다 자기 경험을 성찰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하는 낯선 노동에 대한 부담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아지트 실험단의 프로브 노트, 독서동아리 여정지도, 개인 욕망의 기록, 피프티피플의 설문 등 리라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리서치 도구들 역시,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했음. 참여자와 활동가들은 기록을 작성한 뒤 그것을 함께 펼쳐 놓고 읽고, 말하고, 다시 질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기록은 곧 대화의 매개가 되었음. 즉 리라프로젝트의 리서치로 모인 데이터 기록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더 정밀한, 더 내밀한, 더 솔직한 이야기를 위해 고안된 장치에 가까웠음.

## 7. 도서관 밖의 언어와 낯선 접속은 실험의 전환을 만든다.

- 리라프로젝트에서 학습의 전환점은 종종 도서관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 발생했음. 컨설턴트였던 문화기획자, 공간디자이너, 독서교육전문가뿐 아니라 질적 연구자, 아키비스트, UX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 등 서로 다른 장에서 활동해온 이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자문이나 기술 이전이 아니었음. 프로젝트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생경한 만남들은 도서관을 ‘도서관 내부의 논리’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좌절시켰다고 언급함. ‘당신은 왜 도서관을 하려고 하나’, ‘도서관은 꼭 이래야 하나,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등 내부에서는 잘 제기되지 않던 외부의 질문과 만나면서 자기 전제를 흔드는 학습이 일어남. 특히, 제3의 시간, 로컬 스티치, 밋업 전시 그리고 다양한 서점과 복합문화공간을 직접 방문하며 이루어진 현장 학습은, 도서관의 경계를 설명하는 언어를 낯설게 만드는 경험이었음.

“기존의 컨설팅이 ‘도서관은 이래야 한다’는 방향 제시였다면, 리라프로젝트는 ‘왜 그렇게 해 왔는가’를 되묻게 했다는 점에서 질문의 기준이 달랐어요. 작은도서관은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기에, 이런 질문과 제안을 비교적 빠르게 받아들였어요. 다들 도서관이 무엇을, 왜 하는지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단단한 대답을 찾으려 애썼고요.”(매니저 설문)

- 도서관계에서도 외부 전문가 초청은 익숙한 방식이지만, 리라프로젝트에서의 만남은 지식이나 사례를 ‘전달받는 강연이나 자문회의’와는 분명히 달랐음. 전문가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서기보다 실험 맥락 안으로 들어와 질문하고, 여러 번의 현장방문, 통화, 동행, 피드백 등을 이어갔음. 활동가 설문에서도 “도서관 밖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공간과 기록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사진과 영상이 홍보가 아니라 맥락을 전달하는 언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반복되는데, 이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배운 관점, 기술, 내용을 자기 일에 번역해보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였음.
- 담임제 컨설턴트는 이러한 ‘도서관 밖 언어와의 접속’을 일회성 자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학습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장치였음. 컨설턴트들이 1년 넘게 한 도서관과 관계 맺으며 실험 전반을 함께했기에, 각 도서관의 맥락과 실험의 진척, 활동가들의 변화와 소진의 징후를 따라가며 살필 수 있었음. 컨설턴트는 조언이나 평가를 제시하기보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자는 방식이었기에, 활동가들 역시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 속에서 실험을 지속할 수 있었음.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나 멘토링은 시간과 예산의 제약, 또는 지속적·일상적 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지원 기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1~3회 이내의 단기 개입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의 고유한 호흡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축적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반면 리라프로젝트의 경우, 1년동안 매달 접촉하면서 단순히 코멘트나 제안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도서관의 맥락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개별 활동가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살피며 이를 근거로 컨설팅을 해야했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컨설턴트 설문)

- 담임제 컨설턴트 구조가 관계 기반 학습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음. 리라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양쪽의 경험을 두루 갖춘 이들로, 외부 컨설턴트들이 던지는 질문이나 제안이 도서관의 현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맥락을 번역하고 조율하는 중간 지점을 형성할 수 있었음. 컨설턴트들이 도서관계 바깥의 언어로 질문을 던졌다면,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 질문이 각 도서관의 조건과 시간 안에서 어떻게 소화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설계했음. 특히 실험이 정지 상태에 머물거나 방향이 흔들릴 때, 연구원들이 기술적인 막막함을 호소할 때, 혹은 “실험 주체가 초기 문제의식에서 멀어질 조짐이 보일 때”, 프로젝트 매니저는 개입의 강도를 조절하며 대화를 통해 다시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했음. 이 삼각 구조 속에서 컨설팅은 위에서 내려오는 처방이나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도서관 내부의 변화 속도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관점을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작동했음.

## 8. 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다.

-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돌봄은 주로 서비스의 형태로 조직되어 왔음. 유아와 어린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이었고, 노인 프로그램 역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여가·문화 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조에 가까웠음. 이때 돌봄은 제공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관계였으며, 대상은 보호받는 객체로 설정되기 쉬웠음. 그러나 리라프로젝트가 실험한 40~60대 이용자층은 이러한 구도를 자연스럽게 흔들었음.
- 리라프로젝트에서 40~60대(특히 여성들)는 관장과 활동가, 이용자의 경계가 겹치는 세대였음. 이로 인해 실험은 ‘다른 연령·대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나와 내 친구, 내 또래와 함께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함. 이 당사자성은 기획을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었음.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상상과 대리 기획을 필요로 한다면, 40~60대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내가 요즘 힘든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임.

“예전에도 도서관 자원봉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에는 봉사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북스카우트로 1년 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시도하면서 아주 끈끈해졌어요. 이들과 나이 들면서 하고 싶은 거의 모든 활동들을 함께 해도 좋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구원 설문)

- 까루의 사례처럼, 돌봄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의 흐름으로 재구성됨. 누군가는 걸절이를 담가 파티에 가져오고, 누군가는 감자 농사와 출판이라는 긴 호흡의 시도에 가까이 펀딩으로 참여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자정이 넘도록 도서관에 남아 공간을 책임지고 지킴. 이때 돌봄은 특정 역할에 고정되지 않고, 어떤 날에는 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다른 날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와 여유에 따라 역할은 자연스럽게 이

동함. 특히 40~60대는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에 비해 시간, 기술, 관계, 자원의 폭이 넓어, 돌봄을 행위와 선택의 문제로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 리라프로젝트가 만든 것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일을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관계의 구조였으며, 도서관은 그 관계가 안전하게 형성되고 순환되도록 허용하는 장소로 기능했음.

## 9. ‘커뮤니티 도서관’이 활동가 없이 가능한가?

-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사실이 커뮤니티 형성을 의미하지 않음. 해외 SNS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도서관 공간’으로 자주 오해되는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는 늘 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그곳에서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경험하지 않음. 머무름과 통과는 있지만, 관계의 축적과 연결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임.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이 소속감, 상호의존성, 공동의 관심사와 의미, 지속성을 갖는 관계임. 사람들은 커뮤니티 안에서 인정받는 느낌, 안전함. 성장의 느낌, 책임감, 외로움의 완화를 느낌. 커뮤니티는 자연 발생하지 않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누군가의 개입을 필요로 함.

“장소로서의 도서관보다 관계로서의 도서관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도서관이 이전에는 개인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각자 독서나 동아리를 통해 의미를 찾는 장소였다면, 지금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의미있는 활동을 도모하고 실현해 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커진 것 같습니다.”(연구원 설문)

- 문제는 이 연결의 역할을 사서 공무원, 즉 ‘공적 서비스 제공자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임. 리라프로젝트에서 활동가들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활동, 감정과 행동을 연결하는 존재로 기능했음. 이들은 처음 온 이용자의 어색함을 완충하고, 반복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를 당기며, 말 걸기와 호명을 통해 개인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함. 듣기, 중재하기, 갈등 완충하기, 감정 수용하기와 같은 보이지 않는 노력은 매뉴얼화된 서비스로 대체되기 어렵고, 행정적 업무로 환원되기도 어려움. 웃는책의 사례에서 보듯, 독서동아리는 단순한 독서 활동을 넘어 서로의 경험을 비추는 관계망으로 작동했고, 그 중심에는 동아리 활동을 자발적으로 꾸려온 활동가들이 있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즐겁게 자신을 태워가면서, 이 일을 일처럼 느끼지 않으면서” 지속하는 활동가의 동력은 의무나 보상 이전에 관계와 의미에서 발생함을 보여줌.

- 리라프로젝트의 설문과 소회 인터뷰를 종합하면, 활동가의 소진을 막는 핵심 조건은 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을 바꾸는 것에 있음. 리라프로젝트는 활동가를 무한히 헌신하는 존재로 전제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배우고 변화하며 성장하며 즐길 수 있는 구조 안에 놓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커뮤니티는 유지될 수 있음. 즉 활동가를 ‘도서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서관 안에서 자기 삶을 실험하는 사람’으로 재위치시킨 점임.
- 리라프로젝트에서 연구원에게 요구된 고강도의 참여와 책임은 이들의 역량을 비약적으로 축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핵심 2-3인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함. 활동가 다수가 의미와 관계에서 비롯된 동력이 프로젝트 기간 강하게 작동했다고 진술하나, 이것이 장기적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과제로 남음. 신뢰와 응원이 구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고, 소진의 위험은 언제든지 재생산될 수 있음.

“1년차 때도, 2년차 때도 일이 휘몰아치는 막바지 10-12월에는 하루하루 마무리해야하는 일들이 촘촘하게 이어진다. 일에서 얻는 재미와 별개로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되기에 마감에 맞추어 일을 하다보면, 몸이 부대끼거나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일을 하다가 이전 정말 좀 쉬고 싶다는 혼잣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곤 했다.”(연구원 설문)

-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핵심 활동가층을 둘러싼 다수의 느슨한 활동가들의 곁이 필요함. 2년의 긴 실험동안 건강이나 직장, 가족사 등 “리라 때문이라기보다 삶 자체가 힘겨운 구간”이 발생하여 연구원이 리라프로젝트에 시간과 여유를 내기 어려울 때가 생김. 피프티피플과 같이 참여와 이탈이 자연스럽고, 참여자와 기획자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역할을 오갈 수 있는 다층적 곁 구조가 형성될 때, 소수에게 집중되는 활동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음.

## 10. 실험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 리라프로젝트에서 관장의 역할은 결정하고 지시하고 책임지는 운영자에서, 불확실한 과정을 함께 견디는 동료 연구자로 이동함. 관장 설문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불안”이었음. 이는 리더십의 결핍이라기보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실험을 허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책임감에 가까움. 현실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구조를 고려할 때 (웃는책만 공립 작은도서관이고 나머지 셋은 사립 작은도서관임), 책임이 관장에게 집중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 가능한 결과임. 대부분

의 사립 작은도서관은 안정적인 운영 예산이나 인건비, 임대료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으며, 월세와 공과금, 최소한의 운영비를 책임지는 주체가 관장 개인인 경우가 많음. 급여를 받지 않거나 불안정한 보수를 감수하면서도 공간을 지키고, 행정과 회계, 대외 소통까지 도맡는 구조 속에서 관장이 '최종 책임자'로 기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판단임. 이러한 조건에서 관장이 모든 결정을 쥐고 통제하려 하거나, 실패의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구조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지원사업이 정해진 목표와 성과를 향해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요구했다면, 리라프로젝트에서 관장은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가들과 함께 질문을 만들고 과정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다시 정의함. 관장 역시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배우고, 질문을 던지며, 과정을 함께 겪는 '학습자이자 실행연구자'였음. 활동가들은 기획과 운영 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장의 업무였던 예결산, 서류 정리 및 작성, 외부 연락, 기록, 발표 등의 역할도 나누어 맡았음. 부담을 분산하고 해석을 공동화함으로서 관장은 모든 사항을 다 챙겨야 하거나 실패를 홀로 떠안지 않아도 되는 위치로 이동했음. 이 변화는 활동가의 자율성을 높이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가능하게 한 핵심 조건이기도 했음.

“‘개인이 아니라 팀이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처음 리라프로젝트 신청서부터 남달랐는데, 단체의 연혁보다 도서관 활동가의 서사를 적는 난이 있었거든요. 아주 신선했어요. 그동안 기획서는 꽤 많이 써봤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른 시도구나. 기획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왔어요. 활동가들도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내가 보조가 아니라 중요한 팀의 일원이다.’ 일인분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감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게 된거죠.”(관장 설문)

- 관장들은 도서관의 일상 운영을 유지하는 동시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실험을 병행해야 했기에, 시간적 부담과 방향 설정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였음. 또한 리라프로젝트팀과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제기되는 상이한 의견을 조율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활동가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감정 노동을 감당해야 했음.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 수행은 실험형 리더십의 핵심 조건이지만, 동시에 관장 또한 소진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지지하는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함. 그러나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실험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이 실험을 왜 하는가에 대한 공유된 문제의식, 동료 연구원들에 대한 애정, 과정 자체를 지지하는 외부 구조가 있었기 때문으로 응답함.

- 관장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리라프로젝트가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남겼다는 인식임. 작은도서관을 실제로 움직이게 한 동력이 관장 개인이 아니라 곁에 남아준 사람들, 함께 시간을 축적해온 활동가들이었다는 깨달음이었음. 관장들은 리라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답함. 관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보다, 사람들 각자가 원하는 재미와 즐거움, 책임을 나누는 구조, 이 도서관을 우리가 함께 만든다는 감각이 커뮤니티를 더 단단하고 생기있게 만든다는 것을 재확인함.

“기적처럼만 보이던 30년 한국 작은도서관의 역사는 이렇게 가슴 떨리는 교감과 연결의 힘으로 만들어온 거구나. 그렇다면 작은도서관 운동의 주역은 관장들이 아니라 그 곁에 있어 준 당신들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이 리라프로젝트의 가장 큰 소득이었다.”(관장 설문)



## 제5장

# 결 론



- 랑가나단 (S. R. Ranganathan)의 “도서관의 5법칙”에서 제시한 “도서관은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명제는, 1937년 당시에는 주로 컬렉션의 지속적인 교체와 확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음. 그러나 이 문장의 핵심에는 도서관이 고정된 저장소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스스로를 갱신해야 한다는 가치가 있음. 현재적 맥락에서 도서관의 살아있음은 이용자 삶의 조건 변화에 반응하며, 자신의 기능과 언어를 끊임없이 다시 만드는 데 있음.
- 한국 사회가 마주한 초고령화, 양극화, 사회적 고립, 디지털 격차, AI로 인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이전에 경험한 바가 없는 영역임.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의 정책의 운영 모델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움. 이러한 변화는 예측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음. 이 점에서 실험은 도서관 생태계에 부가되는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도서관이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본 작용임. 물론 모든 도서관이 실험실이 될 수도, 그럴 필요도 없음. 그러나 도서관 생태계 어딘가에는 반드시 실험실이 존재해야 함. 실험실이 부재한 생태계에서 도서관은 더이상 유기체로 진화하지 못하고, 유지·관리되는 시스템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음.

## 1. 실험이 가능하려면?

- 리라프로젝트의 실험은 대단한 예산이나 특수한 인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 아님. 오히려 실험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실험을 허용하는 구조와 최소한의 여백이 존재했기 때문임. 문제는 지금의 도서관 구조가 이 여백을 점점 지워가고 있다는 점임. 많은 도서관에서 ‘실험’은 쉽지 않음.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수고가 들고, 새로운 이용자를 개발하는 것 또한 투입 대비 효율이 낮음. 연간 계획, 정량 평가, 민원 회피, 감사 대응 속에서 도서관은 기존의 이용자로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안전한 선택을 하기 쉬움.
- 도서관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님. 새로운 프로그램, 행사, 서비스 등 시도는 많지만, 실험은 드뭄. 시도는 ‘해보는 것’ 즉 성공 여부가 목표라면, 실험은 ‘알아보려는 것’, 즉 이해와 학습이 목표임. 왜 이게 필요한지 묻고,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살피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해석하려는 가운데 지식을 생성하게 됨. 시도는 실패하면 끝나지만, 실험은 실패로부터 시작됨. 보고서라면 숨기고 싶은 사건들, 애매했던 반응, 중단의 이유들은 실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됨.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학습을 공유하고, 더 실험하고(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남음. 연구원의 설문에서도 “리라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열린 마음, 편안한 시선, 실패해도 괜찮다는 다독임

들이 참 좋았다”는 표현이 많음.

■ 리라프로젝트에서 실험을 가능하게 했던 사업의 구조를 찾아보면,

- ① 리라프로젝트 참여 도서관은 실험에 필요성을 가진 적극적인 관장과 2-3인의 활동가, 그리고 이들 사이에 신뢰와 관계 자원이 이미 형성된 도서관이었다는 점임. 이는 중요한 한계이자 동시에 중요한 발견임. 실험은 아무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만능 해법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했음.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음의 질문이 남음. 자발성을 가진 활동가가 없는 도서관, 이미 소진이 극단에 이른 조직, 관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비슷한 실험이 가능한지는 낙관할 수 없음.
- ② 리라프로젝트는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업이었음. 재단법인 씨앗에 사업 지원을 제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종착점으로서의 어떤 성과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명확한 결과물을 전제하지 않았음. 이 프로젝트가 제시한 유일한 방향성은 완결된 모델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도서관의 운영 방식과 이용자 상을 벗어나 보겠다는 문제의식이었음. 재단법인 씨앗의 관계자는 리라프로젝트가 작은 도서관이 ‘버블’ 밖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이때 버블은 (a) 상상력의 한계를 스스로 가두는 것, 그리고 (b) 실천과 실험, 성과들이 작은도서관 내의 관계망과 언어 안에서만 순환하는 상태로 해석됨.
- ③ 리라프로젝트는 통상적인 공모·지원사업과 지원의 방식에서 대비됨. 많은 사업에서 중간평가는 점수를 매기고, 성과를 선별하며, 경우에 따라 탈락을 결정하는 장치로 작동함. 모니터링 방문 역시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계획 대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감시와 평가의 절차로 인식되기 쉬움. 리라프로젝트의 지원은 성과를 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무엇이 필요해지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관계로 진행됨. 재단법인 씨앗이 재원과 더불어 제공한 공간 개방과 워크숍 장소 지원, 성과공유회 참여와 현장 도서관 방문, 실험 참여자들과의 소통 등은 정해진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실험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건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가까움. 과정을 중시하는 지원, 조율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지원 속에서, 도서관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대신, 실패의 가능성을 포함한 선택을 감행할 수 있음.

“지원사업을 받아 적당한 결과값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더 잘해보려

고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의 고민을 갖고 길을 찾는 과정에서도 언제나 웰컴의 자세로 응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보를 의미있게 지켜보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게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고 재단법인 씨앗이라는 게요.”(관장 설문)

- ④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리라프로젝트에서 중요했던 순간으로 ‘바로 실행하지 않고, 계속 질문만 하던 시간’을 꼽음. 이 유예의 시간 덕분에 도서관들은 이미 익숙한 프로그램을 꺼내놓는 대신, 그동안 말로 정리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답답함, 호기심과 모험심을 드러낼 수 있었음. 이는 공모 사업에서 흔히 요구되는 ‘명확한 목표-정해진 산출물’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이었음. 실험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이 필요함. 또한 숫자로만 판단될 수 없는 성과가 있음, 과정과 해석, 망설임과 변화의 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평가가 필요함.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기획-준비-실행-평가(결과), 이 중에서 실행과 평가 과정만 지원하는데, 리라는 기획 이전의 고민 과정부터 지원을 해주었어요. 사업 진행 이전에 상황을 판단하고 의견을 모으고 고민을 기획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관장 설문)

## 2. ‘복제’가 아닌 ‘번역’

- 리라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확산을 의도한 실험이었음. 1990년대 작은도서관과 문고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어린이실 중심의 실험이 2000년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표준으로 이어졌듯이, 오늘의 작은도서관 실험이 현재의 도서관 생태계 안에서도 유효한 질문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했음. 다만 이 확산은 ‘같은 것을 다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을 ‘다른 맥락으로 옮기는 방식’을 전제로 함.
- 이 실험의 확산 가능성은 프로그램의 복제가 아니라, 위의 질문이 다른 도서관들에서도 다시 던져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초롱이네처럼 자기 기록을 쓰고 전시한다고 해서, 까루처럼 ‘심야도서관’을 연다고 해서, ‘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이나 ‘프로브 노트’, ‘독서동아리 여정지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중장년층의 도서관 이용이 바뀔지는 미지수임. 이 도구들은 모두 각 도서관의 활동가와 이용자에 대한 로컬 리서치에서 출발해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임. 맥락 없이 형식만 가져올 경우, 실험은 곧바로 다시 ‘시도’로 축소됨. 자료나 매뉴얼만을 요청하는 도서관일수록 실험의 배경과 질문보다는 실행 방법을 먼저 취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리라프로젝트가 3년차에 학습과

정을 별도로 계획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리라의 실험들을 어떻게 각자 도서관의 문제의식에 맞게 번역할 수 있을지, 프로그램만을 복제하지 않고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게 할 것인지 세심한 기획이 필요함.

- 활동가 집단의 범위에 대한 번역도 필요함. 리라프로젝트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 까루를 제외하고는 여성 활동가 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반 공동체를 형성하였음. 이는 한국 작은도서관의 실제 인구 구성과 밀접한 맥락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청년, 남성, 이주민, 농어산촌 지역 등 보다 다층적 이용자 집단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추가적인 연구와 실험이 요구됨. 또한 질적 성과의 제도적 번역 문제도 대두됨. 리라프로젝트의 핵심 성과는 관계의 밀도, 인식 전환, 자기 성장, 공동체 감각과 같은 질적 변화에 있음. 그러나 현재의 행정 평가 체계는 이용자 수, 프로그램 횟수, 대출 권수와 같은 정량 지표에 의존함. 실험의 의미가 정책 언어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 질적 변화가 공적 평가 체계 안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함.
- 작은도서관에서 가능했던 연구진의 주도성, 안전감, 취약성의 공유, 관계기반 학습 문화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번역될 경우, 동일한 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질문이 필요함. 리라프로젝트와 같이 작은 공동체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단톡방과 도서관별 단톡방을 통해, 관장이나 담당자 중심의 소통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었음. 전체 행사가 끝날 때마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소회도 모두에게 공유되었음. 공공도서관이나 광역 단위 네트워크처럼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 간의 상호 인지 가능성은 낮고 관계는 느슨해짐. 특히 행정적 책임과 성과 평가 구조, 도서관 간의 경쟁이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실패와 애매함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기 쉬움.
- 따라서 리라프로젝트가 제시한 관계 기반 실험 문화는 단순히 확대될 수 있는 모델이라기보다, 규모에 맞는 다른 설계 원리를 필요로 함. 밀도 높은 소집단 구조를 중층적으로 배치하거나, 공식 평가 체계와 분리된 안전한 실험 공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혹은 작은 단위의 '실험셀'을 조직 내부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핵심은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음.

### 3. '도서관들의 실험실'로서 작은도서관의 공공적 가치

- 리라프로젝트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축소형이나 예비 단계로 보지 않음. 오히려 작은도

서관은 구성원의 자발성, 의사결정의 민첩성, 관계의 밀도, 실패 비용의 낮음이라는 조건을 통해 도서관계 전체를 위한 실험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규모의 한계가 아니라, 구조적 강점일 수 있음.

“작은도서관이 교차성을 지닌 섹터라고 생각해요. 도서관이지만 딱 도서관만은 아닌 말랑한 공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더 말랑하게 만들고 문턱을 낮추면서도 우리의 고유성을 매력적으로 드러낼 때, 더 뿌리를 내릴 거라고 봐요, 그게 당위가 아니라 사는 재미로 느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관장 설문)

“TOP에 적합한 패션이 있듯이, 도서관에 가면 좀 더 쉽게 꺼내어지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다. 선의, 호기심, 유연함, 개방성, 배려... 도서관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주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작은도서관은 더더욱 그러했다. 물리적으로 아기자기한 규모, 상대적으로 적은 이용자 덕분에 더 친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의 장소.”(연구원 설문)

- 리라프로젝트에서 작은도서관은 전문성과 비전문성이 충돌하며 학습하는 중간 지대의 사적인 공적기관였음. 리라프로젝트에서 작은도서관은 전문가가 설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공간도, 순수한 자발성에만 기대는 공간도 아니었음. 관장, 사서, 활동가, 이용자, 컨설턴트, 프로젝트 매니저, 외부 강사가 각기 다른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꾸준히 만나며, 그 차이 자체가 학습의 동력이 되었음. 이 중간 지대에서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갖기 어려운 학습하는 조직의 형태를 드러냄. 이는 공공도서관이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유연성임.
- 대부분의 공공사업에서 실패와 애매모호함은 기록되지 않거나 삭제됨. 그러나 리라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된 작은도서관의 중요한 가치는, 실패가 곧바로 중단이나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험과 판단의 자원으로 축적될 수 있다는 점임. 작은도서관은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와 관계 밀도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로 보면 매우 희귀한 공적 자산임. 작은도서관은 거창한 비전보다 매우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을 먼저 통과해보면서, 미래에 공공도서관이 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공함.

“작은도서관이 지금의 시대에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 그렇지만 신나고 재밌어서 계속 시도해보는 것에 있을 듯해요. (중략)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변화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 느린 진행, 대단히 유연한 시도, 어떤 사람들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오픈 마인드에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관장 설문)

- 실험실로 기여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많지 않음. 그러나 일단 실험실이 된 작은도서관은 분명 공적 지식을 만들어냄. 개인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방식과 태도에 대한 지식, 인생의 중반에 다시 자기 삶의 기획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면서도 참여의 밀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직장을 떠나서도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스스로 공간을 바꾸는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임.

“작은도서관들이, 더 나아가 도서관들이 고정된 틀을 깨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란 OO이다. 자기 해석을 갖고 움직이는 도서관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설문)

“시대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에 감응하는 리라프로젝트의 시도들에 대해 더 많은 온·오프라인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끼리의 소통과 네트워크, 잦은 만남, 근황 토크도 자주 하고요. 누군가의 움직임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하면 유행의 흐름이 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작은 연결이 아닐까요?”(컨설턴트 설문)

- 리라프로젝트에서 실험의 대상은 개별 도서관의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았음. 사업의 지원 방식과 공모 구조, 책임제 형태의 컨설팅,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 설정, 활동가를 연구원으로 위치시키는 방식, 1년에 걸친 리서치 기간, 실험 결과물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영역이 실험의 대상이었음. 이러한 전방위적 실험은 필연적으로 혼란을 동반함. 더욱이 리라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후 단계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실험 영역 또한 남아 있음. 연구원의 설문에 따르면, 참여 이전 단계에서 연구원의 역할, 책임 범위, 시간 투입 정도, 업무 확장 가능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함. 리라 팀 차원에서도 연구원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 중 중첩되는 업무를 구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처음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달리, 영상 제작처럼 새로 익혀야 하는 것도, 제출하라는 것도, 참여하라는 것도, 결과로 보여달라는 것도 많았다. 일이 끊이지 않고 밀려드는 기분이었다.”(연구원 설문)

“처음에 리라프로젝트 연구원 제안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바쁜 상황이 있었지만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막상 하고 보니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겼고,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되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어디까지 일이 커질 수 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연구원 설문)

- 주목할만한 점은 실험의 과정이 단지 도서관 운영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임. 연구원들의 최종 설문에서 따르면, 리라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 다수는 도서관 실험을 넘어, 개인 삶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음.
- 우리 집 공간을 가족들과 함께 다시 배치하고 싶다
- 영상을 통해 개인 이야기를 더 풀어보고 싶다
- 개가 등장하는 소설과 산문집을 함께 읽고 나누는 모임을 꾸리고 싶다
- 묵혀놓았던 물건들의 후기를 기록하고 싶다
- 버려진 물건들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마을 곳곳에 설치하고 싶다.
- 그림 일기를 계속 써보고 싶다.

위와 같이 개인 삶에도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감각과 문화가 전이되고 있음.

- 문제는 실험을 통해 모아진 이야기들과 지식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가임. 학술 논문이나 정책보고서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이러한 변화의 과정과 감각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떤 표현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리라프로젝트의 3년차 질문은 여기에서 다시 열림. 지식이 된 변화의 과정을, 누가, 어떤 언어와 형식으로 다른 도서관들에 건넬 것인가라는 질문임.

#### 4. 도서관 생태계 전환 맥락에서 본 리라프로젝트의 의의

-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IFLA Trend Report 2024는 공통적으로 미래 도서관의 변화 방향을 제시함. 세 문서는 모두 제도 전체를 일괄적으로 개편하는 방식보다, 로컬 단위에서 반복적인 실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강조함.
-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지역 기반 리빙랩과 주민과 활동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제시함.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역시 비독자의 독자 전환, 성인 독자개발을 목표로 제시함. IFLA는 2024 트렌드 보고서에서 ‘지식 실천의 변화’(Trend 1: Knowledge practices are changing)와 ‘공동체 연결 욕구의 확대’(Trend 7: People are seeking community connections)를 핵심 흐름으로 제시하며, 다양한·주변화된 목소리를 지식으로 중심화하려는 움직임과, 외로움·취약함·분절에 맞서 공동체적 연결을 회복하려는 욕구가 공공 지식

기관의 역할을 재정의한다고 봄. 위의 정책은 모두 ‘현장 기반의 독자개발·관계기반 독서문화’를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국제적 맥락에서 볼 때, 리라프로젝트는 선언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장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위치 지을 수 있음.

■ 리라프로젝트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제안하는 ‘도서관 리빙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주민·활동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어떤 리서치 도구(여정지도, 프로브 노트, 욕망사전, FGI 등)와 어떤 기록 형식(에세이 출판, 회고, 인터뷰, 영상, 전시)으로 구현되는지를 네 개 작은도서관의 실제 과정으로 입증함.

■ 리라프로젝트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목표하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 특히 중장년층의 독자 전환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함. 리라프로젝트는 성인 비독자를 독서 의지가 부족한 집단으로 전제하지 않고, 특정 조건 때문에 읽기 어려웠던 사람으로 재해석함. 독자개발은 프로그램 확장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조건과 시간 구조를 먼저 이해하려는 리서치에서 출발함을 보여줌. 웃는책은 추상적인 성인 독자가 아니라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독서 공백기 여성, 디지털 매체에 시간과 집중력을 뺏긴 이들 등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가진 인물들로 비독자를 재현하고 독서동아리를 통한 독서 재진입의 경로를 제안함. 까루는 도서관의 시간과 공간 규범을 재설계하는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책에 대한 독자의 접근 조건을 조정함.

■ IFLA Trend 1 지식 실천의 변화

웃는책(인터뷰·여정지도·교육자료)과 초롱이네(욕망 기록·전시)는 이용자의 말을 프로그램 만족도나 요구조사 수준에서 소비하지 않고, 서사·감정·리듬을 갖춘 로컬 지식으로 생산했음. IFLA가 Trend 1에서 강조하는 다양하고 주변화된 목소리를 지식 체계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은, 리라프로젝트에서 ‘묻기·듣기·기록·해석·공유’의 반복 구조로 구현되었음.

■ IFLA Trend 7 공동체 연결 욕구의 확대

까루(심야도서관·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와 예다움(공간 전환·머무름의 이유 만들기), 웃는책(삶을 나누는 독서동아리)은 ‘참여자를 모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되는 허가, 관계가 과잉되지 않는 연결, 돌봄이 서비스가 아니라 관계 구조로 순환되는 장을 만들었음. 이는 IFLA가 Trend 7에서 지목한 외로움과 취약함에 맞서 자원을 공유하는 로컬 커뮤니티로써, 공동체의 연결 욕구를, 도서관이 시간·공간·관계의 설계로 수용하는 실제 경로를 제시함.

■ 리라프로젝트는 정책 문서에서 제기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충분히 참고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들을 제공함.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새로운 이용자의 요구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 이용자가 감소하는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 자치적 문화활동이 활성화되는 도서관의 구조적 조건은 무엇인가?
-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아카이브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도서관 리빙랩은 어떠한 운영 조건에서 지속 가능한가?

리라프로젝트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단일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실험된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새로운 이용자의 요구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리라는 ‘구조화된 듣기’를 핵심 원리로 삼았음. 설문, 프로브 노트, 심층 인터뷰, 여정지도, FGI 등 다양한 리서치 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경험을 단편적 의견이 아니라 맥락과 감정을 포함한 서사로 수집하였음. 이는 비이용자 및 잠재 이용자에 대한 탐색을 행정적 수요조사 수준에서 벗어나,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한 질적 탐구로 확장함.
- 둘째, 이용자가 감소하는 도서관 공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해, 리라프로젝트는 물리적 리모델링을 우선하는 접근 대신, ‘머무름의 이유’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나 시설이 아니라, 이용자의 행위와 욕망, 관계의 밀도를 조직하는 조건으로 인식한 것임. 리서치에 기반하여 시간 운영 방식과 공간 사용 규칙을 조정하고, 참여자의 실제 사용 경험을 추적·관찰하며 공간의 성격을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감.
- 예다움의 경우, 리서치를 통해 이용자의 필요와 공간 사용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아지트 실험단과 함께 공간을 디자인하고 리라프로젝트 연구진이 공간을 재배치하였음. 이후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머무름의 패턴과 불편함을 다시 관찰하고 기록하며, 공간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생성하는 순환적 구조를 취하였음. 즉 공간 변화는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리서치·변경·사용·관찰·재변경의 반복을 통해 축적되는 과정이었음.
- 반면 초롱이네는 공간을 먼저 바꾸기보다, 기록과 자기 탐색의 실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기록하는 경험’을 충분히 한 이후, 그 경험에 적합한 기록 공간을 함께 구성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였음. 즉 물리적 공간 변화가 선행된 것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이 공간의 형식을 규정하였음. 이 두 사례는 공간 전환이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경험과 해석의 축적 속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보

여준.

- 셋째,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구조적 조건에 대해, 리라 프로젝트는 소수의 핵심 활동가와 다수의 느슨한 참여자가 공존하는 다층적 참여 구조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였음. 까루에서는 활동가와 피프티피플이, 예다움에서는 활동가와 아지트 실험단이, 웃는책에서는 활동가·독서동아리 리더와 독서동아리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밀도의 참여 층위를 형성하며 겹 구조를 이루었음. 느슨한 참여자 그룹은 참여와 이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책임이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소진을 최소화하려는 조건을 마련하였음. 이는 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였음.
- 핵심 활동가는 단순한 실행 인력이 아니라 질문을 생성하고, 과정을 기록하며, 경험을 해석하는 실험연구자로 재위치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았음. 활동가들은 리라 프로젝트에서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소정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았음. 연구활동비는 교육과 워크숍 참여, 정기회의 참석, 리서치 수행, 기록 작성, 결과 보고, 교육자료 생성 등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 이러한 구조는 활동가의 역할을 자원봉사 차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학습과 책임을 동반한 준전문적 위치로 이동시키는 장치로 기능하였음.
- 넷째,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아카이브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구술, 영상, 사진, 에세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이야기 기록 체계를 구축하였음. 이는 지역의 삶과 감각을 단순 자료 수집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지식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으며, 도서관을 로컬 지식 생산의 거점으로 확장하는 실천이었음. 기록의 주체를 전문가가 아닌 지역의 평범한 개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완결된 과거의 정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고민과 선택, 망설임과 감정을 포함하는 과정의 기록을 축적하였음. 이는 오히려 살아있는 자료로 기능하며, 도서관을 로컬 경험을 생산·해석·축적하는 지식 거점으로 확장시킴.
- 여섯째, 도서관 리빙랩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즉각적 실행보다 문제 정의를 위한 유예의 시간을 제도화하고, 실패를 학습의 자원으로 인정하며, 동반자적 지원 구조를 통해 실험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음. 이는 평가와 통제 중심의 지원 체계와 대비되는 운영 모델로, 과정 중심 학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였음. 리라프로젝트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 리서치 설계, 기록과 해석의 주제, 활동가의 역할 정의,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 그리고 실험 결과를 확산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도서관 운영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를 실

힘의 대상으로 삼았음. 이러한 접근은 도서관다움에 갇혀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말고,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테스트베드형 서비스, 도전적인 공간 재구성을 시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라는 IFLA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음. 이 점에서 리라프로젝트는 단순한 우수사례나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집합이 아니라, 도서관 리빙랩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질문, 관계, 시간, 기록, 학습 구조-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선행 모델로 이해될 수 있음.

---

## 참고문헌

- 가토 미코토, 이정미 역, 『고객 여정 지도 워크숍 가이드』, 유엑스리뷰, 2023.
- 김은하, 「미래에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의 역할 모델 연구」,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2023.
- 김주연, 『공공 디자인 시대』, 북저널리즘, 2023.
- 깔깔마녀 외, 『울프의 감자』, rootpress, 2025.
-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2024.5.29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5.
-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문화체육관광부, 2024.4.18.
- 이수현 외, 「OECD PIAAC 2주기 2023년 성인스킬조사 주요 결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 이정주 외, 『새로운 디자인 도구들』, 인사이트, 2018.
- 작은도서관 까루, 『까루, 진정한 독자를 만나다』, rootpress, 2026.
- 진 리드카 외, 『디자인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유엑스리뷰, 2021.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Trend Report 2024: Facing the future of information with confidence (Updated Edition)*, IFLA, 2024, <https://www.ifla.org/trend-report>, 2025. 12. 02 접속).
- Pahl, K. and Rowsell, J. *Artifactual Literacies: Every Object Tells a Story*, NY: Teachers College Press, 2010.

## 내부 자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도서관별 리라프로젝트 컨설팅 보고서, 내부자료, 2024~2025.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도서관별 지원서와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2024.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리라프로젝트 컨설턴트 회의자료, 내부 회의자료, 2024~2025.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리라프로젝트 참여자의 회고자료, 2024.
- 예다움 작은도서관, 아지트 실험단 참여자 프로브노트 전사본, 내부 연구자료, 2025.
- 예다움 작은도서관, 「오로지, 나」 프로브노트와 도서관용 설명서, 발간자료, 2026.
- 작은도서관 웃는책, 독서동아리 참여자 여정지도 전사본, 내부 연구자료, 2025.
- 작은도서관 웃는책, 독서동아리 참여자 인터뷰 전사본, 내부 연구자료, 2024.
- 작은도서관 웃는책, 독서동아리 참여자 프로브노트 전사본, 내부 연구자료, 2025.
- 작은도서관 웃는책, 「책·사람·공동체」, 발간자료, 2025.

- 
- 작은도서관 웃는책, 7가지 페르소나를 담은 소책자 「Personal Book」 7권과 「Commentary Book」, 발간자료, 2026.
  - 작은도서관 caru, 피프티피플 설문조사 결과. 내부 연구자료, 2024.
  - 초롱이네도서관,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은」, 발간자료, 2024.
  - 초롱이네도서관, 「우리는 덩어리였습니다」, 발간자료, 2025.

## 설문

- 리라프로젝트 연구원, 컨설턴트, 프로젝트팀 대상의 오픈형 설문, 2025.12~2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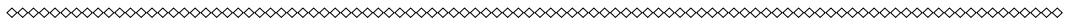
## 부록

- 1. 리라프로젝트 공고문, “실험을 함께 할 작은도서관을 찾습니다”
- 2. 리라프로젝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실험을 함께할 작은도서관을 찾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새로운 도서관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확산할 작은도서관을 찾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는 '도서관 실험실'로 작은도서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도서관의 변화를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체 도서관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또 다른 방향을 고민하는 「리라프로젝트」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 명 :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
- ◎ 사업 기간 : 2024년 5월~2025년 12월
- ◎ 사업 기관 :
  - 주최·주관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기금 지원 :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 ◎ 대상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소속 작은도서관(협의회 소속 작은도서관 포함)
- ◎ 규모 :
  - 2024년 콘텐츠 구축비 총 3,600만원 (도서관 별 콘텐츠 개발 내용과 방법에 따라 900만원 내외로 적용) / 2025년 규모는 차후 결정
  - 2024년 4개 작은도서관, 2025년 1개 추가 총 5개관
- ◎ 신청 유형
  - 콘텐츠 업그레이드형 : 현재 진행 중인 작은도서관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하는 유형
  - 새로운 콘텐츠 개발형 : 현재 작은도서관이 고민하거나 새롭게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개발형
- ◎ 신청 방법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 시즌3 리라프로젝트 팀 메일로 접수 smallliborg@naver.com
- ◎ 공고 기간 : 2024.4.24.(수)~5.10.(금)
- ◎ 접수 기간 : 2024.4.30.(화)~5.10.(금) 18:00까지
- ◎ 문의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 시즌3 리라프로젝트 팀 ☎ 02-336-5934 (평일 10시~17시 / 점심 시간 제외)
- ◎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는 실험입니다.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내용을 자세히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리라프로젝트는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2023년 진행된 ‘미래에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의 역할모델연구’ (김은하, 2023)에 따르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은 ① 도서관들의 실험실 ② 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 ③ 미시 커뮤니티 도서관 ④ 교통약자의 유일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가지 역할이 모두 중요하지만, 리라프로젝트는 ‘도서관의 실험실’로 작은도서관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가진 고유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도서관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려 합니다.

**작은도서관 대상으로 리라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독보적이고 유니크한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별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제대로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는 작은도서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미래를 스스로 연구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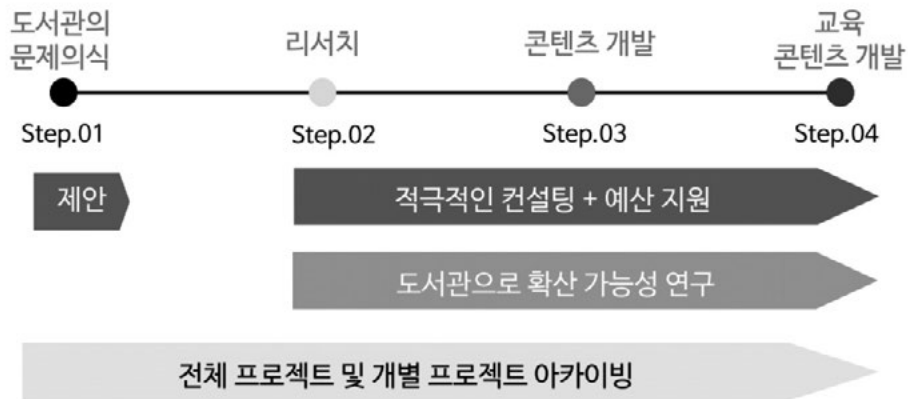
**‘실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요?**

‘작은도서관의 실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진행했던 작은도서관의 지원과 다른 방향과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실험’의 의미를 갖습니다. ‘리라프로젝트’는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정해진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가 선정한 작은도서관과 함께 하는 ‘실험’의 과정입니다.

**뭔가 어려워요. 이걸 하면 우리 도서관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도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변화를 꿈꾸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실험을 통해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리라프로젝트는 1년 6개월동안 1)도서관의 문제의식을 찾고 2)도서관 활동가들이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리서치를 하고, 3)리서치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4)교육콘텐츠로 만들어 다른 도서관에 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리라프로젝트는 우리 도서관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으로 ‘확산’ 하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리라 프로젝트 프로세스



〈참고: 리라프로젝트 프로세스〉

### 리라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하게 될까요?

리라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은 3명이에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거든요. 이 활동가들이 함께 도서관의 문제의식도 꼬집어내보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리서치하고 콘텐츠 개발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전체 과정에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파견한 컨설턴트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될 거예요. 컨설팅은 수행 도서관 선정 과정부터 진행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거죠.

### 협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협회는 작은도서관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거예요. 협회는 컨설팅을 총괄하고 전체 과정을 아카이빙할 겁니다. (개별 도서관 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아카이빙을 진행합니다) 또한, 리라프로젝트의 과정을 타 도서관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작업도 별도 연구자와 진행할 겁니다.

### 작은도서관에 주는 기금은 얼마인가요?

도서관의 프로젝트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거예요. 2024년에는 1개관 당 500만원~1,000만원선이 될 거 같습니다. 2025년 예산은 하반기에 편성을 하게 될 거 같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기존의 방식도 좀 다른 데요. 과정별로 교부신청을 하고 정산이 끝나면 다음 과정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할 계획이에요.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적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등을 확인해주세요.

궁금한 것이 더 많아졌지요? 좀 더 알고 싶으면 꼭 협회로 문의해주세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 질문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 I. 리라프로젝트 개요

- 사업명 :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
- 내용 : 전체 도서관으로 확산할 수 있는 도서관 콘텐츠 개발
- 규모 : 2024년 콘텐츠 구축비 총 3,600만원 / 2025년은 추후 결정
- 사업기간 : 2024년 6월 ~ 2025년 12월

## II. 리라프로젝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4. 30.(화) ~ 5. 10.(금) 18:00까지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li> <li>- 지역을 기반으로 리서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할 작은도서관</li> <li>-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소속 작은도서관(협회 소속 작은도서관 포함)</li> <li>-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등 3명 이상 참여가 가능한 작은도서관</li> <li>-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교육 '리서치학교' 과정을 함께한 활동가 1명 이상 포함된 작은도서관</li> </ul>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라프로젝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li> <li>-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지정서식) *hwp파일로 제출</li> <li>- 작은도서관 등록증 사본</li> <l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li> </ul>

- 신청방법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 (smalllib.org) 공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
- 접수방법 : 전자우편 smallliborg@naver.com  
(메일 제목 : ○○도서관\_2024 '리라프로젝트' 신청)

### III. 추진 일정

#### ■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2024. 4. 24.(수) ~ 5. 10.(금)		
접수	2024. 4. 30.(화) ~ 5. 10.(금) 18:00까지		5월 10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심의	서류 심의	5.14.(화)	인터뷰 심의는 개별 작은도서관 방문 진행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
	인터뷰 심의	5.20.(월) ~ 5.31.(금) ※예정	
선정 결과 발표	6.4.(화)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1. 사업설명회는 공고에 앞서 2024.3.18.(월) 10시 사전 진행하였음.

2. 사업 추진사항에 따라 세부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IV. 심의 및 선정

#### ■ 심의 절차

구 분	내 용
1차 서류 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검토 및 인터뷰 대상 선정
2차 인터뷰 심의	- 작은도서관별 인터뷰 심의 진행 (작은도서관 방문 진행 예정)

#### ■ 심의 기준

구 분	내 용
심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도서관의 변화를 고민하는 주체의 진정성</li> <li>- 리라프로젝트 사업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li> <li>- 리라프로젝트의 목적과 도서관 활동의 적합성</li> <li>- 리라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협력의 책임성</li> </ul>

## V. 후속 일정 및 문의

### ■ 후속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선정	6.4.(화) (예정)	
리라프로젝트 사전 워크숍	6월 둘째 주 중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리라프로젝트 워크숍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 운영 안내 ※ 작은도서관별 최대 2명 필수 참석
전문가 컨설팅	6월~12월	- 리라프로젝트 방향 및 내용 변화 제시 - 작은도서관별 매달 1회 이상 (예정)
현장 모니터링	6월~12월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 리라프로젝트팀 방문 - 필요에 따라 매달 1회 또는 격달 1회 진행 (예정)
과정 성과 워크숍	11월 중 (예정)	- 도서관 실험실 운영 과정 공유 - 진행 과정 공유회

### ■ 문의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 시즌3 리라프로젝트 팀

☎ 02-336-5934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 신청서

도서관명	(띄어쓰기 정확하게)		
대표자명			핸드폰
			이메일
담당자명			핸드폰
			이메일
운영주체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직영 <input type="checkbox"/> 위탁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아파트(공동주택) <input type="checkbox"/> 종교시설 <input type="checkbox"/> 새마을문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서관 현황	주 소		
	전화번호		
	홍보채널	(홈페이지, 카페, 밴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업그레이드형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콘텐츠 개발형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요약			
참여 활동가 수	( )명	참여자명	
신청예산	금	원 (₩	)
신청 배경			
<p>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 사업을 신청합니다.</p> <p>2024년      월      일</p> <p>작은도서관명 :      (인)</p> <p>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귀하</p> <p>※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 계획서<sup>10</sup>

(파란색 예시는 지우고 사용해주시고, 내용은 검은색으로 바꿔주세요.)

## I. 작은도서관 소개

도서관명	도서관명 (띄어쓰기 정확하게)
도서관주소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도서관을 만날 수 있나요?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현재 도서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b>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b>	

☞ 우리 도서관의 경험과 활동을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소개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아래 문항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1) 우리 도서관의 지역 특성과 도서관이 지역과 함께 했던 활동을 알려주세요.

2) 현재 우리 도서관의 흐름과 질문, 고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는 사업에 참여하는 도서관과 활동가들의 활동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 도서관이 바라는 바를 알려주세요.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갈 활동가를 소개해 주세요	순번	이름	역할	도서관 또는 관련한 경험과 활동을 작성
	1		사업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요?	경력 중심이 아닌 나의 경험과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2			
	3			
	4			

10 본 계획서 양식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된 버전이며, 2025년에 일부 수정되었음.

## II.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를 함께할 활동가

'작은도서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사람'을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어요.  
이번엔 이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복사하여 3명 이상 작성해주세요)

나 ( )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작은도서관 관련 어떤 활동을 경험하셨나요?			

- 작은도서관 활동가로서의 경험이나 유사 경험 등 활동 위주로 알려주세요.

자유롭게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 무슨 얘기도 좋아요. 하지만, 단답형은 피해주세요.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에는 어떤 이유로 함께하게 되었나요?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나요?

- 도서관 얘기 말고 활동가 개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 III. 리라프로젝트에서 실험하고 싶은 콘텐츠는

리라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 싶은 콘텐츠를 소개해 주세요

콘텐츠 명			
참여 대상			
운영 기간	0 월 0 일~0 월 0 일	운영 장소	
콘텐츠 주제 및 이슈는 무엇인가요?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1) 도서관에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로 기획하게 된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 2) 이번 프로젝트에 어떤 지역이나 대상 등 참여하기를 바라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협회나 리라프로젝트 팀과는 어떤 과정을 함께하고 싶나요?

콘텐츠 개발 후 확산을 위한 계획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향후 타 작은도서관들에 확산을 위한 계획 등이 궁금합니다.

## IV. 더 하고 싶은 이야기

계획서 양식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경우 협회에 바라는 점 등을 적으셔도 됩니다.

## V. 예산 계획

총 사업 예산 : 금 원 (₩ )					
※ 항목별 예산 산출내역과 세부내역, 예산액 총액을 작성해주세요.					
※ 사업(활동)내용에 따라 세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목 변경은 불가능)					
구분	항목	세 목	세부 산출내역	예산액(단위:원)	
리서치	인건비	연구원 사례비 기타 인건비			
	제작비	자료 제작비 등			
	진행비	소모품 구입비 다과비 등			
	임차비	공간, 차량, 소품 임차비			
	여비	답사비 등			
	소 계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콘 텐츠 개 발	인건비	사례비			
		회의비 및 자문료			
		기타인건비			
	소 계				
	제작비	홍보비 및 인쇄비			
	소 계				
	진행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다과비			
	소 계				
임차비	임차비				
소 계					
여비	답사비				
소 계					
합 계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 3  
작은도서관, 도서관 콘텐츠를 실험하다 '리라프로젝트'

## 리라프로젝트, 실험하는 작은도서관

발행일 : 2026년 1월  
연구책임자 :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

1세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리라프로젝트, 실험하는 작은도서관